

KREI

인도 농업과 주요 농업정책 동향

이현근 · 곽혜선 · 명수환 · 구혜민

연구 담당

이현근 | 전문연구원 | 연구총괄, 제1·2·5장 작성

곽해선 | 연구원 | 제2·4장 작성

명수환 | 연구원 | 제3장 작성

구혜민 | 연구원 | 제3장 작성

해외농업시리즈 30: 인도

인도 농업과 주요 농업정책 동향

등 록 | 제 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3. 11.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더크리P&B (주)

I S B N | 979-11-6149-641-2 95520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1.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2. 인도 국가 및 농업 개황	5
1. 인도 개황	5
2. 인도 농업 현황	17
3. 인도 주요 품목별 생산 및 수출 동향	33
1. 주요 품목별 생산 및 수출 동향 개요	33
2. 쌀	35
3. 밀	40
4. 옥수수	45
5. 감자	51
6. 후추	56
7. 땅콩	60
8. 커피	63
9. 참깨	67
4. 인도 농업 관련 정책 현황	73
1. 인도 농업정책 개요	73
2. 인도 농업 생산 정책	77
3. 인도 농업 통상 정책	85

5. 요약 및 시사점	101
1. 요약	101
2. 시사점	106
참고문헌	109

제2장

〈표 2-1〉 인도 국토 이용 현황	8
〈표 2-2〉 인도 인구 동향	9
〈표 2-3〉 인도 경제 동향	10
〈표 2-4〉 인도 국가별 총 수출입 동향	12
〈표 2-5〉 인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현황(2023년 7월 기준)	15
〈표 2-6〉 인도 지역무역협정(RTA) 협상 현황(2023년 7월 기준)	16
〈표 2-7〉 인도 농경지 이용 현황	18
〈표 2-8〉 인도의 농림수산업 부가가치 변화(2011/12년 불변가격 기준)	20
〈표 2-9〉 인도 주요 농산물 재배면적	22
〈표 2-10〉 인도 주요 농산물 생산량	24
〈표 2-11〉 인도 가축 사육 동향	25
〈표 2-12〉 인도 축산물 생산 동향	26
〈표 2-13〉 인도산 농식품 국가별 수출 현황	28
〈표 2-14〉 인도산 농식품 품목별 수출 현황	29
〈표 2-15〉 인도의 농식품 국가별 수입 현황	31
〈표 2-16〉 인도의 농식품 품목별 수입 현황	32

제3장

〈표 3-1〉 인도 농업생산액	34
〈표 3-2〉 국가별 쌀 생산 동향	35
〈표 3-3〉 인도의 쌀 생산 동향	36
〈표 3-4〉 인도의 지역별 쌀 생산 동향	37
〈표 3-5〉 인도의 국가별 쌀 수출 동향	39
〈표 3-6〉 국가별 밀 생산 동향	41
〈표 3-7〉 인도의 밀 생산 동향	41

〈표 3-8〉 인도의 지역별 밀 생산 동향	42
〈표 3-9〉 인도의 국가별 밀 수출 동향	44
〈표 3-10〉 국가별 옥수수 생산 동향	46
〈표 3-11〉 인도의 옥수수 생산 동향	46
〈표 3-12〉 인도의 지역별 옥수수 생산 동향	47
〈표 3-13〉 인도의 국가별 옥수수 수출 동향	50
〈표 3-14〉 국가별 감자 생산 동향	51
〈표 3-15〉 인도의 감자 생산 동향	52
〈표 3-16〉 인도의 지역별 감자 생산 동향	53
〈표 3-17〉 인도의 국가별 감자 수출 동향	55
〈표 3-18〉 국가별 후추 생산 동향	56
〈표 3-19〉 인도의 후추 생산 동향	57
〈표 3-20〉 인도의 국가별 후추 수출 동향	59
〈표 3-21〉 국가별 땅콩 생산 동향	60
〈표 3-22〉 인도의 땅콩 생산 동향	61
〈표 3-23〉 인도의 국가별 땅콩 수출 동향	62
〈표 3-24〉 국가별 커피 생산 동향	64
〈표 3-25〉 인도의 커피 생산 동향	65
〈표 3-26〉 인도의 국가별 커피 수출 동향	66
〈표 3-27〉 국가별 참깨 생산 현황	68
〈표 3-28〉 인도의 참깨 생산 동향	69
〈표 3-29〉 인도의 국가별 참깨 수출 동향	70

제4장

〈표 4-1〉 인도의 농업정책 구상 및 실행 기구	74
〈표 4-2〉 인도 정부의 농민 소득 2배 증가를 위한 계획	77

〈표 4-3〉 농민임금지원제도(PM-KISAN)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80
〈표 4-4〉 인도의 농민임금지원제도(PM-KISAN) 지원 현황	81
〈표 4-5〉 최소지원가격제도 대상 농작물의 생산비, MSP 및 수익률	82
〈표 4-6〉 2022년 인도의 전자정부 실행 실험(pilot) 계획	84
〈표 4-7〉 인도 농업 수출 정책 목표	85
〈표 4-8〉 인도 농업 수출 정책 체계	86
〈표 4-9〉 인도 농식품 수출개발청(APEDA)의 수출 촉진 계획	88
〈표 4-10〉 통합상품서비스세(GST)로 통합된 인도의 간접세 체계	90
〈표 4-11〉 통합상품서비스세(GST) 세율 구조	91
〈표 4-12〉 인도 영양 등급 점수 및 별 산출 방식	94
〈표 4-13〉 인도의 최저수입가격 적용 현황	97
〈표 4-14〉 인도의 농산물 수출 제한 현황	98

제2장

〈그림 2-1〉 인도 지도	7
〈그림 2-2〉 인도와 한국의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비율 비교	11
〈그림 2-3〉 인도 산업별 부가가치 비율과 성장률(2021/22년 기준)	19
〈그림 2-4〉 인도 지역별 농업 분야 부가가치액 및 성장률(2019/20년 기준)	21
〈그림 2-5〉 인도의 농식품 교역액과 무역수지 추이	27

제3장

〈그림 3-1〉 인도의 쌀 수출 동향	38
〈그림 3-2〉 인도의 밀 수출 동향	43
〈그림 3-3〉 인도의 옥수수 수출 동향	49
〈그림 3-4〉 인도의 감자 수출 동향	54
〈그림 3-5〉 인도의 후추 수출 동향	58
〈그림 3-6〉 인도의 땅콩 수출 동향	62
〈그림 3-7〉 인도의 커피 수출 동향	65
〈그림 3-8〉 인도의 참깨 수출 동향	69

제4장

〈그림 4-1〉 인도의 세계무역기구(WTO) 특정무역현안(SPS 및 TBT) 제기 현황	92
〈그림 4-2〉 인도 영양 등급 식품표시의 예시	95

〈주요 원어 용어 약어표〉

약어	원어	한글
APEDA	The Agricultural and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인도 농식품 수출개발청
BIS	Bureau of India Standards	인도표준국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DDP	Delivered Duty Paid Shipping	관세지급 인도조건
DFI	Doubling Farmers' Income	농민 소득 2배 증가
FSSAI	Food Safety and Standard Authority of India	인도 식품안전표준청
GST	Goods and Service Tax	통합상품서비스세
INR	Indian Nutrition Rating	인도 영양 등급
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MFN rate	Most Favored Nation rate	평균 실행관세율
MIP	Minimum Import Price	최저수입가격
MoA&FW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armers Welfare	인도 농업농민복지부
MoCI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인도 상공부
MSP	Minimum Support Price	최소지원가격제도
NeGP-A	National e-Governance Plan in Agriculture	농업 분야 전자정부
PM-KISAN	Pradhan Mantri Kisan Samman Nidhi	농민임금지원제도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지역무역협정
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SAPTA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 특혜무역협정
STC	Specific Trade Concerns	특정무역현안
US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미국 농무부

주: 주요 약어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하여 제시함.

자료: 저자 작성.

1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인도는 국토 면적과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측면에서도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 인도 총면적은 328만 7천 ㎢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크고, 인구는 14억 2천만 명 (2022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 인도의 최근 10년(2012~2022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64%로 같은 기간 세계 평균(2.69%)보다 2배 이상으로 높다.
- 인도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대외 무역 정책 수립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자국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도 대외 무역 정책은 7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되는데, 2015~2021년 대책에 이어 최근에는 ‘대외 무역 정책 2023’을 발표했다. 인도 ‘대외 무역 정책 2023’은 과거와 달리 수출업체와의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다.
 - 인도는 WTO 창립 회원국으로, 2023년 7월 현재 31개국과 19건의 지역무역협정

(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을 발효했으며, 20건의 새로운 RTA 체결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 우리나라와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을 2010년에 발효했으며, 최근에는 제9차 개선 협상(2022. 11. 3.)이 추진되었다.

-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인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인도 자체적으로도 제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으로의 편입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 인도는 전체 국토 면적의 60% 이상이 농업에 이용되고 대외교역에서는 농산물 순 수출국일 정도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농업의 중요성과 경쟁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 인도의 농경지 면적은 179만 km²로 전체 육지면적의 60.2%(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그중에서 단년생 경종업 면적이 농경지 면적의 86.8%를 차지한다.
- 인도의 농촌 인구는 9억 1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4.1%(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농촌 인구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 인도의 농식품 수출액은 786억 3천만 달러(2021년 기준), 농식품 수입액은 575억 9천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210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수출액은 2011년 이후 연평균 4.0%씩 증가했고, 전년보다 26.3%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인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쌀, 쇠고기, 사탕수수당, 후추와 땅콩 등이며, 주로 미국, 중국,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등으로 수출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산 밀, 참깨, 당밀, 커피, 옥수수와 대두 등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채종·콜자씨박, 기타 식물성유박과 대두박 등 박류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 세계 시장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인구, 사회,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인도 농업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도 협상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ndia-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등 신 통상규범에 대응할 기초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인도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14개 나라가 참여하는 IPEF 회원국이며, IPEF 협상은 2023년 7월에 4차 협상이 추진된 바 있다.

- 향후, 한국·인도 CEPA 개선 협상 타결과 IPEF 체결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국내 농업 부문 대응 방향 마련, 한국과 인도 간 수출입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농업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등을 위해 인도의 농업 관련 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인도의 국가 및 농업 개황, 주요 품목별 생산 및 교역 동향, 농업 및 농업통상 관련 정책 및 이슈 등을 조사했다. 이는 향후 추진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신 통상규범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크게 인도 국가 및 농업 개황, 인도 주요 농산물 부류별 생산 및 수출 동향, 인도의 농업 및 농업통상 관련 정책으로 구성된다.

- 인도 국가 개황은 인도 지리적 현황, 인구 구성, GDP, 산업별 부가가치, 교역 및 지역 무역협정 체결 등 경제 현황, 농업 개황은 농경지 면적 및 농업 인구 구성, 품목별 생산액 및 교역액 등으로 구성된다.
- 인도의 주요 농산물 부류별 생산 및 수출 동향은 인도의 품목별 농업생산액에서 비교적 큰 비율을 차지하는 쌀, 밀, 감자와 옥수수의 네 개 식량작물, 네 개 식량작물 이외에 인도의 對세계 수출액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후추, 땅콩, 커피와 한국의 인도산 농식품 수입액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참깨를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다만,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에서 인도가 관심을 가질 만한 망고·망고스틴·구아바와 오렌지와 같은 인도산 과일에 관한 생산 동향은 통계자료 부족 등으로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는 본 보고서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¹⁾
- 인도의 농업 관련 정책은 크게 농업 생산 정책과 농업통상 정책으로 구분하였다. 농업 생산 정책에서는 다양한 정책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며 인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¹⁾ 기존 2010년에 발효한 한·인도 CEPA에서 한국은 인도산 망고 수입 관세율 30%를 10년 동안 50%만 감축하기로 했고, 망고스틴, 구아바와 오렌지는 양허를 제외한 바 있음.

추진하는 농업인 소득지지와 전자정부 정책을 주로 다루었다. 농업통상 관련 정책은 인도의 농식품 수출 촉진 정책과 수입 관련 정책 등이 포함되며, 한국의 정부 또는 기업과 관련 있는 내용을 추가로 언급하였다. 한편, 인도의 국내외 투자에 관한 정책도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농업 생산과 농업통상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투자 관련 정책은 본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 본 연구에서는 World Bank, FAO, USDA와 같이 활용도가 높은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문헌과 통계자료를 이용했다.

- 인도 개황은 World Bank와 FAOSTAT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이용해 작성했다.
- 인도의 부류별 생산 및 교역 동향은 FAOSTAT, UN Comtrade뿐만 아니라 인도 농업농민복지부(Ministry of Agriculture & Farmers Welfare: MoA&FW)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한 통계자료를 이용했다.
- 인도의 농업 및 농업통상 관련 정책 동향은 인도 MoA&FW,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oCI)와 각 부의 산하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이용했다.

2

인도 국가 및 농업 개황

1. 인도 개황

1.1. 역사 및 사회문화²⁾

○ 인도는 인더스 문명을 시작으로 다양한 왕조를 거친 후 제국(帝國) 시대 영국으로부터 지배와 독립의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 인도는 아리안 문화(B.C. 2000~B.C. 1000년), 베다 시대(B.C. 1500~B.C. 800년)를 거쳐 마우리아 제국 시대(B.C. 321~B.C. 185년)에 최초의 통일 왕국을 건설했고, 굽타 왕조(320~606년) 이후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진출하면서 무굴 제국이(1526~1858년) 탄생했다.
- 인도는 1858년 무굴 제국의 영국 직할지 편입으로 멸망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7년 8월에 영연방 자치령으로 독립했고, 1950년 1월에는 헌법이 발효되면서 자치령 지위에서도 탈피했다.

²⁾ 본 절은 외교부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웹사이트(<https://overseas.mofa.go.kr/in-ko/index.do>, 검색일: 2023. 6. 21.)를 참고하여 작성함.

○ 인도는 다양한 인종, 복잡한 언어와 종교, 극심한 빈부 격차와 사회적 신분제도 등으로 이질성과 다양성을 갖춘 복합적인 사회이다.

- 인도는 아리안족이 인도를 정복한 후 소수집단인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에 동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카스트(Caste) 제도가 전해져 왔으나, 현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① 승려 및 사제계급인 브라만(Brahman), ② 전사 및 권력 계급인 크샤트리아(Kshatriya), ③ 상인계급인 바이샤(Vaisya), ④ 노예계급인 수드라(Shudra)와 ⑤ 불가촉천민(Untouchable)으로 구분된다.

1.2. 지리적 현황³⁾

○ 인도는 내륙으로는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중국, 네팔, 파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바다로는 아라비아해와 벥골만 사이에 있다<그림 2-1>.

- 인도 총면적(Total Area)은 328만 7천 km²로 세계에서 여덟 번째(남극 제외)로 크고,⁴⁾ 토지 경계는 13,888km, 해안선 길이는 약 7,000km에 달한다.

- 인도는 여섯 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와 4,142km, 파키스탄과 3,190km, 중국과 2,659km, 네팔과 1,770km, 미얀마와 1,468km 마지막으로 부탄과 659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³⁾ 본 절의 내용 중 일부는 미국 중앙정보국(<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india/>, 검색일: 2023. 6. 21.)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⁴⁾ 인도 총면적은 한국 총면적(10만 km²)의 33배에 달함(미국 중앙정보국(<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india/>), 검색일: 2023. 6. 21.).

〈그림 2-1〉 인도 지도



자료: 미국 중앙정보국(<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india/>), 검색일: 2023. 6. 21.

○ 인도의 국토는 농경지 면적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농경지에서는 단년생 작물 면적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표 2-1).

- 인도 농경지 면적은 2011년 179만 6,700㎢에서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부터 감소 추세가 이어져 2021년에는 178만 5,279㎢로 감소했다.
- 인도 농경지 면적에서 관개시설이 갖추어진 면적은 2021년 기준 75만 4,562㎢로 42.3%에 불과하지만, 이 비율은 2011년 대비 6.9%p의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 산림 면적은 농경지 면적과 달리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1년 69만 7,624㎢에서 2021년 72만 4,264㎢로 연평균 0.42%씩 증가했다.

〈표 2-1〉 인도 국토 이용 현황

단위: 천 km²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21/'20
육지(Land area, A)	2,973	2,973	2,973	2,973	2,973	2,973	2,973	0.00	0.00
농경지 (agricultural land, B)	1,797	1,797	1,797	1,792	1,790	1,785	1,785	-0.07	0.00
(B/A, %)	(60.4)	(60.4)	(60.4)	(60.3)	(60.2)	(60)	(60)	-	-
관개 농경지(C)	636	661	684	686	716	755	755	1.92	0.00
(C/B, %)	(35.4)	(36.8)	(38.1)	(38.3)	(40.0)	(42.3)	(42.3)	-	-
산림(forest land)	698	703	708	714	719	722	724	0.42	0.37
기타(other land)	479	473	468	467	464	466	464	-0.36	-0.57

주: 농경지(Agricultural Land) 비율은 육지(Land Area) 면적에서 농경지(Agricultural Land)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관개 농경지 비율은 농경지(Agricultural Land) 면적에서 관개시설이 갖추어진 농경지 면적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10. 23.

1.3. 인구 현황

○ 인도 총인구는 도시 인구를 중심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지만, 그 증가 속도는 둔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농촌 인구는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표 2-2〉.

- 인도 총인구는 2012년 12억 7천만 명에서 2022년 14억 2천만 명으로 연평균 1.0% 씩 증가하고 있다.⁵⁾ 인구 증가율은 2012년도 1.3% 수준에서 2022년 0.7%로 둔화하고 있으며, 인구밀도는 같은 기간 km²당 429명에서 477명으로 증가했다.
- 2022년 기준 농촌 인구는 9억 1천만 명으로 전체의 64.1%를 차지하며, 2012년 이후 연평균 0.4%의 낮은 증가율을 보인다.
- 도시 인구는 2012년 4억 명(31.6%)에서 2022년 5억 1천만 명(35.9%)으로 연평균 2.1%의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⁶⁾

⁵⁾ 인도 총인구는 2022년 기준 세계에서 1위를 차지하며, 한국 총인구(5,163만 명, 2022년 기준)의 27.4배 수준임.

⁶⁾ 한국의 도시화율(총인구 대비 도시 인구 비율)은 2022년 기준 81.4%임.

〈표 2-2〉 인도 인구 동향

단위: 십만 명

구 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1	2022	변화율(%)	
								'12~'22	'22/'21
총인구(A)	12,745	13,072	13,386	13,690	13,964	14,076	14,172	0.97	0.68
인구밀도(명/km ²)	429	440	450	460	470	473	477	0.97	0.68
농촌 인구(B)	8,713	8,839	8,945	9,031	9,087	9,094	9,088	0.38	-0.06
(B/A, %)	(68.4)	(67.6)	(66.8)	(66)	(65.1)	(64.6)	(64.1)	-	-
도시 인구(C)	4,032	4,233	4,442	4,659	4,877	4,982	5,084	2.13	2.05
(C/A, %)	(31.6)	(32.4)	(33.2)	(34)	(34.9)	(35.4)	(35.9)	-	-

주: 인구밀도는 육지(Land Area) 면적 대비 총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며, 2022년은 World Bank Databank의 자료 미제공으로 저자가 직접 계산함.

자료: World Bank Databank(<https://databank.worldbank.org/>), 검색일: 2023. 10. 18.

○ 인도의 인구분포는 북서쪽의 타르사막과 북쪽의 산악 지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인도의 주요 도시는 뉴델리(수도), 뭄바이, 콜카타 등이 있다.

- 2023년 기준 주요 도시별 인구는 뉴델리 3,294만 명, 뭄바이 2,130만 명, 콜카타 1,533만 명, 벵갈루루 1,361만 명, 첸나이 1,178만 명, 하이데라바드 1,080만 명이다(미국 중앙정보국, 검색일: 2023. 6. 21.).

1.4. 경제 현황

○ 인도의 국내 총생산액(GDP)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2-3).

- 인도 국내 GDP(실질)는 최근 10년(2012~2022년) 동안 연평균 5.1%씩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역대 최고액인 3조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인도 국내 GDP 성장률은 7.0%로 2021년에 이어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 1인당 GDP(실질 구매력 기준)도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7,096달러를 기록했다.
- 물가상승률은 2012년 7.9%에서 점차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2020년부터 코로나19

영향과 국제 공급망 여건 악화 등으로 상승추세를 보였다. 물가상승률은 2020년 4.7%에 이어 2022년에는 8.3%로 상승했다.

- GDP 대비 무역액 비율은 2012년 55.8%에서 2020년에 37.8%로 하락했다가 2022년 49.4%로 다시 상승했다. 상품무역액 비율도 최근 들어 상승추세를 보여 2022년 34.8%를 기록했다.
- 최근 10년(2012~2022년)간 상품 총수입액과 총수출액은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며, 2022년 수입액과 수출액은 각각 4,583억 달러와 7,268억 달러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표 2-3〉 인도 경제 동향

구 분		단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1	2022	변화율(%)	
										'12~'22	'22/'21
GDP (실질, 2015년 기준)		십억 달러	1,705	1,948	2,277	2,589	2,532	2,762	2,955	5.13	7.00
GDP 성장률		%	5.5	7.4	8.3	6.5	-5.8	9.1	7.0	-	-
1인당 GDP (실질 PPP, 2017년 기준)		달러	4,552	5,071	5,790	6,436	6,172	6,677	7,096	4.12	6.28
인플레이션		%	7.9	3.3	3.2	3.9	4.7	8.5	8.3	-	-
무역 의존도	총무역액	%	55.8	48.9	40.1	43.6	37.8	45.7	49.4	-	-
	상품무역액	%	43.0	38.5	27.3	31.0	24.3	30.7	34.8	-	-
상품 총수입액(명목)		억 달러	2,983	3,284	2,686	3,321	2,815	4,024	4,583	3.98	13.90
상품 총수출액(명목)		억 달러	5,000	4,724	3,761	5,188	3,770	5,791	7,268	3.46	25.50

주: 무역의존도는 총무역액(서비스 포함)과 상품무역액이 인도 국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World Bank Databank(<https://databank.worldbank.org/>), 검색일: 2023. 10. 18.

○ 인도의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비율에서 농림수산업은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한다
(그림 2-2).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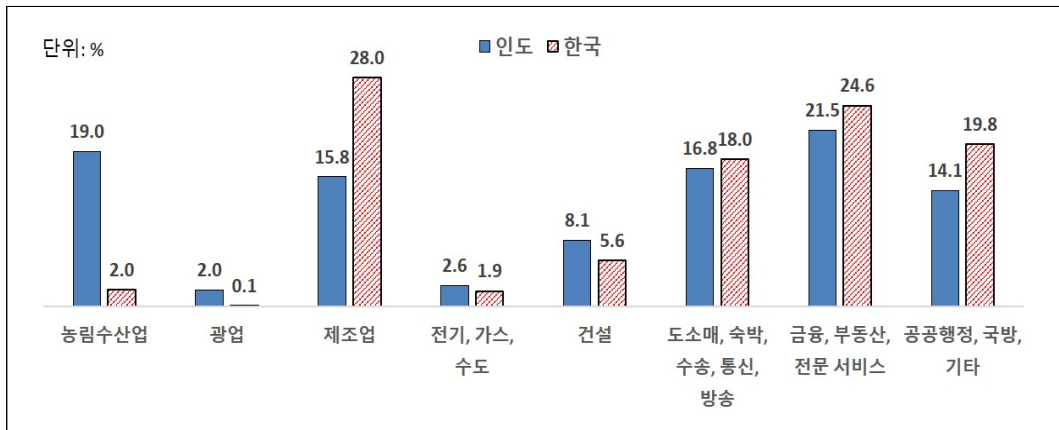
- 인도의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는 금융, 부동산과 전문 서비스업이 21.5%로 가장 큰

⁷⁾ 국내 GDP는 생산 관점의 부가가치접근법(Value Added Approach)으로 추계할 수 있으며, 기초가격(Basic Price)으로 평가되는 총부가가치(Gross Value Added)에 순생산물세(생산물세-생산물보조금)를 더하여 산출함. 총부가가치는 세금이나 보조금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때문에 각 산업부문의 국민경제에 대한 비율과 기여도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한국은행, 2020).

비율을 차지하고, 농림수산업이 19.0%로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한다. 그다음은 도소매, 숙박, 수송, 통신과 방송 16.8%, 제조업 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경우 제조업의 비율이 28.0%로 가장 크고, 그다음은 공공행정, 국방과 기타 19.8%, 도소매, 숙박, 수송, 통신과 방송 18.0% 등의 순으로 큰 비율을 차지한다. 농림수산업의 총부가가치 비율은 2.0%로 인도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그림 2-2〉 인도와 한국의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비율 비교



주 1) 인도의 경제활동 분류가 우리나라보다 자세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비율을 인도의 경제활동 분류에 따라 재집계하여 산출함.

2) 인도의 총부가가치 비율은 2021/22 회계연도(당년 4월~익년 3월) 기준이고, 한국은 2021년 기준임.

자료: 인도 통계정책실행부(<https://www.mospi.gov.in/>), 검색일: 2023. 6. 23.; 한국 통계청(<http://kosis.kr>), 검색일: 2023. 6. 23.

○ 인도는 미국, 중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을 상대로 무역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아시아와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주된 교역 파트너이다 〈표 2-4〉.

- 인도의 전체 수입액은 전반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2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수입액은 역대 최대인 7,326억 달러로 2011년 이후 연평균 4.3%씩 증가했고, 전년보다는 28.4% 증가했다.
- 인도의 수입 대상국은 다양한 국가로 구성되는데, 중국산 수입액 비율이 14.0%(2022년 기준)로 유일하게 10% 이상을 차지한다.⁸⁾ 그 외에 아랍에미리트연합(7.4%), 미국(7.1%), 사우디아라비아(6.3%) 등이 비교적 큰 비율을 차지한다.

- 인도 수출액도 수입액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2021년부터 수출액이 급격히 증가해 2022년에는 2011년 이후 연평균 3.8%, 전년 대비 14.7% 증가한 4,527억 달러를 기록했다.
- 국가별 수출액 비율은 미국의 비율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유일하게 10%를 초과한 17.7%를 차지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6.9%), 중국(3.3%), 홍콩(2.2%) 등 나머지 국가로의 수출액 비율은 10% 이하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표 2-4〉 인도 국가별 총 수출입 동향

단위: 억 달러

구 분		2011	2015	2020	2021	2022	변화율(%)	
							'11~'21	'22/'21
수입	전체	4,624	3,907	3,680	5,704	7,326	4.3	28.4
	중국	555	616	588	875	1,022	5.7	16.8
	비율(%)	12.0	15.8	16.0	15.3	14.0	-	-
	아랍에미리트연합	355	203	239	431	539	3.9	25.0
	비율(%)	7.7	5.2	6.5	7.6	7.4	-	-
	미국	226	205	266	414	518	7.8	25.1
	비율(%)	4.9	5.2	7.2	7.3	7.1	-	-
	사우디아라비아	284	214	177	277	462	4.5	66.8
	비율(%)	6.1	5.5	4.8	4.9	6.3	-	-
	기타	3,205	2,670	2,409	3,707	4,785	3.7	29.1
	비율(%)	69.3	68.3	65.5	65.0	65.3	-	-
수출	전체	3,015	2,644	2,755	3,948	4,527	3.8	14.7
	미국	329	403	493	715	802	8.4	12.2
	비율(%)	10.9	15.2	17.9	18.1	17.7	-	-
	아랍에미리트연합	374	300	180	254	313	-1.6	23.1
	비율(%)	12.4	11.3	6.5	6.4	6.9	-	-
	중국	167	96	190	230	151	-0.9	-34.5
	비율(%)	5.5	3.6	6.9	5.8	3.3	-	-
	홍콩	126	121	95	113	98	-2.3	-13.2
	비율(%)	4.2	4.6	3.5	2.9	2.2	-	-
	기타	2,019	1,724	1,797	2,635	3,162	4.2	20.0
	비율(%)	67.0	65.2	65.2	66.7	69.9	-	-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6. 27.

8) 2022년 인도의 한국산 수입액은 전년 대비 21.4% 증가한 207억 달러로, 인도 총수입액의 2.8%(7위)를 차지함.

○ 인도는 1992년에 제정된 ‘대외무역법(Foreign Trade Act)’에 따라 대외 무역 정책(Foreign Trade Policy: FTP)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 인도의 대외 무역 정책은 7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되며, 2015~2021년 대책에 이어 최근에는 ‘대외 무역 정책 2023’이 발표(2023. 3. 31.) 되었다.

○ 인도의 ‘대외 무역 정책 2015~2021’의 목적은 세계 시장에서 인도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⁹⁾

- 수출 측면에서 세계 시장에서 인도의 수출 비율을 2015년 2%에서 2020년까지 3.5%로 증가시키는 것이 최우선 목표이다.
-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인도는 연결 규칙(Link Rules), “Make in India”와 같은 수출 입 절차와 유인책, 수출시장 다변화, 세계 주요 시장과의 통합 증진, 정기적인 수입 합리화 평가 및 무역 불균형 해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 특히 수출과 관련해서 ‘상품 수출 계획(Merchandise Export form India Scheme: MEIS)’, ‘서비스 수출 계획(Service Export form India Scheme: SEIS)’, ‘신용 활성화(credit facilitation)’ 정책이 있다. 다만, 인도가 WTO의 ‘무역 원활화 협정(Agreement of Trade Facilitation: TFA)’에 가입하면서 2021년 1월부터 ‘상품 수출 계획’ 정책은 철회하기로 했다.
- 인도 대외 무역 정책의 목적이 수출 증대에 있지만, 그중 대부분 정책은 인도 국내 생산을 늘리거나 물가를 조절하기 위한 국내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입 규제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관세 등의 정책변화가 주로 다루어진다.

○ 인도의 ‘대외 무역 정책 2023’은 경감 유인(Incentive to Remission), 수출업자와 정부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수출 촉진, 거래비용 감소와 전자 계획을 통한 비즈니스 용이성, 신흥 지역의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¹⁰⁾

⁹⁾ 본 내용은 WTO(2021)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¹⁰⁾ 본 내용은 인도 언론정보국(<https://pib.gov.in/PressReleaselframePage.aspx?PRID=1912572>, 검색일: 2023. 7. 5.)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 우선 ‘대외 무역 정책 2023’은 수출업체와의 신뢰와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운영된다. 과거에는 대외 무역 정책이 최초 발표 이후 공지 없이 수정되었지만, ‘대외 무역 정책 2023’부터는 무역 및 산업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
- ‘대외 무역 정책 2023’은 수출 비즈니스를 쉽게 하도록 절차 개선과 자동화를 추구한다. 또한, 과거 보류 중인 승인 문제를 종료하고 관련 절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일회성 사면(one-time Amnesty) 제도를 운용한다.
- ‘대외 무역 정책 2023’은 수출 우수 타운 계획(Towns of Export Excellence Scheme)과 지위 보유자 제도(Status Holder Scheme)를 통해 새로운 수출 도시와 수출자 양성을 추구한다.¹¹⁾

○ 인도는 WTO 창립 회원일 정도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현재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총 31개국과 19건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을 맺고 있다<표 2-5>.

- 인도가 최초로 체결한 협정은 1994년 4월에 체결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특혜무역협정(SAPTA)이다.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은 1985년 12월에 창설되었으며,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의 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 칠레와의 FTA는 2009년에 최초 발효되었고, 2017년에 확장된 협정이 발효되었다. 확장된 FTA에서는 HS2017에 맞추어 인도 측은 1,031개, 칠레 측은 1,798개의 품목을 양허하기로 했다. 인도의 농업 부문 주요 양허품목은 육류 및 육류가공품, 생선 및 어류가공품, 채소 기름이고, 칠레는 농산물을 대부분 양허했다.
- 아시아 국가 이외의 FTA 파트너 국가로는 핀란드, MERCOSUR가 있으며, 호주, 아랍에미리트연합, 모리셔스와는 비교적 최근에 지역무역협정을 발효했다.

¹¹⁾ 수출 우수 도시는 기존에 39개 도시가 있으며, 파리다바드(Faridabad), 미르자푸르(Mirzapur), 모라다바드(Moradabad), 바라나시(Varanasi)의 4개 도시가 수출 우수 타운으로 새롭게 지정됨. 수출 우수 타운은 수출진흥 자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출 이행을 위한 CSP(Common Service Provider)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표 2-5〉 인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현황(2023년 7월 기준)

구 분	체결국	타결일	발효일	비고
인도-호주 CECA	호주	2022. 4. 2.	2022. 12. 29.	-
인도-UAE CEPA	UAE	2022. 2. 18.	2022. 5. 1.	-
인도-모리셔스 CEP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nd Partnership Agreement)	모리셔스	2021. 2. 22.	2021. 4. 1.	-
인도-말레이시아 CECA	말레이시아	2010. 10. 27.	2011. 7. 1.	-
인도-일본 CEPA	일본	2011. 2. 16.	2011. 7. 1.	-
SAARC (South Asia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2010. 4. 29.	2010. 4. 29.	-
인도-핀란드 AEC	핀란드	2010. 3. 26.	2010. 3. 26.	-
한국-인도 CEPA	한국	2009. 8. 7.	2010. 1. 1.	제9차개선 협상 (‘22. 11.)
인도-아세안 FTA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2009. 8. 13.	2010. 1. 1.	-
인도-네팔 무역협조협정 (COOPERATION TO CONTROL UNAUTHORIZED TRADE)	네팔	2009. 10. 27.	2009-10. 27.	-
인도-MERCOSUR PTA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2005. 3. 19.	2009-06. 1.	-
인도-칠레 PTA	칠레	2006. 3. 8.	2009. 1. 13.	개선 협정 발효 (‘17. 5. 16.)
인도-싱가포르 CECA	싱가포르	2007. 12. 20.	2007-12. 20.	-
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한국, 라오스, 스리랑카	2005. 11. 2.	2006. 9. 1.	-
인도-부탄 FTA	부탄	2006. 7. 28.	2006. 7. 29.	-
SAFTA (South Asia Free Trade Area)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2004. 1. 4.	2006. 1. 1.	-
인도-아프가니스탄 PTA	아프가니스탄	2003. 3. 6.	2003. 5. 13.	-
인도-스리랑카 FTA	스리랑카	1998. 12. 28.	2000. 3. 1.	-
SAPTA(SAARC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1993. 4. 11.	1993. 4. 11.	-

주: CECA는 Comprehensive Cooperation Agreement, CEPA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TA는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AEC는 Agreement on Economic Cooperation을 의미함.

자료: KOTRA(<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 검색일: 2023. 7. 4.;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 검색일: 2023. 7. 4.; MoCI(<https://commerce.gov.in/international-trade/trade-agreements/>), 검색일: 2023. 7. 4.

○ 인도는 기존에 발효한 FTA가 대부분 2010년 이전에 발효되었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 등을 고려해 기존 FTA 체결국뿐만 아니라 미국 및 유럽 등과 20건의 새로운 FTA 체결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표 2-6>.¹²⁾

- 과거 인도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 LEP)을 통해 싱가포르, 일본, 한국, 아세안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였고, 인도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참여를 철회한 이후에는 중동, 유럽, 호주, 캐나다와의 FTA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또한 인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품과 원자재 수입 대상국을 다각화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더 나아가 FTA를 통해 상품 수출액을 늘리길 희망하고 있다.

〈표 2-6〉 인도 지역무역협정(RTA) 협상 현황(2023년 7월 기준)

구분	체결국	협상 진행 상황
BIMSTEC(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FTA	방글라데시, 부탄, 네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19차 협상
인도-GCC FTA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 카타르	3차 협상
인도-남아프리카관세동맹 PTA	남아프리카, 레소토, 스위스, 보츠와나, 나미비아	5차 협상
인도-유럽 BTIA	유럽	15차 협상
인도-유럽 자유 무역 연합 BTI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17차 협상
GST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알제리 멕시코, 앙골라 모로코, 아르헨티나,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니카라과	3차 협상
인도-뉴질랜드 FTA	뉴질랜드	11차 협상
인도-캐나다 CEPA	캐나다	11차 협상
인도-인도네시아 CECA	인도네시아	-
인도-동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 PTA 공동연구	부룬디, 코모로, 콩고,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셔스	3차 협상

¹²⁾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No=338243&mid=a302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2&search_region=&search_area=¤tPage=5&pageCnt=10, 검색일: 2023. 10. 18.) BRICs Information Center의 이슈&트렌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계속)

구 분	체결국	협상 진행 상황
인도-이스라엘 FTA	이스라엘	9차 협상
인도-미국 Trade Policy Forum Joint Statement	미국	12차 협상
인도-방글라데시 FTA	방글라데시	-
인도-스리랑카 FTA	스리랑카	9차 협상
인도 - 몰디브 FTA	몰디브	-
인도-몽골 FTA	몽골	-
제2차 인도-싱가포르 CECA	싱가포르	3차 협상
인도-태국 CECA	태국	30차 협상
인도-영국 FTA	영국	-
인도-EU FTA	EU	-

주: PTA는 Preferential Trade Agreement, BTIA는 Broad Based Trade and Investment Agreement, CEPA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CA는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를 의미함.

자료: KOTRA(<https://dream.kotra.or.kr/kotranews/index.do>), 검색일: 2023. 7. 4.

2. 인도 농업 현황

2.1. 농경지 이용 현황

○ 인도 전체 농경지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종업 면적(Crop Land)은 큰 변화가 없어 전체 농경지 면적(Agricultural Land)도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 2021년 전체 농경지 면적의 94.1%를 차지하는 경종업 면적은 168만 km²로 2011년 보다 0.1% 감소했다.
- 경종업 면적(Crop Land)에서는 경작 면적(Arable Land)이 87% 수준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지만 그 감소 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경작 면적 중 임시 초지(Temporary Meadows and Pastures) 면적은 2011년 이후 연평균 3.7%씩 감소하고 있으나, 경작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전체 경작 면적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2-7〉 인도 농경지 이용 현황

단위: 천 km²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연평균 변화율(%)
농경지 면적(Agricultural land)	1,797	1,797	1,797	1,792	1,790	1,785	1,785	-0.1
경종업 면적(Crop land)	1,694	1,694	1,694	1,689	1,687	1,680	1,680	-0.1
(비율)	(94.3)	(94.3)	(94.3)	(94.2)	(94.2)	(94.1)	(94.1)	-
경작 면적(Arable land)	1,570	1,564	1,564	1,559	1,554	1,554	1,554	-0.2
(비율)	(87.4)	(87.1)	(87.1)	(87.0)	(86.8)	(86.5)	(86.5)	-
임시 작물(Temporary crops)	1,170	1,181	1,181	1,179	1,177	1,192	1,203	0.3
임시 초지(Temporary meadows and pastures)	154	120	122	116	115	102	106	-3.7
임시 휴경지(Temporary fallow)	246	263	262	264	262	250	236	-0.4
다년생(Permanent crops)	124	130	130	130	133	136	136	0.9
영구초지(Permanent meadows and pastures)	103	103	103	103	104	105	105	0.2
(비율)	(5.7)	(5.7)	(5.7)	(5.8)	(5.8)	(5.9)	(5.9)	-

주: (비율)은 전체 농경지 면적 대비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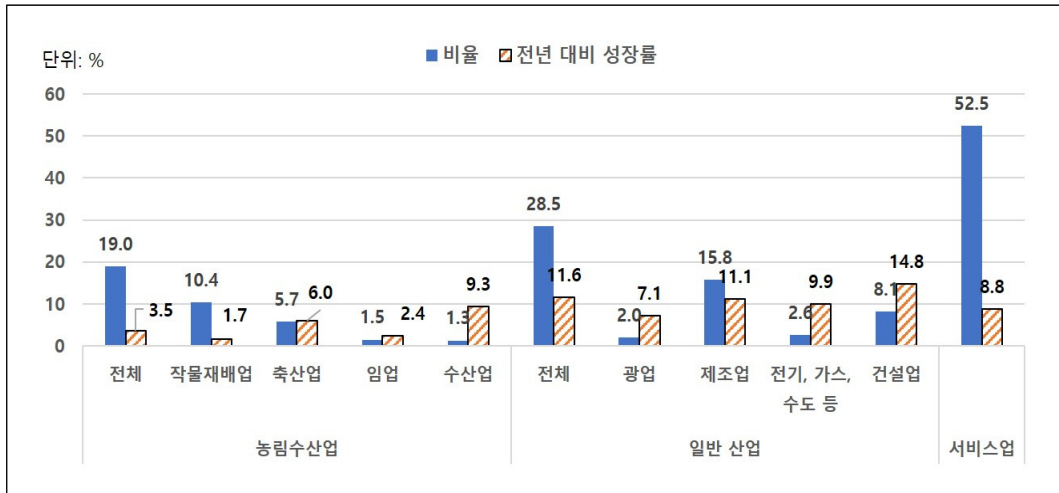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10. 23.

2.2. 농림수산업 부가가치 현황

○ 인도의 경제활동별 부가가치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0% 수준이며, 일반 산업 및 서비스업보다 성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도 농림수산업 부가가치 성장률은 일반 산업(11.6%)과 서비스업(8.8%)보다 낮은 3.5% 수준을 기록했다.
- 농림수산업 내에서 부가가치 비율이 가장 높은 작물재배업은 전체 부가가치에서 10.4%를 차지하지만, 전년보다 1.7%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 축산업은 전체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7%에 불과하지만, 성장률은 6.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림 2-3〉 인도 산업별 부가가치 비율과 성장률(2021/22년 기준)



주 1) 인도의 농림수산업 부가가치 비율은 명목가격(Current Price) 기준이며, 성장률은 2011/12년 불변가격 기준임.
 2) 인도의 산업별 부가가치 비율은 총부가가치에서 산업별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며, 성장률은 전년(2020/21년) 대비 성장률임.
 자료: MoA&FW(2023), "Agricultural Statistics At a Glance 2022".

○ 인도의 농림수산업 부가가치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축산업 분야의 부가가치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¹³⁾

- 인도 농림수산업 전체 부가가치액은 2011/12년 15조 루피에서 2021/22년 21조 5천억 루피로 연평균 3.6% 증가했다.
- 작물재배업의 2021/22년 부가가치액은 11조 6천억 루피(53.9%)에 달하지만, 작물재배업 부가가치액의 연평균 변화율은 1.7%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 축산업의 2021/22년 부가가치액은 작물재배업에 비해서 크지는 않은 6조 6천억 루피지만, 연평균 변화율은 7.2%로 가장 높다.

¹³⁾ 루피(Rs.)는 인도의 법정통화를 의미하며, 2022년 기준 1루피는 16.44원임. 인도에서 자주 사용하는 십만 루피(1lakh)는 약 164만 원, 천만 루피(100lakh, 1crore)는 약 1억 6천만 원 수준임.

〈표 2-8〉 인도의 농림수산업 부가가치 변화(2011/12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백억 루피

구 분	'11/'12	'13/'15	'15/'17	'17/'19	'19/'20	'20/'21	'21/'22	변화율(%)	
								'11~'21	'21/'20
농림수산업	1,502	1,609	1,616	1,840	1,994	2,076	2,149	3.6	3.5
작물재배업	982	1,037	969	1,075	1,109	1,139	1,158	1.7	1.7
축산업	327	364	420	498	582	618	655	7.2	6.0
임업	124	132	137	152	174	184	188	4.2	2.4
수산업	68	76	90	115	130	135	148	8.0	9.3

주: 인도의 농림수산업 부가가치는 기초가격(Basic Price)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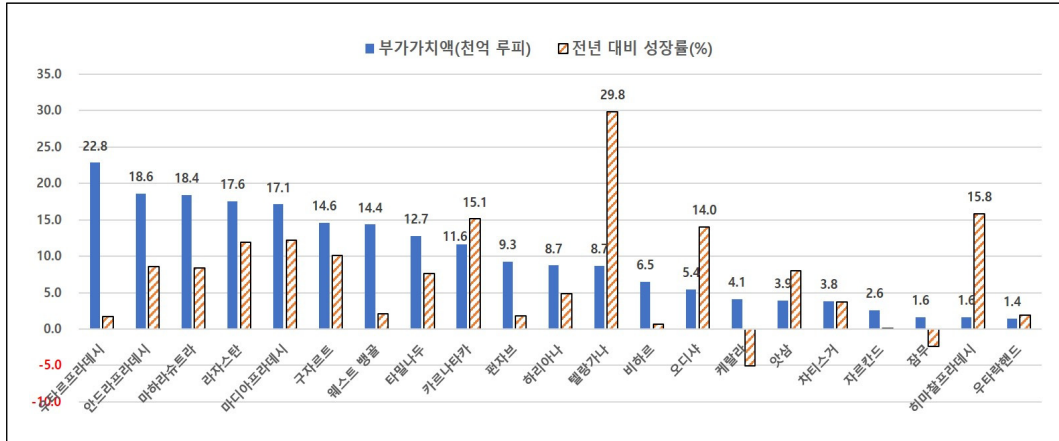
자료: MoA&FW(2023), "Agricultural Statistics At a Glance 2022".

○ 인도의 지역별 농업 분야 부가가치액은 우타르프라데시주가 가장 많고, 부가가치액 비율도 유일하게 10%를 넘는 수준을 보인다.

- 우타르프라데시주의 부가가치액은 22.8조 루피이고, 전체 지역에서 10.9%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안드라프라데시주, 마하라슈트라주, 라자스탄주와 마디아프라데시주의 부가가치액은 17.1조 루피에서 18.6조 루피 수준이며, 전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2%에서 8.9% 수준을 보인다.
- 농업 분야 부가가치액의 전년 대비 성장률은 2014년에 정식 주(州)로 분리된 텔랑가나주가 29.8%로 가장 높았고,¹⁴⁾ 그다음은 히마찰프라데시주(15.8%), 카르나타카주(15.1%), 오디샤주(14.0%) 등의 순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¹⁴⁾ 인도의 행정구역은 언어를 기준으로 묶여 있는데, 텔랑가나주는 기존에 안드라주와 함께 안드라프라데시주에 포함됨. 그러나 더딘 발전에 따른 지역 분리 요구로 2014년에 탈랑가나주로 정식 분리됨(경향신문(2014. 6. 2.), "인도 새로운 주(州), 텔랑가나 출범").

〈그림 2-4〉 인도 지역별 농업 분야 부가가치액 및 성장률(2019/20년 기준)



주 1) 인도 지역별 부가가치액과 성장률은 2011/12년 기준 불변가격(constant price)이며, 부가가치액 성장률은 전년(2018/19년) 대비 성장률임.

2) 인도 지역별 부가가치액과 성장률은 전체 33개 주에서 부가가치액이 10억 루피 이상인 21개 지역만 제시함.

자료: MoA&FW(2023), "Agricultural Statistics At a Glance 2022".

2.3. 주요 품목 생산 현황

○ 인도 재배업은 주로 식량작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식량작물의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 식량작물 대부분의 재배면적이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기장과 수수 재배면적의 연평균 변화율은 각각 -0.9%와 -5.4%로 감소추세를 보인다. 특히, 인도의 관개 시설 발달로 인해 수수 대신 땅콩, 대두, 비둘기콩 등의 작물을 재배하면서 수수의 재배면적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Kumara Charyulu et al., 2014).

○ 인도의 과일·과채류 재배면적에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채소류는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 망고/구아바/망고스틴 재배면적의 연평균 변화율은 1.3%이며, 코코넛의 경우는 0.6%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채소(기타)의 재배면적은 연평균 3.2% 증가했으며, 아니스, 팔각, 고수, 커민, 캐러웨이,

회향, 노간주나무 열매의 재배면적은 인도 정부의 계획으로 인하여 연평균 10.2%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인도의 기타 주요 농산물인 면씨, 유채씨, 땅콩, 참깨의 재배면적은 연평균 1% 내외의 변화율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땅콩 재배면적이 주요 농산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 유지 종자인 땅콩의 경우 가격지지 제도 개선 등 인도 정부의 장려로 인해 2021년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23.7%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USDA, 2021).
- 참깨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과 재배하기 쉬운 장점 때문에 구자라트(Gujarat) 주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했다.

〈표 2-9〉 인도 주요 농산물 재배면적

단위: 천 ha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식량	쌀	44,010	44,136	43,390	43,774	43,662	45,070	46,379	0.5	2.9
	밀	29,069	29,650	31,470	30,785	29,319	31,357	31,610	0.8	0.8
	콩(건조)	11,000	9,100	10,289	15,324	12,757	13,093	14,648	2.9	11.9
	대두	10,180	11,716	11,670	11,183	11,131	12,913	12,100	1.7	-6.3
	병아리콩 (건조)	9,190	8,522	8,251	9,626	9,547	9,699	10,944	1.8	12.8
	옥수수	8,780	9,430	9,258	9,633	9,027	9,569	9,860	1.2	3.0
	기장	10,680	9,179	9,116	9,094	8,450	9,005	9,765	-0.9	8.4
	비둘기콩 (건조)	4,367	3,893	3,854	5,338	4,550	4,532	5,232	1.8	15.4
	사탕수수	4,944	5,000	5,070	4,436	5,061	4,603	5,159	0.4	12.1
	수수	7,382	6,210	6,160	5,624	4,093	4,824	4,240	-5.4	-12.1
	기타 두류	1,700	2,200	2,151	2,076	2,090	2,153	2,258	2.9	4.9
	감자	1,863	1,992	2,076	2,179	2,173	2,051	2,248	1.9	9.6
과일· 과채	망고/구아바 /망고스틴	2,297	2,500	2,163	2,472	2,572	2,586	2,625	1.3	1.5
	코코넛	2,071	2,140	2,089	2,081	2,151	2,173	2,199	0.6	1.2

(계속)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채소	채소 (기타)	2,083	2,815	2,561	2,703	2,970	2,846	2,856	3.2	0.4
	아니스, 팔각, 고수, 커민, 캐 러웨이, 회향, 노간주나무 열매	694	697	683	1,546	1,587	1,888	1,826	10.2	-3.3
기타	면씨	12,178	11,690	11,870	12,430	12,614	13,477	13,477	1.0	0.0
	유채씨	6,506	6,340	5,791	6,074	6,124	6,856	7,466	1.4	8.9
	땅콩 (탈각)	5,310	5,505	4,560	5,338	4,731	4,825	5,969	1.2	23.7
	참깨	1,902	1,678	1,947	1,667	1,420	1,623	1,810	-0.5	11.5

주: 재배업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상위 20개 품목을 부류별로 나누어 제시함.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6. 26.

○ 인도의 식량작물 생산량도 재배면적과 같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

- 대부분의 식량작물 생산량이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수수 생산량은 관개 시설의 발달에 따른 타 작물 재배로 인해 재배면적 감소와 더불어 연평균 3.7% 감소했다.¹⁵⁾

○ 인도의 과일·과채류와 채소류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다.

- 망고/구아바/망고스틴 생산량은 연평균 5.1%, 코코넛은 연평균 3.4%씩 증가했다.
- 채소(기타) 생산량은 연평균 4.0% 증가했으며, 아니스, 팔각, 고수, 커민, 캐러웨이, 회향, 노간주나무 열매의 생산량은 연평균 13.0% 증가했다.

○ 인도의 기타 주요 농산물에서 면씨, 유채씨, 땅콩, 참깨 생산량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땅콩 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3.9%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유지 종자인 땅콩의 경우 가격지지 제도 개선 등 인도 정부의 장려로 인해 생산량이

¹⁵⁾ 수수는 기동 세포열이 발달하여 다른 작물보다 내건성이 강해 건물 1k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수분량인 요구량은 350~400L로 벼의 8.7%, 콩의 50% 정도로 적음(농촌진흥청 농사로(<https://www.nongsaro.go.kr/portal/portalMain.ps?menuId=PS00001>), 검색일: 2023. 9. 21.).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USDA, 2021), 참깨의 경우 구자라트주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량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10〉 인도 주요 농산물 생산량

단위: 천 톤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식량	쌀	157,900	159,200	156,540	169,136	178,305	186,500	195,425	2.2	4.8
	밀	86,874	93,510	86,530	98,510	103,596	107,861	109,590	2.4	1.6
	콩(건조)	4,330	4,020	4,260	6,340	5,310	5,460	6,120	3.5	12.1
	대두	12,214	11,861	8,570	13,159	13,268	11,226	12,610	0.3	12.3
	병아리콩 (건조)	8,220	8,833	7,332	9,378	9,938	11,079	11,910	3.8	7.5
	옥수수	21,760	24,260	24,170	35,900	27,715	28,766	31,650	3.8	10.0
	기장	12,660	10,910	11,630	11,557	10,236	12,488	13,210	0.4	5.8
	비둘기콩 (건조)	2,860	3,023	2,810	4,873	3,315	3,892	4,320	4.2	11.0
	사탕수수	342,382	341,200	362,333	306,069	405,416	370,500	405,399	1.7	9.4
	수수	7,003	5,280	5,450	4,568	3,475	4,772	4,810	-3.7	0.8
	기타 두류	700	1,092	988	914	912	927	959	3.2	3.5
	감자	42,339	45,344	48,009	48,605	50,190	48,562	54,230	2.5	11.7
과일· 과채	망고/구아바/ 망고스틴	15,188	18,002	18,527	23,332	25,631	24,678	24,968	5.1	1.2
	코코넛	10,280	11,930	11,210	11,167	14,682	14,006	14,301	3.4	2.1
채소	채소(기타)	27,557	33,213	35,869	37,376	42,211	40,372	40,720	4.0	0.9
	아니스, 팔각, 고수, 커민, 캐 러웨이, 회향, 노 간주나무 열매	537	546	546	1,529	1,448	1,753	1,823	13.0	4.0
기타	면씨	19,178	18,913	15,943	17,425	18,558	17,731	17,204	-1.1	-3.0
	유채씨	8,179	7,820	6,282	7,917	9,256	9,124	10,210	2.2	11.9
	땅콩(탈각)	6,964	9,472	6,733	7,462	6,727	9,952	10,244	3.9	2.9
	참깨	810	715	850	747	689	658	817	0.1	24.2

주: 재배업 작물의 생산량은 재배면적 상위 20개 품목을 부류별로 나누어 제시함.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6. 26.

○ 인도의 가축 사육 마릿수는 소와 물소는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나귀, 말, 노새는 감소추세를 보인다.

- 대가축의 소 사육 마릿수는 거의 변화가 없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0.9% 감소했으며, 물소 사육 마릿수도 연평균 0.3%와 전년 대비 1.9% 증가에 그쳤다.
- 중가축에서 사육 마릿수가 가장 많은 염소 사육 마릿수는 연평균 0.9%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다.
- 가금류에서 사육 마릿수가 가장 많은 닭의 사육 마릿수는 2011년 6억 7,900만 마리에서 2021년 8억 765만 마리로 연평균 1.8%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 꿀벌 봉군 수는 연평균 1.1%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1% 증가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2-11〉 인도 가축 사육 동향

단위: 만 두, 만 수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대가축	소	19,256	18,900	18,808	19,049	19,346	19,493	19,317	0.0	-0.9
	물소	10,806	10,940	11,031	11,023	10,985	10,974	11,179	0.3	1.9
	말	62	63	57	45	34	34	33	-6.1	-2.9
	낙타	44	38	36	31	25	22	21	-7.1	-4.5
	나귀	36	30	27	25	12	8	10	-12.0	25.0
	노새	19	20	19	17	8	8	9	-7.2	12.5
중가축	염소	13,625	13,400	13,839	14,471	14,888	15,063	14,875	0.9	-1.2
	면양	6,652	6,380	6,669	7,121	7,426	7,560	7,429	1.1	-1.7
	돼지	1,048	1,013	985	949	906	883	883	-1.7	0.0
가금류	닭	67,900	70,900	74,111	77,401	80,789	82,433	80,765	1.8	-2.0
	오리	2,450	2,270	2,471	2,968	3,351	3,534	3,350	3.2	-5.2
기타	꿀벌	1,150	1,160	1,193	1,217	1,235	1,259	1,285	1.1	2.1

주: 꿀벌의 경우 단위는 봉군(beehives)의 수임.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7. 14.

○ 인도의 축산물 생산량은 사육 마릿수가 감소한 낙타의 우유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 계란과 닭고기 생산량은 2021년 1억 2,871만 톤과 367만 톤으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거나(연평균 각각 6.8%와 4.0% 증가), 2021년에는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유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젖소의 우유 생산량은 2011년 이후 연평균 6.5% 증가하여 2021년에는 1억 830만 톤을 기록했다.
- 쇠고기 생산량은 2011년 이후 연평균 2.4%,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반면,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1년 이후 연평균 1.3% 감소하고 2021년에도 전년 대비 2.1% 감소했다.
- 천연 꿀 생산량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6만 6천 톤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표 2-12〉 인도 축산물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가금 산물	계란	66,491	73,566	82,801	100,064	120,674	128,761	128,710	6.8	0.0
	닭	2,483	2,849	3,264	3,767	4,344	4,473	3,670	4.0	-18.0
	오리	33	30	32	39	44	46	44	2.9	-4.3
우유	물소	65,352	70,443	76,459	86,262	95,943	95,391	94,384	3.7	-1.1
	젖소	57,770	62,195	73,645	83,634	96,647	108,307	108,300	6.5	0.0
	염소	4,782	5,048	5,378	6,166	5,850	6,262	6,070	2.4	-3.1
	양	208	203	209	218	224	226	224	0.7	-0.9
	낙타	10	9	9	8	7	7	7	-3.5	-
포유 가축 육류	소	3,308	3,800	4,080	4,230	4,270	3,760	4,195	2.4	11.6
	물소	1,559	1,610	1,583	1,571	1,624	1,601	1,636	0.5	2.2
	염소	517	509	521	536	550	556	548	0.6	-1.4
	돼지	364	354	362	382	354	327	320	-1.3	-2.1
	양	247	238	248	265	276	281	276	1.1	-1.8
기타	천연 꿀	60	61	63	63	65	65	66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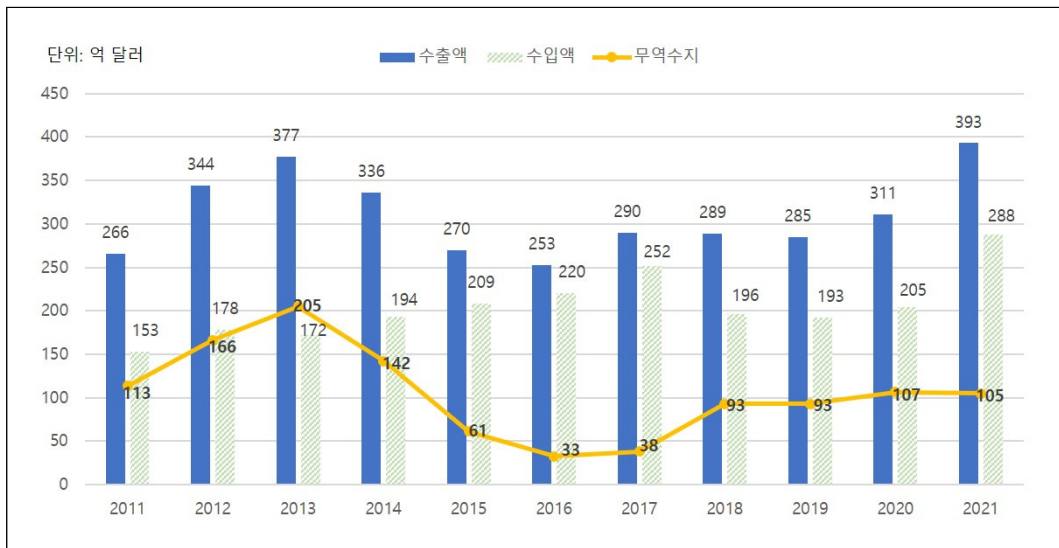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7. 14.

2.4. 국가 및 품목별 교역 현황

○ 인도의 농식품 수출액과 수입액은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농식품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커서 2011년 이후 2021년까지 매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¹⁶⁾

- 인도의 농식품 수출액은 최근 증가세를 보여 2021년에 전년 대비 26.3%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치인 39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인도가 동티모르, 파푸아 뉴기니, 브라질, 칠레,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영향이 크다.¹⁷⁾
- 인도의 농식품 수입액도 2021년에 전년 대비 40.8% 증가한 28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인도의 경제활동 정상화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수입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
- 인도의 농식품 무역수지는 2021년에 10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림 2-5〉 인도의 농식품 교역액과 무역수지 추이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7. 14.

¹⁶⁾ 본 절에서 농식품 범위는 HS코드 01류(살아 있는 동물)부터 24류(담배와 담배 대용물)까지이며,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에 해당하는 03류는 제외함.

¹⁷⁾ MoA&FW(<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713247>), 검색일: 2023. 7. 26. 자료를 참고함.

○ 인도는 방글라데시에 농식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며(2021년 기준), 방글라데시로의 수출액이 2021년에 처음으로 미국으로의 수출 규모를 넘어섰다.

-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체계 혼란으로 인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방글라데시로의 농식품 수출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농식품 수출액이 많은 국가는 미국이며, 농식품 수출액은 꾸준하게 상위권을 유지한다.

〈표 2-13〉 인도산 농식품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방글라데시	940	1,477	756	874	750	1,340	3,669 (9.3)	14.6	173.8
미국	2,919	3,650	2,301	2,580	2,585	2,846	3,038 (7.7)	0.4	6.7
아랍에미리트연합	2,059	2,016	1,861	1,928	1,594	1,675	2,338 (5.9)	1.3	39.6
중국	951	858	549	629	1,081	1,576	2,096 (5.3)	8.2	33.0
인도네시아	1,049	1,147	397	536	742	983	1,962 (5.0)	6.5	99.6
베트남	1,739	2,965	2,520	3,341	1,812	906	1,631 (4.1)	-0.6	80.0
사우디아라비아	1,364	2,036	1,874	1,469	1,661	1,629	1,530 (3.9)	1.2	-6.1
말레이시아	1,086	1,269	997	831	815	1,091	1,398 (3.6)	2.6	28.1
네팔	287	548	550	819	863	1,099	1,348 (3.4)	16.7	22.7
이란	889	3,578	1,056	1,151	2,287	1,547	933 (2.4)	0.5	-39.7
전체	26,615	37,736	26,996	28,965	28,529	31,116	39,313	4.0	26.3

주 1) 2021년 인도산 농식품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 국가만 제시함.

2) 2021년 괄호 안의 수치는 인도산 전체 농식품 수출액에서 해당 국가로의 수출액의 비율임.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7. 14.

○ 인도의 주요 수출 품목은 쌀, 밀과 옥수수 등의 식량작물, 자당¹⁸⁾, 쇠고기, 향신료, 유제품 등이며, 대부분 품목의 수출액이 증가 추세를 보인다.

- 수출액 규모가 가장 큰 인도의 2021년 쌀 수출액은 2011년 이후 연평균 9.0% 증가하고, 전년 대비 20.6% 증가한 96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 2021년 밀 수출액은 17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609.1% 증가하였는데, 이는 선적 비용 증가와 러시아의 밀 수출 제한 등으로 인해 방글라데시와 같이 내륙 운송이 가능한 인근 국가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¹⁹⁾
- 옥수수 수출액은 2011년 10억 8천만 달러에서 2019년 1억 4천만 달러로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40.6% 증가한 9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 자당과 쇠고기(냉동) 수출액은 2019년 이후 증가 추세이며, 2021년 수출액은 각각 38억 1천만 달러와 29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52.8%와 6.3% 증가했다.

〈표 2-14〉 인도산 농식품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쌀	4,073	8,170	6,380	7,076	6,801	7,980	9,624	9.0	20.6
자당	1,914	966	1,186	966	1,713	2,495	3,813	7.1	52.8
쇠고기(냉동)	2,567	4,411	4,031	3,936	3,063	2,762	2,937	1.4	6.3
밀	145	1,260	156	55	54	243	1,723	28.1	609.1
후추, 고추류	677	534	878	898	929	1,167	1,306	6.8	11.9
기타 식물성유지	878	806	734	954	951	912	1,144	2.7	25.4
옥수수	1,084	1,259	218	158	144	389	936	-1.5	140.6
땅콩	941	483	644	676	619	750	688	-3.1	-8.3
차	865	816	678	768	814	692	688	-2.3	-0.6
커피	681	569	541	638	503	465	627	-0.8	34.8

¹⁸⁾ 일반적으로 설탕이라고 하는 자당(sucrose)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한 이당류로 사탕수수, 사탕 무, 당단풍 등의 즙액 중 당의 주성분임(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96255&cid=60262&categoryId=60262>, 검색일: 2023. 10. 18.).

¹⁹⁾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67065>, 검색일: 2023. 9. 12.) 종합무역뉴스를 참고함.

(계속)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아니스, 회향, 고수, 커민씨	193	340	322	448	564	633	611	12.2	-3.5
생강, 샤프란 등 향신료	415	320	372	391	398	535	577	3.4	7.9
코코넛, 브라질 넛, 캐슈넛	937	974	881	1,045	639	483	535	-5.5	10.8
양파, 샬롯, 마늘 등	373	612	432	447	374	352	453	2.0	28.7
커피 및 차 조제품	274	338	307	380	358	315	402	3.9	27.6
포도	90	236	150	310	346	316	350	14.5	10.8
건조 채두류	228	357	209	198	192	261	323	3.5	23.8
식용설육	20	155	101	177	232	254	314	31.7	23.6
육두구, 메이스, 소두구	116	90	117	134	80	149	236	7.4	58.4
당밀	42	33	45	11	94	102	219	18.0	114.7

주: 농식품 주요 품목은 HS코드 4단위 기준으로, 2021년 수출액 기준 상위 20개 품목(유박, 담배, 사료 등은 제외)을 제시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7. 14.

○ 인도는 매년 인도네시아산 농식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말레이시아산, 네팔산과 태국산 농식품 수입액의 경우 수입 비율이 높은 식용유에 관한 인도의 관세 추가 인하 등으로 2021년 수입액이 전년 대비 100% 이상씩 증가했다.
- 네팔의 경우 대두유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평균 수입액 변화율도 가장 높은 변화율을 보였다.²⁰⁾

²⁰⁾ 인도는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네팔의 수입품에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네팔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이집트, 터키, 우크라이나 등에서 콩기름을 수입한 후 다시 인도로 수출함(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 (<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Detail.es?brdctsNo=313607&mid=a10100000000&systemcode=02>), 검색일: 2023. 7. 14.).

〈표 2-15〉 인도의 농식품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인도네시아	5,302	5,303	3,967	5,472	3,047	3,680	4,480 (15.6)	-1.7	21.7
말레이시아	1,562	1,937	2,439	1,583	2,360	1,610	4,253 (14.8)	10.5	164.2
아르헨티나	988	932	2,025	2,341	1,857	2,258	3,264 (11.3)	12.7	44.6
우크라이나	838	1,229	1,333	2,496	1,659	1,613	1,860 (6.5)	8.3	15.3
미국	640	901	1,086	1,351	1,409	1,372	1,398 (4.9)	8.1	1.9
네팔	114	133	201	180	381	429	1,056 (3.7)	24.9	146.2
브라질	260	759	1,122	1,495	573	984	1,053 (3.7)	15.0	7.0
태국	138	289	127	248	255	268	813 (2.8)	19.4	203.4
미얀마	1,562	624	890	546	369	462	672 (2.3)	-8.1	45.5
싱가포르	71	66	65	73	530	372	629 (2.2)	24.4	69.1
전체	15,278	17,223	20,859	25,172	19,256	20,452	28,795	6.5	40.8

주 1) 2021년 인도의 농식품 수입액 기준 상위 10개 국가만 제시함.

2) 2021년 괄호 안의 수치는 인도의 전체 농식품 수입액에서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의 비율임.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7. 14.

○ 인도의 주요 수입 품목은 유지류, 채두류²¹⁾, 견과류, 향신료 등이며, 식용유 관세 추가 인하의 영향으로 유지류 수입액 증가율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팜유는 매년 수입액이 가장 큰데 2021년 수입액은 2011년 이후 연평균 3.6%, 전년 대비 86.9% 증가한 95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 2021년 대두유 수입액은 47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1%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건조 채두류 수입액은 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1% 증가했다.
- 2011년 이후 연평균 10.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견과류의 2021년 수입액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1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1) 채두류는 채유용으로 사용되는 콩 이외의 팥, 강낭콩, 녹두, 동부 등을 말함.

〈표 2-16〉 인도의 농식품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팜유	6,740	6,967	5,922	6,770	5,409	5,119	9,568	3.6	86.9
대두유	1,206	1,193	2,698	2,749	2,267	2,986	4,751	14.7	59.1
해바라기씨유, 잇 꽃유, 목화씨유	966	1,248	1,314	1,867	1,798	2,080	2,448	9.7	17.7
건조 채두류	1,851	2,291	3,635	3,949	1,553	1,568	2,102	1.3	34.1
견과류(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제외)	499	729	1,066	1,064	1,113	1,255	1,346	10.4	7.3
코코넛, 브라질넛, 캐슈넛	1,152	835	1,331	1,493	1,167	1,122	1,166	0.1	3.9
대두	0	1	9	38	112	292	488	-	67.1
대추야자, 무화과, 파인애플 등	182	252	268	345	263	362	407	8.4	12.4
사과, 배 등	199	221	231	326	267	222	404	7.3	82.0
기타 식물성유지	22	22	8	13	74	119	205	25.0	72.3
야자 및 팜핵유	229	264	192	120	106	103	188	-2.0	82.5
자당	46	373	501	1,057	305	642	183	14.8	-71.5
후추, 고추류	79	98	196	170	97	90	180	8.6	100.0
정향	76	61	151	158	112	171	136	6.0	-20.5
커피	95	124	120	145	119	108	119	2.3	10.2
아이스, 화향, 고 수, 커민씨	23	22	51	67	67	82	116	17.6	41.5
포도	17	42	66	87	120	112	116	21.2	3.
계피	29	29	45	57	86	108	109	14.2	0.9
기타 당류	60	65	68	79	81	99	106	5.9	7.1
육두구, 메이스, 소두구	42	29	70	79	94	91	102	9.3	12.1

주: 농식품 주요 품목은 HS코드 4단위 기준으로, 2021년 수출액 기준 상위 20개 품목(유박, 사료, 알코올 등 제외)을 제시함.
자료: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7. 14.

3

인도 주요 품목별 생산 및 수출 동향

1. 주요 품목별 생산 및 수출 동향 개요

- 인도의 농업생산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 기준 농업생산액은 4천 2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인도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3.5% 증가했으며, 주요 생산 품목 중 계란(8.5%), 땅콩(8.2%), 사탕수수(7.3%) 등의 연평균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인도 농업생산액 기준 주요 품목으로는 쌀, 밀, 감자, 옥수수 등의 곡물류와 우유(버팔로, 소), 계란과 같은 축산물, 망고·구아바·망고스틴, 바나나, 오렌지 등의 과일류가 있다. 특히, 쌀과 밀은 인도의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에서도 큰 비율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인도 및 세계 식량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쌀 생산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3.7% 증가했으며, 2021년 생산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862억 달러로 나타났다.
 - 밀 생산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2.7% 증가했으며, 2021년 생산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311억 달러로 나타났다.

○ 본 장에서는 인도의 주요 생산·수출 품목인 쌀, 밀을 비롯한 감자, 옥수수 등 곡물류, 인도의 주요 수출 품목인 후추, 땅콩, 커피, 한국과 인도의 농식품 교역 측면에서 주요 품목인 참깨의 생산 및 수출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인도의 對한국 농식품 수출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품목은 참깨이며, 인도는 세계를 상대로 참깨, 후추, 땅콩, 커피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²²⁾

〈표 3-1〉 인도 농업생산액

단위: 억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변화율(%)	
						'17~'21 연평균	'21/'20
쌀	746	771	787	823	862	3.7	4.8
우유(버팔로)	476	506	529	526	520	2.3	-1.1
우유(소)	351	377	405	454	454	6.7	0.0
밀	280	284	294	306	311	2.7	1.6
망고, 구아바, 망고스틴	174	186	191	184	186	1.7	1.2
기타 채소(신선)	133	147	151	144	145	2.2	0.9
면화씨	137	116	146	140	136	-0.3	-3.0
감자	91	96	94	91	102	2.8	11.7
바나나	85	86	85	91	92	2.1	1.4
사탕수수	65	81	86	79	86	7.3	9.4
병아리콩	65	78	68	76	82	6.2	7.5
오렌지	57	63	71	76	77	7.7	0.9
옥수수	57	63	61	64	70	5.1	10.0
계란	49	53	64	68	68	8.5	0.0
토마토	62	59	57	61	63	0.6	3.1
땅콩	41	51	37	55	57	8.2	2.9
양파	46	47	47	53	54	4.4	2.1
유채씨	38	41	45	44	49	6.6	11.9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44	45	47	46	48	1.9	3.2
대두	48	40	48	41	46	-1.1	12.3
기타	616	634	628	659	688	2.8	4.3
전체	3,662	3,824	3,942	4,082	4,197	3.5	2.8

주: 농업생산액 기준으로 상위 20개 품목만 제시함.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8. 28.

²²⁾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021), 《2021 농식품 수출국가정보(인도)》를 참고함.

2. 쌀

2.1. 생산 동향

○ 전 세계 쌀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의 쌀 생산량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2021년 기준 전 세계 쌀 생산량은 7억 9천만 톤으로 2011년부터 연평균 0.9%,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 세계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본토)으로 2021년 기준 전 세계 쌀 생산량의 27.0%를 차지하며, 연평균 0.6%와 전년 대비 0.5%의 증가율을 보인다.
- 2021년 인도의 쌀 생산량은 2억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24.8%를 차지하며, 그 점유율은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국가별 쌀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중국(본토)	201,001 (27.9)	203,612 (27.8)	212,142 (28.9)	212,676 (28.3)	209,614 (27.8)	211,860 (27.5)	212,843 (27.0)	0.6	0.5
인도	157,900 (21.9)	159,200 (21.8)	156,540 (21.4)	169,136 (22.5)	178,305 (23.7)	186,500 (24.2)	195,425 (24.8)	2.2	4.8
방글라데시	50,627 (7.0)	51,534 (7.0)	51,805 (7.1)	54,148 (7.2)	54,586 (7.2)	54,906 (7.1)	56,945 (7.2)	1.2	3.7
인도네시아	58,259 (8.1)	60,095 (8.2)	61,031 (8.3)	55,252 (7.4)	54,604 (7.2)	54,649 (7.1)	54,415 (6.9)	-0.7	-0.4
베트남	42,398 (5.9)	44,039 (6.0)	45,091 (6.2)	42,764 (5.7)	43,495 (5.8)	42,765 (5.6)	43,853 (5.6)	0.3	2.5
전체	719,470	731,770	732,898	751,120	753,286	769,228	787,294	0.9	2.3

주 1) 2021년 생산량 기준 상위 5개 국가만 제시함.

2) 괄호 안의 숫자는 국가별 생산량이 연도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8. 28.

○ 인도의 벼 재배면적이 2011/12년 이후 연평균 0.5%씩 증가하는 가운데,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1.5%의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량은 연평균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³⁾

- 2021/22년 인도의 벼 재배면적은 4,638만 ha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으며, 쌀 생산량은 1억 3천만 톤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표 3-3〉 인도의 쌀 생산 동향

단위: 백만 ha, 백만 톤, kg/ha

구분	'11/'12	'13/'14	'15/'16	'17/'18	'19/'20	'20/'21 (A)	'21/'22 (B)	변화율(%)	
								'11~'21 연평균	B/A
재배면적	44.0	44.1	43.5	43.8	43.7	45.8	46.4	0.5	1.3
생산량	105.3	106.7	104.4	112.8	118.9	124.4	130.3	2.0	4.8
단위면적당 생산량	2,393	2,416	2,400	2,576	2,722	2,717	2,809	1.5	3.4

주: 인도의 쌀 생산 동향은 MoA&FW 자료 기준이며, 연도는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나타냄. 따라서, FAOSTAT 자료와 기간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MoA&FW(2023), "Agricultural Statistics At a Glance 2022".

○ 인도의 쌀 주산지는 서벵골주, 우타르프라데시주, 편자브주, 텔랑가나주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2021/22년 기준 상위 5개 주의 쌀 생산량은 인도 전체 생산량의 50.9%를 차지하고 있다.

- 인도에서 쌀 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벵골주로 2021/22년 기준 생산량이 1,678만 톤이며, 인도 전체 생산량의 12.9%를 차지한다. 그다음으로 우타르프라데시주(1,527만 톤, 11.7%), 편자브주(1,289만 톤, 9.9%), 텔랑가나주(1,229만 톤, 9.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텔랑가나주는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모두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20.4%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오디샤주와 차티스가르주의 경우 2021/22년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각각 2.5%와 0.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생산량은 각각 3.7%와 1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²³⁾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임. 이하 MoA&FW 자료의 연도는 FAO, UN 및 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자료의 연도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3-4〉 인도의 지역별 쌀 생산 동향

단위: 백만 ha, 백만 톤, kg/ha, %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		
	'20/'21 (A)	'21/'22 (B)	B/A	'20/'21 (A)	'21/'22 (B)	B/A	'20/'21 (A)	'21/'22 (B)	B/A
서벵골	5.6 (12.2)	5.6 (12.1)	0.2	16.5 (13.3)	16.8 (12.9)	1.5	2,958	2,996	1.3
우타르프라데시	5.7 (12.4)	5.7 (12.3)	0.4	15.5 (12.5)	15.3 (11.7)	-1.6	2,733	2,679	-2.0
편자브	2.9 (6.4)	3.0 (6.4)	1.4	12.8 (10.3)	12.9 (9.9)	0.9	4,366	4,340	-0.6
텔랑가나	3.2 (7.0)	3.7 (7.9)	14.4	10.2 (8.2)	12.3 (9.4)	20.4	3,206	3,366	5.0
오디샤	4.0 (8.8)	3.9 (8.5)	-2.5	8.8 (7.1)	9.1 (7.0)	3.7	2,182	2,318	6.2
타밀나두	2.0 (4.5)	2.2 (4.8)	8.3	6.9 (5.5)	8.1 (6.2)	17.3	3,379	3,658	8.3
차티스가르	3.8 (8.3)	3.8 (8.1)	-0.8	7.2 (5.8)	7.9 (6.1)	10.3	1,889	2,101	11.2
안드라프라데시	2.3 (5.1)	2.3 (4.9)	-3.0	7.9 (6.3)	7.8 (6.0)	-1.1	3,393	3,470	2.3
비하르	3.0 (6.5)	3.1 (6.7)	4.7	6.6 (5.3)	7.1 (5.4)	6.8	2,232	2,282	2.2
아삼	2.4 (5.2)	2.4 (5.1)	-	5.2 (4.2)	5.3 (4.0)	1.2	2,209	2,236	1.2
기타	10.9 (23.8)	10.9 (23.4)	-0.2	26.8 (21.5)	27.8 (21.4)	4.0	2,460	2,565	4.3
전체	45.8 (100.0)	46.4 (100.0)	1.3	124.4 (100.0)	130.3 (100.0)	4.8	2,717	2,809	3.4

주 1) 인도의 지역별 쌀 생산 동향은 MoA&FW 자료 기준이며, 연도는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나타냄. 따라서, FAOSTAT 자료와 기간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괄호 안은 지역별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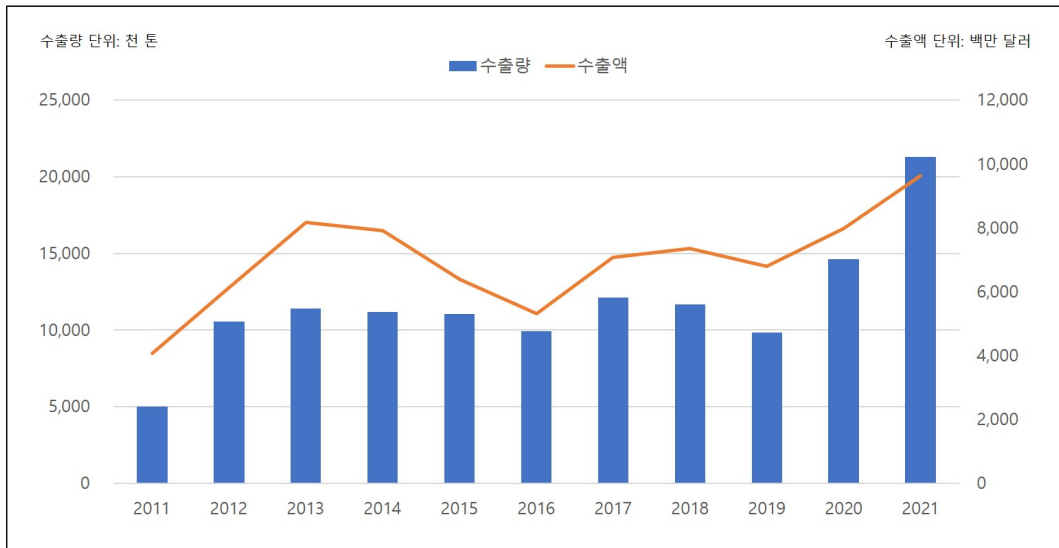
자료: MoA&FW(2023), "Agricultural Statistics At a Glance 2022".

2.2. 수출 동향

○ 인도의 쌀 수출량은 2011년 이후 약 1천만 톤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감소 후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수출액의 경우 2013년 이후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2016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다.

- 2011년 이후 인도의 쌀 수출량은 연평균 15.5%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연평균 9.0% 증가하였다. 2021년의 경우, 인도의 쌀 수출량은 2,128만 톤으로 전년 대비 45.6%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6% 증가했다.
- 인도산 쌀 수출단가는 연평균 5.7% 하락했으며, 2021년 수출단가는 kg당 0.45달러로 전년 대비 17.2% 하락했다<표 3-5>.

〈그림 3-1〉 인도의 쌀 수출 동향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6. 27.

- 인도는 주로 방글라데시, 네팔, 베냉, 중국, 세네갈 등으로 쌀을 수출하며, 상위 5개국 수출량이 인도 전체 쌀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1%(2021년 기준)로 나타났다.
- 인도의 對방글라데시 쌀 수출량은 방글라데시의 수급 불안정(가뭄, 홍수 등)에 대비한 인도산 쌀 수입 확대 영향으로²⁴⁾ 2011년 이후 연평균 33.6% 증가했으며, 2021년 수출량은 248만 톤으로 2019년(4만 1천 톤)과 2020년(1만 7천 톤)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인도의 쌀 수출량은 베냉(28.8%), 세네갈(61.4%)과 같은 아프리카 국가로도 많이 증가했다, 이는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카키나다 심해 항만(Kakinada Deep Water

²⁴⁾ Maritime Gateway(2021. 7. 29.), "Rice Exports To Bangladesh On The Rise".

Port)의 대량 수출 선적이 가능해지면서 아프리카로의 쌀 수출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²⁵⁾

- 2011년 이후 쌀 수출 실적이 거의 없던 對중국 수출은 2020년부터 급증했고, 2021년 수출량은 121만 톤으로 전년 대비 117만 톤 증가했다. 이는 2020년 7월 양쯔강 유역의 홍수, 메뚜기떼 공격 등 이상 기후 영향으로 중국 내 벼농사 피해가 확대되고, 코로나19 봉쇄조치와 주요 쌀 공급국인 태국의 가뭄으로 식량 수급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중국이 전략적 비축의 목적으로 쌀 수입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²⁶⁾
- 인도의 對한국 쌀 수출은 미미한 수준이며, 2021년 수출량은 1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표 3-5〉 인도의 국가별 쌀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달러/kg,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방글라데시	물량	137 (2.7)	237 (2.1)	552 (5.0)	947 (7.8)	41 (0.4)	17 (0.1)	2,483 (11.7)	33.6	14,187.4
	금액	56 (1.4)	95 (1.2)	179 (2.8)	384 (5.4)	27 (0.4)	18 (0.2)	934 (9.7)	32.5	5,187.4
네팔	물량	65 (1.3)	420 (3.7)	521 (4.7)	544 (4.5)	650 (6.6)	1,023 (7.0)	1,321 (6.2)	35.1	29.1
	금액	23 (0.6)	124 (1.5)	176 (2.8)	204 (2.9)	240 (3.5)	329 (4.1)	427 (4.4)	34.1	29.9
베넌	물량	86 (1.7)	1,376 (12.1)	547 (5.0)	809 (6.7)	675 (6.9)	990 (6.8)	1,275 (6.0)	30.9	28.8
	금액	40 (1.0)	585 (7.2)	196 (3.1)	319 (4.5)	249 (3.7)	355 (4.4)	455 (4.7)	27.4	28.1
중국	물량	-	3 (0.025)	2 (0.021)	0.1 (0.001)	1 (0.008)	34 (0.2)	1,208 (5.7)	-	3,447.4
	금액	-	1 (0.012)	1 (0.016)	0.1 (0.001)	0.5 (0.007)	11 (0.1)	369 (3.8)	-	3,383.9

²⁵⁾ REUTERS(2021. 2. 4.), “India lines up deepwater port for rice, exports to surge amid global shortage”.

²⁶⁾ CNBC(2020. 12. 17.), “Explained: Why is China importing rice from India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계속)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세네갈	물량	90 (1.8)	802 (7.0)	909 (8.2)	907 (7.5)	194 (2.0)	732 (5.0)	1,181 (5.6)	29.4	61.4
	금액	34 (0.8)	248 (3.0)	250 (3.9)	275 (3.9)	59 (0.9)	220 (2.8)	336 (3.5)	25.9	52.4
2021년 기준 상위 5개국 합계	물량	378 (7.5)	2,837 (24.9)	2,531 (23.0)	3,207 (26.5)	1,562 (15.9)	2,796 (19.1)	7,469 (35.1)	34.7	167.1
	금액	153 (3.8)	1,052 (12.9)	802 (12.6)	1,181 (16.7)	576 (8.5)	933 (11.7)	2,521 (26.2)	32.4	170.4
한국	물량	0.001 (-)	33.3 (0.29)	0.8 (0.01)	0.2 (0.001)	0.3 (0.003)	11.7 (0.08)	12.2 (0.06)	156.2	3.8
	금액	0.001 (-)	15.4 (0.19)	0.4 (0.01)	0.2 (0.003)	0.4 (0.01)	5.5 (0.07)	5.9 (0.06)	133.8	7.3
전체	물량	5,018	11,387	11,025	12,121	9,819	14,611	21,280	15.5	45.6
	금액	4,073	8,170	6,380	7,076	6,801	7,980	9,624	9.0	20.6
	단가	0.81	0.72	0.58	0.58	0.69	0.55	0.45	-5.7	-17.2

주 1) 2021년 수출량 기준 상위 5개 국가만 제시했으며, 한국은 추가로 제시함.

2) 쌀 수출 실적은 HS 100610, 100620, 100630, 100640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6. 27.

3. 밀

3.1. 생산 동향

○ 전 세계 밀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도의 밀 생산량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2021년 기준 전 세계 밀 생산량은 7억 7천만 톤으로 연평균 1.0%,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 세계에서 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본토)으로 2021년 기준 전 세계 밀 생산량의 17.8%를 차지하며, 연평균 1.6%와 전년 대비 2.0%의 증가율을 보인다.
- 2021년 인도의 밀 생산량은 1억 1천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14.2%를 차지하며, 그 점유율은 12~14%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3-6〉 국가별 밀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중국(본토)	117,410 (16.8)	121,926 (17.2)	132,639 (17.9)	134,241 (17.4)	133,596 (17.5)	134,250 (17.7)	136,946 (17.8)	1.6	2.0
인도	86,874 (12.5)	93,510 (13.2)	86,530 (11.7)	98,510 (12.8)	103,596 (13.6)	107,861 (14.2)	109,590 (14.2)	2.4	1.6
러시아	56,240 (8.1)	52,091 (7.3)	61,786 (8.3)	86,003 (11.1)	74,453 (9.7)	85,896 (11.3)	76,057 (9.9)	3.1	-11.5
미국	54,419 (7.8)	58,105 (8.2)	55,840 (7.5)	47,380 (6.1)	52,581 (6.9)	49,751 (6.6)	44,790 (5.8)	-1.9	-10.0
프랑스	35,993 (5.2)	38,651 (5.4)	42,750 (5.8)	38,678 (5.0)	40,605 (5.3)	30,144 (4.0)	36,559 (4.7)	0.2	21.3
전체	696,898	710,169	741,845	772,305	764,063	756,950	770,877	1.0	1.8

주 1) 2021년 생산량 기준 상위 5개 국가만 제시함.

2) 괄호 안의 숫자는 국가별 생산량이 연도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8. 28.

○ 인도의 밀 재배면적이 2011/12년 이후 연평균 0.2% 증가하는 가운데,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0.9%씩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량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2021/22년에는 편자브주, 하리아나주 북부지역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 영향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 2021/22년 인도의 밀 재배면적은 3,047만 ha로 전년 대비 2.1% 감소했으며, 생산량은 1억 1천만 톤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표 3-7〉 인도의 밀 생산 동향

단위: 백만 ha, 백만 톤, kg/ha

구분	'11/'12	'13/'14	'15/'16	'17/'18	'19/'20	'20/'21 (A)	'21/'22 (B)	변화율(%)	
								'11~'21 연평균	B/A
재배면적	29.9	30.5	30.4	29.7	31.4	31.1	30.5	0.2	-2.1
생산량	94.9	95.9	92.3	99.9	107.9	109.6	106.8	1.1	-2.5
단위면적당 생산량	3,177	3,146	3,034	3,368	3,440	3,521	3,507	0.9	-0.4

주: 인도의 밀 생산 동향은 MoA&FW 자료 기준이며, 연도는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나타냄. 따라서, FAOSTAT 자료와 기간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MoA&FW(2023), "Agricultural Statistics At a Glance 2022".

○ 인도의 밀 주산지는 우타르프라데시주, 마디아프라데시주, 편자브주, 하리아나주 등이며, 2021/22년 기준 상위 5개 주의 밀 생산량은 인도 전체 생산량의 85.3%를 차지한다.

-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의 밀 생산량은 2021/22년 기준 3,395만 톤으로, 인도 전체 생산량의 31.8%를 차지한다. 그다음은 마디아프라데시주(2,242만 톤, 21.0%), 편자브주(1,481만 톤, 13.9%), 하리아나주(1,043만 톤, 9.8%) 순으로 나타났다.
- 인도 대부분 지역의 밀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마디아프라데시주와 마하라슈트라주는 재배면적과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생산량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3-8〉 인도의 지역별 밀 생산 동향

단위: 백만 ha, 백만 톤, kg/ha, %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		
	'20/'21 (A)	'21/'22 (B)	B/A	'20/'21 (A)	'21/'22 (B)	B/A	'20/'21 (A)	'21/'22 (B)	B/A
우타르프라데시	9.9 (31.6)	9.4 (30.9)	-4.4	35.5 (32.4)	34.0 (31.8)	-4.4	3,604	3,604	-
마디아프라데시	6.1 (19.5)	6.5 (21.3)	6.9	18.2 (16.6)	22.4 (21.0)	23.3	2,989	3,449	15.4
편자브	3.5 (11.3)	3.5 (11.6)	-0.3	17.2 (15.7)	14.8 (13.9)	-13.8	4,868	4,206	-13.6
하리아나	2.6 (8.2)	2.3 (7.5)	-10.2	12.4 (11.3)	10.5 (9.8)	-15.7	4,834	4,533	-6.2
라자스탄	3.0 (9.6)	2.6 (8.5)	-14.0	11.0 (10.1)	9.5 (8.9)	-14.1	3,676	3,676	-
비하르	2.2 (7.1)	2.2 (7.4)	0.9	6.2 (5.6)	6.2 (5.8)	1.1	2,767	2,780	0.5
구자라트	1.0 (3.3)	1.0 (3.4)	2.0	3.3 (3.0)	3.3 (3.1)	2.1	3,205	3,206	0.03
마하라슈트라	1.1 (3.6)	1.2 (3.8)	3.5	2.1 (1.9)	2.5 (2.3)	19.3	1,839	2,117	15.1
기타	1.7 (5.6)	1.7 (5.5)	-2.3	3.8 (3.5)	3.7 (3.5)	-2.9	2,200	2,180	-0.9
전체	31.1 (100.0)	30.5 (100.0)	-2.1	109.6 (100.0)	106.8 (100.0)	-2.5	3,521	3,507	-0.4

주 1) 인도의 지역별 밀 생산 동향은 MoA&FW 자료 기준이며, 연도는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나타냄. 따라서, FAOSTAT 자료와 기간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괄호 안은 지역별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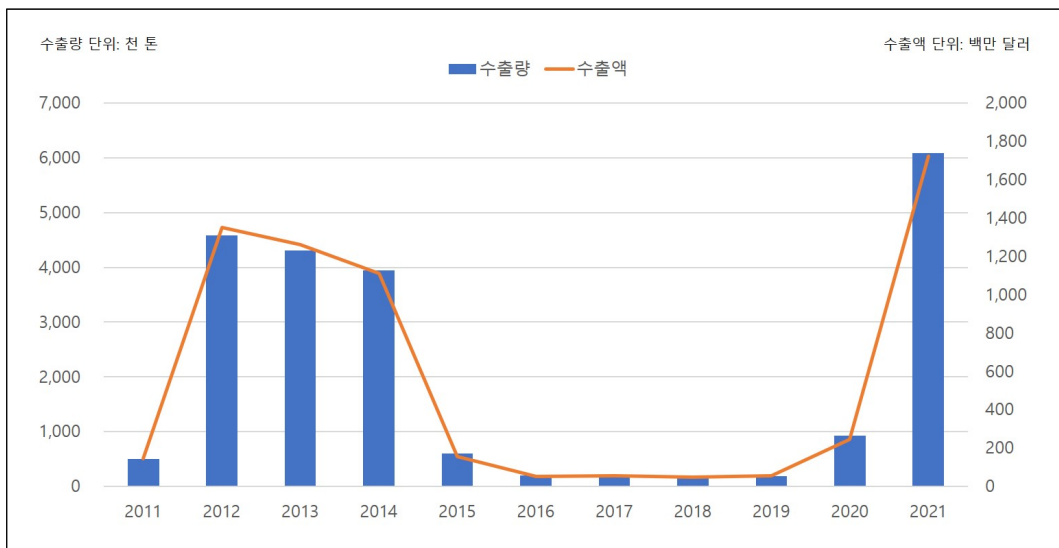
자료: MoA&FW(2023), "Agricultural Statistics At a Glance 2022".

3.2. 수출 동향

○ 인도의 밀 수출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9년까지 평균 30만 톤 수준을 유지했다. 2019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2021년에는 기상 이변에 따른 주요 곡물 수출국 생산량 감소와 수출 제한 조치 영향으로 인도산 밀 수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도의 밀 수출량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99.2% 증가했으나, 2015부터 2019년까지는 연평균 2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인도의 밀 수출량은 609만 톤으로 전년 대비 555.8% 증가했다. 이는 기상 이변에 따른 세계 밀 주산지(호주, 프랑스, 우크라이나)의 생산량 감소와 일부 국가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도산 밀의 대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021년 인도산 밀 수출단가는 대외 수요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8.1% 상승한 kg당 0.28달러로 나타났다<표 3-9>.

〈그림 3-2〉 인도의 밀 수출 동향



주: 밀 수출 실적은 HS 100110, 100111, 100119, 100190, 100191, 100199로 집계한 결과임.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6. 27.

○ 2021년 기준 인도의 국가별 밀 수출량은 방글라데시, 아랍에미리트연합,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순으로 많으며, 상위 5개국 수출량 비율은 85.7%로 인도 전체 밀 수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인도의 對방글라데시 밀 수출량은 367만 톤으로 2020년(38만 톤)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 2021년 인도의 밀 수출량 증가는 주변국인 방글라데시(868.6%), 아랍에미리트연합(470.7%), 스리랑카(493.7%)를 중심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 수출 실적 이 거의 없던 對인도네시아와 對필리핀 수출량도 각각 35만 톤과 30만 톤 증가했다.
- 인도의 對한국 밀 수출은 2013년 이후 거의 없었으나, 2021년에는 전체 수출량의 1.1%인 7만 톤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인도의 국가별 밀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달러/kg,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방글라데시	물량	223 (44.5)	1,332 (31.0)	342 (56.8)	3 (1.6)	9 (5.0)	379 (40.8)	3,669 (60.2)	32.3	868.6
	금액	64 (43.9)	397 (31.5)	90 (58.0)	1 (1.4)	3 (5.1)	94 (38.6)	1,031 (59.8)	32.1	998.8
아랍 에미리트 연합	물량	42 (8.4)	578 (13.4)	102 (16.9)	8 (3.8)	9 (4.6)	83 (9.0)	476 (7.8)	27.6	470.7
	금액	12 (8.1)	170 (13.5)	26 (16.4)	2 (4.5)	3 (5.9)	22 (9.3)	135 (7.8)	27.7	501.2
스리랑카	물량	17 (3.4)	59 (1.4)	4 (0.7)	2 (1.1)	2 (1.1)	72 (7.8)	428 (7.0)	38.2	493.7
	금액	5 (3.3)	18 (1.4)	1 (0.8)	1 (1.3)	1 (1.3)	19 (7.8)	124 (7.2)	38.3	550.2
인도네시아	물량	2 (0.5)	313 (7.3)	3 (0.5)	0.07 (0.04)	0.004 (0.002)	-	350 (5.7)	64.8	-
	금액	1 (0.5)	90 (7.1)	1 (0.5)	0.02 (0.04)	0.003 (0.006)	-	99 (5.7)	64.7	-
필리핀	물량	1 (0.1)	101 (2.4)	8 (1.3)	-	-	1.4 (0.15)	297 (4.9)	82.7	-
	금액	0 (0.1)	28 (2.2)	2 (1.4)	-	-	0.37 (0.15)	87 (5.0)	83.2	-

(계속)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2021년 상위 5개국 합계	물량	284 (56.9)	2,382 (55.4)	459 (76.2)	13 (6.5)	20 (10.7)	536 (57.7)	5,220 (85.7)	33.8	874.3
	금액	81 (55.9)	703 (55.8)	120 (77.1)	4 (7.2)	7 (12.4)	136 (55.8)	1,476 (85.6)	33.7	987.1
한국	물량	-	631 (14.7)	0.10 (0.02)	-	-	-	70 (1.1)	-	-
	금액	-	177 (14.1)	0.05 (0.03)	-	-	-	23 (1.3)	-	-
전체	물량	500	4,303	603	202	190	929	6,091	28.4	555.8
	금액	145	1,260	156	55	54	243	1,723	28.1	609.0
	단가	0.29	0.29	0.26	0.27	0.28	0.26	0.28	-0.3	8.1

주 1) 2021년 수출량 기준 상위 5개 국가만 제시했으며, 한국은 추가로 제시함.

2) 밀 수출 실적은 HS 100110, 100111, 100119, 100190, 100191, 100199로 집계한 결과이며,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6. 27.

4. 옥수수

4.1. 생산 동향

○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도의 옥수수 생산량은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다.

- 2021년 기준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12억 1천만 톤으로 연평균 3.1%,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 세계에서 옥수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2021년 기준 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31.7%를 차지하며, 연평균 2.1%와 전년 대비 7.1%의 증가율을 보인다.
- 2021년 인도의 옥수수 생산량은 3,165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2.6%를 차지하며, 그 점유율은 2.5%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국가별 옥수수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미국	312,789 (35.2)	351,272 (34.5)	345,486 (32.8)	371,096 (32.6)	345,962 (30.4)	358,447 (30.8)	383,943 (31.7)	2.1	7.1
중국(본토)	192,781 (21.7)	218,489 (21.5)	264,992 (25.1)	259,071 (22.7)	260,779 (22.9)	260,670 (22.4)	272,552 (22.5)	3.5	4.6
브라질	55,660 (6.3)	80,273 (7.9)	85,283 (8.1)	97,911 (8.6)	101,126 (8.9)	103,964 (8.9)	88,462 (7.3)	4.7	-14.9
아르헨티나	23,800 (2.7)	32,119 (3.2)	33,818 (3.2)	49,476 (4.3)	56,861 (5.0)	58,396 (5.0)	60,526 (5.0)	9.8	3.6
우크라이나	22,838 (2.6)	30,950 (3.0)	23,328 (2.2)	24,669 (2.2)	35,880 (3.2)	30,290 (2.6)	42,110 (3.5)	6.3	39.0
인도	21,760 (2.5)	24,260 (2.4)	24,170 (2.3)	25,900 (2.3)	27,715 (2.4)	28,766 (2.5)	31,650 (2.6)	3.8	10.0
전체	887,755	1,016,799	1,053,891	1,139,705	1,137,617	1,162,998	1,210,235	3.1	4.1

주 1) 2021년 생산량 기준 상위 5개 국가와 인도만 제시함.

2) 괄호 안의 숫자는 국가별 생산량이 연도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8. 28.

○ 인도의 옥수수 재배면적이 2011/12년 이후 연평균 1.2% 증가하는 가운데,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2.8%씩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량은 연평균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22년 인도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1천만 ha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생산량은 3,362만 톤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다.

〈표 3-11〉 인도의 옥수수 생산 동향

단위: 백만 ha, 백만 톤, kg/ha

구분	'11/'12	'13/'14	'15/'16	'17/'18	'19/'20	'20/'21 (A)	'21/'22 (B)	변화율(%)	
								'11~'21 연평균	B/A
재배면적	8.8	9.1	8.8	9.4	9.6	9.9	10.0	1.2	1.5
생산량	21.8	24.3	22.6	28.8	28.8	31.7	33.6	4.0	6.2
단위면적당 생산량	2,478	2,676	2,563	3,065	3,006	3,199	3,349	2.8	4.7

주: 인도의 옥수수 생산 동향은 MoA&FW 자료 기준이며, 연도는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나타냄. 따라서, FAOSTAT 자료와 기간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MoA&FW(2023), "Agricultural Statistics At a Glance 2022".

○ 인도의 옥수수 주산지는 카르나타카주, 마디아프라데시주, 마하라슈트라주 등이며, 2021/22년 기준 상위 5개 주의 옥수수 생산량은 인도 전체 생산량의 55.8%를 차지한다.

- 인도에서 옥수수 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카르나타카주로 2021/22년 생산량이 521만 톤이며, 인도 전체 생산량의 1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마디아프라데시주(456만 톤, 13.6%), 마하라슈트라주(352만 톤, 10.5%) 순이다.
- 마디아프라데시주는 2021/22년 옥수수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소폭(-0.7%) 감소했지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17.8% 증가하면서 생산량도 17.8% 증가했다. 반면, 텔랑가나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전년 대비 23.7%의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이 57.7%의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생산량이 2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인도의 지역별 옥수수 생산 동향

단위: 백만 ha, 백만 톤, kg/ha, %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		
	'20/'21 (A)	'21/'22 (B)	B/A	'20/'21 (A)	'21/'22 (B)	B/A	'20/'21 (A)	'21/'22 (B)	B/A
카르나타카	1.7 (17.5)	1.6 (15.8)	-8.1	5.4 (16.9)	5.2 (15.5)	-2.6	3,107	3,279	5.5
마디아프라데시	1.4 (14.3)	1.4 (13.9)	-0.7	3.9 (12.3)	4.6 (13.6)	17.8	2,763	3,256	17.8
마하라슈트라	1.2 (11.9)	1.3 (12.8)	9.3	3.5 (11.1)	3.5 (10.5)	0.3	2,978	2,730	-8.3
타밀나두	0.4 (4.0)	0.4 (4.0)	-	0.6 (1.8)	2.8 (8.4)	401.8	1,411	7,008	396.7
서벵골	0.4 (3.6)	0.4 (3.7)	2.8	2.4 (7.7)	2.6 (7.9)	8.2	6,752	7,158	6.0
비하르	0.7 (6.6)	0.7 (6.6)	1.5	2.1 (6.6)	2.5 (7.5)	21.2	3,211	3,809	18.6
텔랑가나	0.3 (2.6)	0.4 (4.1)	57.7	1.8 (5.6)	2.1 (6.3)	21.0	6,782	5,178	-23.7
안드라프라데시	0.3 (3.0)	0.3 (3.4)	13.3	1.8 (5.6)	2.1 (6.1)	15.2	5,917	5,990	1.2
라자스탄	1.0 (10.0)	1.0 (9.5)	-4.0	2.3 (7.2)	2.0 (6.1)	-10.1	2,285	2,149	-6.0

(계속)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		
	'20/'21 (A)	'21/'22 (B)	B/A	'20/'21 (A)	'21/'22 (B)	B/A	'20/'21 (A)	'21/'22 (B)	B/A
기타	2.6 (26.4)	2.6 (26.2)	0.8	8.0 (25.2)	6.1 (18.2)	-23.5	3,055	2,335	-23.6
전체	9.9 (100.0)	10.0 (100.0)	1.5	31.7 (100.0)	33.6 (100.0)	6.2	3,199	3,349	4.7

주 1) 인도의 지역별 옥수수 생산 동향은 MoA&FW 자료 기준이며, 연도는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나타냄.
따라서, FAOSTAT 자료와 기간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괄호 안은 지역별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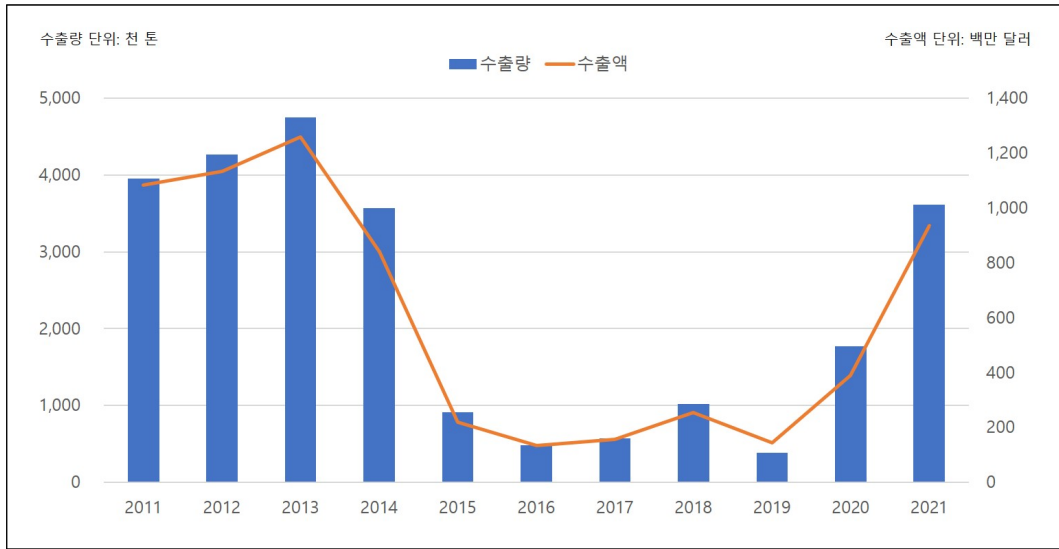
자료: MoA&FW(2023), "Agricultural Statistics At a Glance 2022".

4.2. 수출 동향

○ 인도의 옥수수 수출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9년까지 40만 톤에서 1백만 톤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19년부터 인도 옥수수 수출은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어 2021년에는 2014년 수준인 약 4백만 톤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도의 옥수수 수출량은 2011~2013년에 1천만 톤 수준을 유지하며 연평균 9.6% 증가했으나, 2013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3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인도의 옥수수 수출량은 362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4.6%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9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40.3% 증가했다.
- 인도산 옥수수 수출단가는 연평균 0.6% 하락했으나, 2021년 수출단가는 kg당 0.26 달러로 전년 대비 17.4% 상승했다<표 3-13>.

〈그림 3-3〉 인도의 옥수수 수출 동향



주: 옥수수 수출 실적은 HS 100510, 100590으로 집계한 결과임.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6. 27.

- 인도는 주로 방글라데시, 베트남, 네팔, 말레이시아, 부탄 등으로 옥수수를 수출하며, 상위 5개국 수출량이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6.0%(2021년 기준)이다.
 - 인도의 對방글라데시 옥수수 수출량은 2011년 이후 연평균 9.8% 증가했으며, 2021년 수출량은 134만 톤으로 전년 대비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인도의 주요 옥수수 수출국은 인도네시아(29.5%), 베트남(21.2%), 말레이시아(20.3%)였으나,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네팔(51.1%), 방글라데시(15.7%) 등으로 변화했다. 최근(2020~2021년)에는 방글라데시(46.2%), 베트남(24.3%), 네팔(20.2%)이 주요 수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인도의 對방글라데시 및 對네팔 옥수수 수출량 비율은 수출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對베트남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각각 27.6%p와 14.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도의 對한국 옥수수 수출량은 2011년을 제외하면 최근까지 1% 미만의 매우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13〉 인도의 국가별 옥수수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달러/kg,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방글라데시	물량	529 (13.4)	446 (9.4)	238 (26.0)	5 (0.9)	6 (1.6)	1,144 (64.7)	1,341 (37.1)	9.8	17.3
	금액	138 (12.7)	128 (10.2)	63 (28.7)	13 (8.1)	15 (10.3)	238 (61.2)	355 (37.9)	9.9	49.1
베트남	물량	611 (15.5)	1,066 (22.4)	69 (7.5)	1 (0.2)	2 (0.6)	37 (2.1)	1,269 (35.1)	7.6	3,356.4
	금액	166 (15.3)	274 (21.8)	16 (7.2)	1 (0.6)	1 (0.9)	8 (2.2)	316 (33.8)	6.7	3,641.3
네팔	물량	71 (1.8)	198 (4.2)	227 (24.9)	393 (68.6)	318 (83.7)	527 (29.8)	560 (15.5)	22.9	6.4
	금액	17 (1.6)	52 (4.2)	47 (21.7)	88 (56.1)	91 (63.0)	114 (29.4)	136 (14.6)	23.1	19.3
말레이시아	물량	790 (20.0)	1,031 (21.7)	85 (9.3)	11 (1.9)	0.4 (0.1)	8 (0.4)	276 (7.6)	-10.0	3,475.3
	금액	215 (19.8)	266 (21.2)	19 (8.9)	3 (1.8)	0.1 (0.1)	2 (0.5)	69 (7.4)	-10.7	3,715.6
부탄	물량	0.1 (0.002)	0.05 (0.001)	0.3 (0.04)	0.2 (0.03)	10 (2.7)	16 (0.9)	23 (0.6)	76.8	43.4
	금액	0.02 (0.002)	0.01 (0.001)	0.1 (0.03)	0.1 (0.1)	3 (2.2)	3 (0.8)	5 (0.6)	75.1	63.9
2021년 상위 5개국 합계	물량	2,001 (50.6)	2,740 (57.7)	619 (67.7)	411 (71.6)	337 (88.7)	1,731 (98.0)	3,469 (96.0)	5.7	100.4
	금액	536 (49.5)	721 (57.3)	145 (66.5)	105 (66.7)	110 (76.4)	366 (94.0)	882 (94.3)	5.1	141.0
한국	물량	55 (1.4)	1.9 (0.04)	2.9 (0.3)	1.9 (0.3)	0.0 (0.0)	0.04 (0.002)	0.2 (0.004)	-44.5	284.0
	금액	15 (1.4)	0.5 (0.04)	0.8 (0.4)	0.6 (0.4)	0.0 (0.0)	0.01 (0.003)	0.04 (0.005)	-44.2	300.7
전체	물량	3,952	4,750	914	573	379	1,767	3,616	-0.9	104.6
	금액	1,084	1,259	218	158	144	389	936	-1.5	140.3
	단가	0.27	0.26	0.24	0.27	0.38	0.22	0.26	-0.6	17.4

주 1) 2021년 수출량 기준 상위 5개 국가만 제시했으며, 한국은 추가로 제시함.

2) 옥수수 수출 실적은 HS 100510, 100590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6. 27.

5. 감자

5.1. 생산 동향

○ 전 세계 감자 생산량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3억 7천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도의 감자 생산량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2021년 기준 전 세계 감자 생산량은 3억 8천만 톤으로 연평균 0.2%,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 세계에서 감자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본토)으로 2021년 기준 전 세계 감자 생산량의 25.1%를 차지하며, 연평균 1.5%와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인도의 감자 생산량은 5,423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14.4%를 차지하며, 그 점유율은 12~14%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3-14〉 국가별 감자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중국(본토)	81,573 (22.1)	85,880 (23.5)	82,829 (22.6)	88,482 (23.9)	89,500 (24.3)	92,800 (25.0)	94,300 (25.1)	1.5	1.6
인도	42,339 (11.5)	45,344 (12.4)	48,009 (13.1)	48,605 (13.1)	50,190 (13.6)	48,562 (13.1)	54,230 (14.4)	2.5	11.7
우크라이나	24,248 (6.6)	22,259 (6.1)	20,839 (5.7)	22,208 (6.0)	20,269 (5.5)	20,838 (5.6)	21,356 (5.7)	-1.3	2.5
미국	19,506 (5.3)	19,715 (5.4)	20,013 (5.5)	20,453 (5.5)	19,251 (5.2)	19,052 (5.1)	18,582 (4.9)	-0.5	-2.5
러시아	32,681 (8.9)	30,199 (8.2)	33,646 (9.2)	21,708 (5.9)	22,075 (6.0)	19,607 (5.3)	18,296 (4.9)	-5.6	-6.7
전체	368,984	366,055	366,068	370,115	368,833	371,143	376,120	0.2	1.3

주 1) 2021년 생산량 기준 상위 5개 국가만 제시함.

2) 괄호 안의 숫자는 국가별 생산량이 연도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8. 28.

○ 인도의 감자 재배면적이 2011/12년 이후 연평균 1.3% 증가하는 가운데,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1.0%씩 증가하면서 전체 생산량은 연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22년 인도의 감자 재배면적은 2백만 ha로 전년과 같고, 생산량은 5,339만 톤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했다.

〈표 3-15〉 인도의 감자 생산 동향

단위: 백만 ha, 백만 톤, kg/ha

구분	'11/'12	'13/'14	'15/'16	'17/'18	'19/'20	'20/'21 (A)	'21/'22 (B)	변화율(%)	
								'11~'21 연평균	B/A
재배면적	1.9	2.0	2.1	2.1	2.1	2.2	2.2	1.3	-
생산량	41.5	41.6	43.4	51.3	48.6	56.2	53.4	2.3	-4.9
단위면적당 생산량	21,753	21,060	20,509	23,957	23,688	25,498	24,243	1.0	-4.9

주: 인도의 감자 생산 동향은 MoA&FW 자료 기준이며, 연도는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나타냄. 따라서, FAOSTAT 자료와 기간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MoA&FW(2023), "Agricultural Statistics At a Glance 2022".

○ 인도의 감자 주산지는 우타르프라데시주, 서벵골주, 비하르주 등이며, 2021/22년 기준 상위 5개 주의 감자 생산량은 인도 전체 생산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 인도에서 감자 생산량이 가장 많은 우타르프라데시주의 2021/22년 감자 생산량은 162억 톤이며, 인도 전체 생산량의 3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은 서벵골주(124억 톤, 23.2%), 비하르주(91억 톤, 17.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벵골주는 재배면적이 1.7% 감소했지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16.4%의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생산량도 17.9%의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 구자라트주와 펀자브주는 2021/22년 감자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면서 생산량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표 3-16〉 인도의 지역별 감자 생산 동향

단위: 백만 ha, 백만 톤, kg/ha, %

구분	재배면적			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		
	'20/'21 (A)	'21/'22 (B)	B/A	'20/'21 (A)	'21/'22 (B)	B/A	'20/'21 (A)	'21/'22 (B)	B/A
우타르프라데시	620 (28.2)	623 (28.3)	0.3	15,811 (28.1)	16,162 (30.3)	2.2	25,484	25,963	1.9
서벵골	455 (20.7)	447 (20.3)	-1.7	15,099 (26.9)	12,403 (23.2)	-17.9	33,169	27,720	-16.4
비하르	328 (14.9)	330 (15.0)	0.7	9,042 (16.1)	9,126 (17.1)	0.9	27,602	27,654	0.2
구자라트	125 (5.7)	128 (5.8)	1.9	3,890 (6.9)	3,700 (6.9)	-4.9	31,003	28,951	-6.6
마디아프라데시	156 (7.1)	158 (7.2)	1.3	3,567 (6.3)	3,588 (6.7)	0.6	22,808	22,651	-0.7
편자브	107 (4.9)	110 (5.0)	2.7	2,949 (5.2)	2,850 (5.3)	-3.3	27,533	25,909	-5.9
하리아나	31 (1.4)	30 (1.3)	-3.9	807 (1.4)	783 (1.5)	-3.1	26,256	26,490	0.9
아삼	103 (4.7)	103 (4.7)	0.4	758 (1.3)	762 (1.4)	0.6	7,353	7,365	0.2
자르칸드	49 (2.2)	49 (2.2)	0.3	767 (1.4)	699 (1.3)	-8.9	15,616	14,184	-9.2
차티스가르	41 (1.9)	43 (1.9)	2.8	591 (1.1)	651 (1.2)	10.2	14,281	15,315	7.2
기타	187 (8.5)	181 (8.2)	-2.9	2,891 (5.1)	2,664 (5.0)	-7.9	15,501	14,701	-5.2
전체	2,203 (100.0)	2,202 (100.0)	-0.04	56,173 (100.0)	53,387 (100.0)	-5.0	25,498	24,243	-4.9

주 1) 인도의 지역별 감자 생산 동향은 MoA&FW 자료 기준이며, 연도는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나타냄. 따라서, FAOSTAT 자료와 기간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괄호 안은 지역별 비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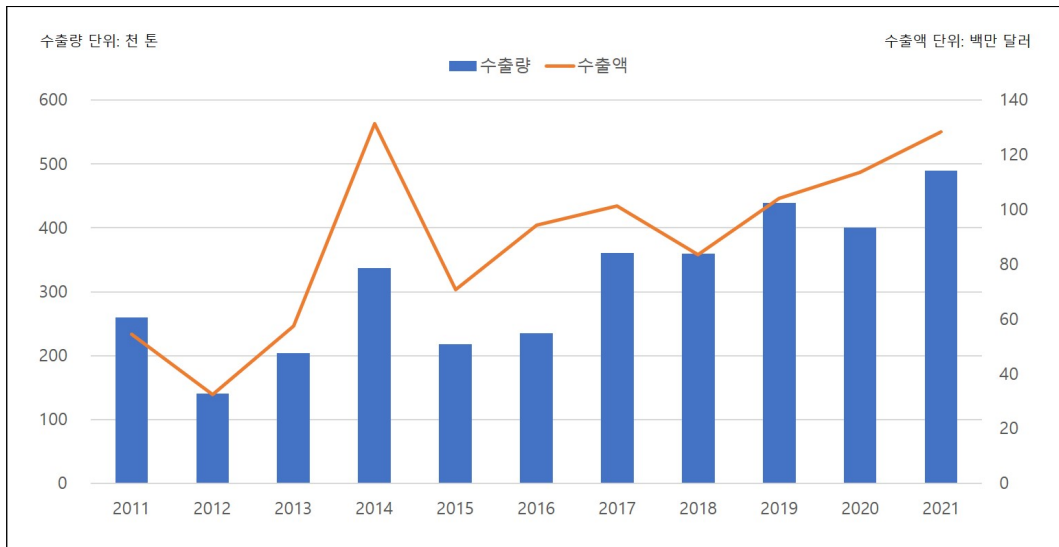
자료: MoA&FW(2023), "Agricultural Statistics At a Glance 2022".

5.2. 수출 동향

○ 인도의 감자 수출량은 2011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수출액의 경우 큰 폭으로 증가한 2014년을 제외하면 완만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 이후 인도의 감자 수출량은 연평균 6.5%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연평균 9.0% 증가하였다. 2021년 감자 수출량은 49만 톤으로 전년 대비 22.1%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1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 인도산 감자 수출단가는 연평균 2.3% 상승했으나, 2021년 수출단가는 kg당 0.26달러로 전년 대비 7.3% 하락했다<표 3-17>.

〈그림 3-4〉 인도의 감자 수출 동향



주: 감자 수출 실적은 HS 070110, 070190, 071010, 071210, 071290으로 집계한 결과임.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6. 27.

○ 인도는 주로 네팔, 오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감자를 수출하며, 상위 5개국 수출량 비율은 85.0%(2021년 기준)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 2021년 인도의 對네팔 감자 수출량은 33만 9천 톤으로 전년 대비 22.9% 증가했으며, 전체 수출량의 69.3%를 차지한다.
- 인도의 對인도네시아 수출량도 많이 증가했는데, 2021년 수출량은 1만 9천 톤으로 전년 대비 94.9%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3-17〉 인도의 국가별 감자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달러/kg,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네팔	물량	137 (52.9)	120 (58.8)	120 (55.3)	211 (58.6)	310 (70.5)	276 (68.9)	339 (69.3)	9.5	22.9
	금액	15 (27.6)	16 (27.6)	25 (34.8)	27 (26.8)	42 (40.1)	53 (46.4)	55 (42.5)	13.8	3.6
오만	물량	0.1 (0.1)	3 (1.4)	9 (4.1)	21 (5.8)	25 (5.7)	23 (5.8)	25 (5.1)	67.6	7.6
	금액	0.1 (0.1)	1 (2.1)	3 (4.0)	5 (5.2)	8 (7.3)	7 (5.9)	6 (4.8)	60.1	-7.8
인도네시아	물량	0.09 (0.03)	0.01 (0.005)	0.002 (0.001)	8 (2.2)	21 (4.7)	10 (2.4)	19 (3.8)	71.2	94.9
	금액	0.02 (0.04)	0.01 (0.01)	0.01 (0.02)	3 (2.9)	7 (6.8)	3 (2.7)	6 (4.7)	77.0	99.5
말레이시아	물량	7 (2.7)	7 (3.4)	4 (1.7)	11 (3.0)	11 (2.6)	14 (3.5)	18 (3.7)	9.9	26.3
	금액	2 (3.2)	2 (3.8)	1 (2.0)	3 (3.4)	4 (3.7)	5 (4.1)	6 (4.9)	13.9	36.4
사우디 아라비아	물량	0.5 (0.2)	0.1 (0.1)	0.1 (0.04)	0.2 (0.1)	11 (2.6)	16 (4.1)	15 (3.1)	41.0	-5.2
	금액	0.1 (0.2)	0.2 (0.3)	0.1 (0.2)	0.3 (0.3)	4 (3.4)	5 (4.4)	4 (3.3)	42.1	-16.0
2021년 상위 5개국 합계	물량	145 (55.9)	130 (63.7)	133 (61.2)	251 (69.5)	378 (86.1)	339 (84.6)	416 (85.0)	11.1	22.7
	금액	17 (31.2)	19 (33.8)	29 (40.9)	39 (38.7)	64 (61.4)	72 (63.5)	77 (60.2)	16.4	7.4
전체	물량	259	204	218	361	439	401	489	6.5	22.1
	금액	54	57	71	101	104	113	128	9.0	13.2
	단가	0.21	0.28	0.32	0.28	0.24	0.28	0.26	2.3	-7.3

주 1) 2021년 수출량 기준 상위 5개 국가만 제시함.

2) 감자 수출 실적은 HS 070110, 070190, 071010, 071210, 071290으로 집계한 결과이며,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6. 27.

6. 후추

6.1. 생산 동향

○ 전 세계 후추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의 후추 생산량은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 2021년 기준 전 세계 후추 생산량은 82만 7천 톤으로 연평균 6.3%,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 세계에서 후추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베트남으로 그 비중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34.8%를 차지하며, 연평균 9.9%와 전년 대비 6.7%의 증가율을 보인다.
- 2021년 인도의 후추 생산량은 6만 5천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7.8%를 차지하며, 그 비율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인다.

〈표 3-18〉 국가별 후추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전체	449	485	581	702	817	815	827	6.3	1.5
베트남	112 (25.0)	125 (25.8)	177 (30.4)	253 (36.0)	265 (32.4)	270 (33.2)	288 (34.8)	9.9	6.7
브라질	45 (9.9)	42 (8.7)	52 (8.9)	79 (11.3)	109 (13.4)	115 (14.1)	118 (14.3)	10.2	2.9
인도네시아	87 (19.4)	91 (18.8)	82 (14.0)	88 (12.5)	88 (10.7)	86 (10.6)	81 (9.8)	-0.7	-5.7
부루키나파소	-	19 (3.9)	36 (6.2)	29 (4.1)	54 (6.6)	63 (7.7)	68 (8.2)	-	7.9
인도	52 (11.6)	53 (10.9)	65 (11.2)	72 (10.3)	66 (8.1)	66 (8.1)	65 (7.8)	2.2	-1.8

주 1) 2021년 생산량 기준 상위 5개 국가만 제시함.

2) 괄호 안의 숫자는 국가별 생산량이 연도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7. 3.

○ 인도의 후추 재배면적이 2011년 이후 감소하는 가운데,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로 전체 생산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정체하면서 전체 생산량도 감소하는 상황이다.

- 인도의 후추 재배면적은 2011년 18만 4천 ha에서 2021년 13만 2천 ha로 연평균 3.3% 증가했으나, 전년보다는 3.9% 감소했다.
- 인도산 후추 생산량은 같은 기간 연평균 2.2%씩 증가했으나, 2021년에는 단위면적당 생산량 정체로 전년 대비 1.8% 감소한 6만 5천 톤을 기록했다.
- 후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11년 이후 연평균 5.7%씩 증가했으나, 2019년 이후에는 ha당 480~490kg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19〉 인도의 후추 생산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kg/ha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재배면적	184	125	129	132	138	137	132	-3.3	-3.9
생산량	52	53	65	72	66	66	65	2.2	-1.8
단위면적당 생산량	283	424	504	546	478	482	492	5.7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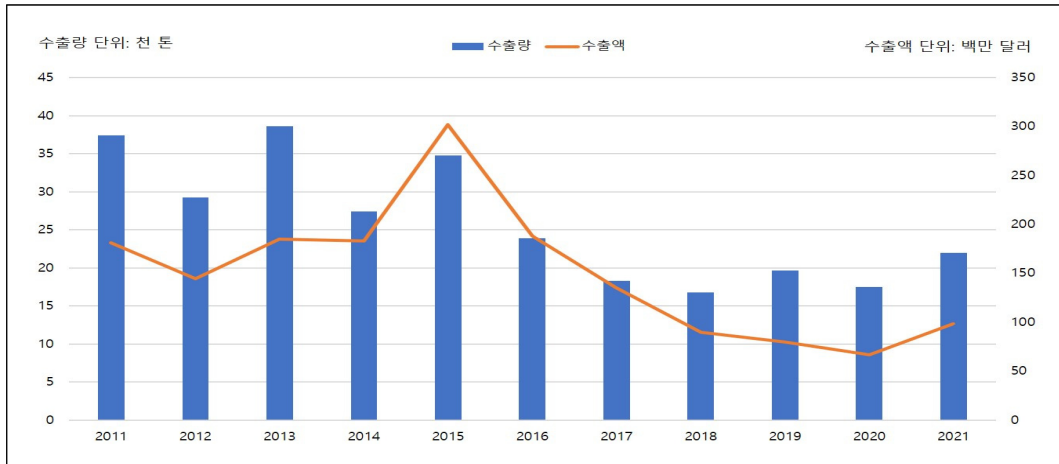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7. 3.

6.2. 수출 동향

○ 인도의 후추 수출량은 2011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수출액 또한 2015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 인도의 후추 수출량은 2011년 이후 연평균 5.2% 감소했으며, 수출액은 같은 기간에 연평균 5.9% 감소하였다. 2021년 인도의 후추 수출량은 2만 2천 톤으로 전년 대비 25.6%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9,853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8% 상승했다.
- 인도의 후추 수출단가는 연평균 0.7% 하락했으며, 2021년 수출단가는 kg당 4.48달러로 전년 대비 17.7% 상승했다〈표 3-20〉.

〈그림 3-5〉 인도의 후추 수출 동향



주: 후추 수출 실적은 HS 090411, 090412를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6. 27.

○ 인도는 후추 대부분을 미국으로 수출하며, 나머지 국가로의 수출 비율은 6% 미만 수준이다.

- 2021년 인도의 對미국 후추 수출량은 9,054톤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5.8%씩 감소했지만, 전년보다는 64.7%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도의 對미국 후추 수출량 비율은 특정 시점을 제외하면 대부분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인도의 對캐나다와 對아랍에미리트연합 수출량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후 섭취의 편의성과 다양한 맛을 보려는 욕구(Economic Times, 2022. 7. 16.)²⁷⁾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0%와 167.1% 증가했다.
- 인도의 對영국 수출량은 2011년 이후 연평균 2.9% 감소하는 가운데 전년에 비해서도 2.5% 감소한 1,241톤을 기록했다. 반면, 對스웨덴 수출량은 1,162톤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2.8% 증가하면서 전년에 비해서도 21.5%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인도의 對한국 후추 수출량 비율은 1% 미만의 매우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²⁷⁾ The Economic Times(2022. 7. 16.), "India's spice exports need to grow at 19.5% to meet \$10 billion target by FY27".

〈표 3-20〉 인도의 국가별 후추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달러/kg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미국	물량	16 (44.0)	12 (32.3)	14 (40.3)	7.7 (42.1)	7.4 (37.5)	5.5 (31.4)	9.1 (41.2)	-5.8	64.7
	금액	66	76	129	56	29	21	38	-5.4	83.7
캐나다	물량	1.6 (4.2)	1.2 (3.2)	0.9 (2.5)	0.9 (4.8)	1.1 (5.4)	1.1 (6.5)	1.2 (5.7)	-2.4	10.0
	금액	6.8	6.2	7.0	5.8	4.1	4.4	5.8	-1.6	32.8
영국	물량	1.7 (4.4)	1.9 (4.8)	2.1 (6.1)	2.1 (11.4)	1.4 (7.2)	1.3 (7.3)	1.2 (5.6)	-2.9	-2.5
	금액	7.4	12	22	13	6.4	5.7	6.6	-1.1	16.8
아랍에미리트연합	물량	1.2 (3.3)	0.9 (2.3)	0.6 (1.6)	0.5 (2.7)	0.3 (1.4)	0.5 (2.6)	1.2 (5.5)	-0.1	167.1
	금액	7.2	2.8	3.6	2.6	1.0	1.5	4.4	-4.7	200.2
스웨덴	물량	0.9 (2.3)	0.4 (0.9)	0.8 (2.2)	0.7 (3.9)	1.0 (5.0)	1.0 (5.5)	1.2 (5.3)	2.8	21.5
	금액	4.8	2.8	8.8	7.2	5.8	5.2	6.3	2.8	19.8
한국	물량	0.02 (0.1)	0.1 (0.1)	0.1 (0.2)	0.01 (0.1)	0.01 (0.0)	0.01 (0.1)	0.01 (0.1)	-6.1	17.7
	금액	0.1	0.5	0.2	0.2	0.2	0.1	0.1	-3.1	14.3
2021년 기준 상위 5개국 합계	물량	22 (58.2)	17 (43.6)	18 (52.8)	12 (64.9)	11 (56.4)	9.3 (53.2)	14 (63.3)	-4.4	49.4
	금액	92	100	170	84	46	37	61	-4.1	63.2
전체	물량	37	39	35	18	20	17	22	-5.2	25.6
	금액	181	185	302	135	80	67	99	-5.9	47.8
	단가	4.83	4.79	8.68	7.39	4.07	3.81	4.48	-0.7	17.7

주 1) 2021년 수출량 기준 상위 5개 국가와 한국만 제시함.

2) 괄호 안의 숫자는 인도의 국가별 수출량이 연도별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3) 후추 수출 실적은 HS 090411, 090412를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6. 27.

7. 땅콩

7.1. 생산 동향

○ 전 세계 땅콩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의 땅콩 생산량은 세계 5위를 차지했다.

- 2021년 기준 전 세계 땅콩 생산량은 7,228만 톤으로 연평균 2.4%,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 세계에서 땅콩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본토)으로 그 비중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25.3%를 차지하며, 연평균 1.3%와 전년 대비 1.8%의 증가율을 보인다.
- 2021년 인도의 땅콩 생산량은 1천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14.2%를 차지하며, 그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3-21〉 국가별 땅콩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전체	57,231	63,986	61,047	65,593	66,333	71,837	72,284	2.4	0.6
중국(본토)	16,046 (28.0)	16,972 (26.5)	15,961 (26.1)	17,092 (26.1)	17,520 (26.4)	17,993 (25.0)	18,308 (25.3)	1.3	1.8
인도	6,964 (12.2)	9,472 (14.8)	6,733 (11.0)	7,462 (11.4)	6,727 (10.1)	9,952 (13.9)	10,244 (14.2)	3.9	2.9
나이지리아	2,963 (5.2)	2,475 (3.9)	3,467 (5.7)	4,521 (6.9)	4,512 (6.8)	4,522 (6.3)	4,608 (6.4)	4.5	1.9
미국	1,660 (2.9)	1,893 (3.0)	2,817 (4.6)	3,228 (4.9)	2,480 (3.7)	2,793 (3.9)	2,898 (4.0)	5.7	3.8
수단	-	1,767 (2.8)	1,042 (1.7)	1,648 (2.5)	2,828 (4.3)	2,773 (3.9)	2,355 (3.3)	-	-15.1

주 1) 2021년 생산량 기준 상위 5개 국가만 제시함.

2) 괄호 안의 숫자는 국가별 생산량이 연도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7. 3.

○ 인도의 땅콩 재배면적은 20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생산량과 단위면적당 생산량 모두 2011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 땅콩 재배면적은 주요 특용작물 중 가장 넓은 가운데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2019년 이후에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1년 재배면적은 596만 9천 ha로 전년 대비 23.7% 증가했다.
- 땅콩 생산량도 재배면적과 같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9년 이후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만 2021년 생산량은 1,024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전년 대비 16.8%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2.9% 증가에 그쳤다.

〈표 3-22〉 인도의 땅콩 생산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kg/ha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재배면적	5,310	5,505	4,560	5,338	4,731	4,825	5,969	1.2	23.7
생산량	6,964	9,472	6,733	7,462	6,727	9,952	10,244	3.9	2.9
단위면적당 생산량	1,312	1,721	1,477	1,398	1,422	2,063	1,716	2.7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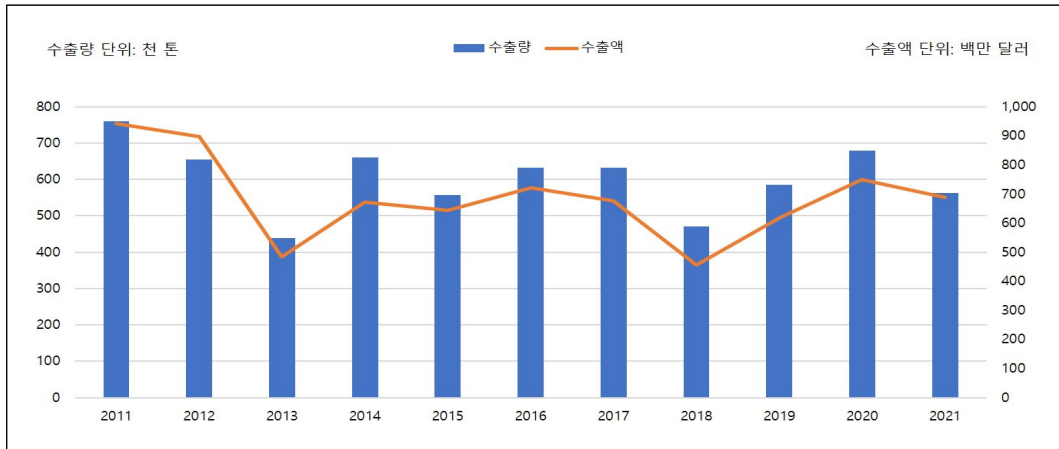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7. 3.

7.2. 수출 동향

○ 인도의 땅콩 수출량과 수출액은 2011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인다.

- 인도의 땅콩 수출량은 2011년 이후 연평균 2.9% 감소했으며, 수출액은 연평균 3.1% 감소하였다. 2021년 인도의 땅콩 수출량은 56만 4천 톤으로 전년 대비 17.1% 감소했으며, 수출액은 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그림 3-6〉 인도의 땅콩 수출 동향



주: 인도의 땅콩 수출 실적은 HS 120210, 120220, 120230, 120241, 120242를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data/>), 2023. 6. 27.

○ 인도는 주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 땅콩을 수출하며, 나머지 국가로의 수출 비율은 10% 미만 수준이다.

- 2021년 인도의 對인도네시아 땅콩 수출량은 25만 4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45.1%를 차지하며, 2011년 이후 연평균 0.7%씩 감소했지만 전년대는 8.7% 증가했다.
- 2021년 인도의 對베트남과 對태국 땅콩 수출량은 각각 8만 3천 톤과 2만 2천 톤으로 2011년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전년에 비해서도 모두 감소했다.
- 2021년 인도의 對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땅콩 수출량은 각각 5만 1천 톤과 4만 3천 톤으로 2011년 이후 모두 감소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도의 對한국 땅콩 수출은 2019년부터 이루어졌으나, 2021년 기준 수출량은 2톤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표 3-23〉 인도의 국가별 땅콩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달러/kg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인도네시아	물량	273 (35.9)	192 (43.9)	170 (30.6)	213 (33.7)	191 (32.7)	234 (34.4)	254 (45.1)	-0.7	8.7
	금액	354	211	198	234	203	258	311	-1.3	20.6

(계속)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베트남	물량	149 (19.6)	41 (9.4)	48 (8.5)	120 (18.9)	118 (20.2)	130 (19.2)	83 (14.8)	-5.6	-36.0
	금액	188	42	54	123	125	149	102	-5.9	-31.6
필리핀	물량	53 (6.9)	56 (12.7)	53 (9.5)	45 (7.1)	48 (8.2)	44 (6.4)	51 (9.1)	-0.3	17.7
	금액	68	62	64	49	53	49	64	-0.6	30.8
말레이시아	물량	92 (12.1)	50 (11.3)	78 (14.0)	44 (6.9)	36 (6.2)	33 (4.9)	43 (7.6)	-7.4	27.9
	금액	94	56	95	51	41	39	54	-5.4	39.0
태국	물량	29 (3.8)	17 (3.8)	59 (10.6)	13 (2.1)	25 (4.2)	33 (4.9)	22 (3.8)	-2.9	-35.3
	금액	38	19	71	15	28	39	29	-2.5	-25.4
2021년 기준 상위 5개국 합계	물량	596 (78.3)	355 (81.1)	407 (73.1)	435 (68.7)	418 (71.5)	473.8 (69.7)	453 (80.3)	-2.7	-4.5
	금액	742	390	483	472	451	535	561	-2.8	5.0
전체	물량	761	439	560	635	589	681	564	-2.9	-17.1
	금액	941	484	647	678	622	751	689	-3.1	-8.3
	단가	1.24	1.10	1.16	1.07	1.06	1.10	1.22	-0.1	10.7

주 1) 2021년 수출량 기준 상위 5개 국가와 한국만 제시함.

2) 괄호 안의 숫자는 인도의 국가별 수출량이 연도별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3) 인도의 팜콩 수출 실적은 HS 120210, 120220, 120230, 120241, 120242를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6. 27.

8. 커피

8.1. 생산 동향

○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1년에 전통적인 커피 주산지를 중심으로 감소했으며, 인도의 커피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2021년 기준 전 세계 커피 생산량은 1,003만 톤으로 연평균 1.7% 증가했으나,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 브라질, 콜롬비아와 에티오피아 등 전통적인 커피 생산국의 2021년 생산량은 브라질의 가뭄과 한파, 콜롬비아의 이상 기후 등으로 전년 대비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세계에서 커피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브라질로 그 비중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29.9%(2021년 기준)를 차지하며, 인도의 커피 생산량은 33만 4천 톤으로 3.3%를 차지한다.

〈표 3-24〉 국가별 커피 생산 동향

단위: 천 톤, %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전체	8,452	9,003	8,964	9,440	10,234	10,910	10,026	1.7	-8.1
브라질	2,701 (31.9)	2,965 (32.9)	2,648 (29.5)	2,685 (28.4)	3,012 (29.4)	3,700 (33.9)	2,994 (29.9)	1.0	-19.1
베트남	1,277 (15.1)	1,327 (14.7)	1,453 (16.2)	1,542 (16.3)	1,687 (16.5)	1,763 (16.2)	1,845 (18.4)	3.8	4.6
인도네시아	639 (7.6)	676 (7.5)	639 (7.1)	718 (7.6)	753 (7.4)	762 (7.0)	765 (7.6)	1.8	0.4
콜롬비아	469 (5.5)	653 (7.3)	828 (9.2)	852 (9.0)	885 (8.6)	833 (7.6)	560 (5.6)	1.8	-32.8
에티오피아	377 (4.5)	392 (4.4)	457 (5.1)	449 (4.8)	483 (4.7)	585 (5.4)	456 (4.5)	1.9	-22.0
인도	302 (3.6)	318 (3.5)	327 (3.6)	312 (3.3)	320 (3.1)	298 (2.7)	334 (3.3)	1.0	12.1

주 1) 2021년 생산량 기준 상위 5개 국가와 인도만 제시함.

2) 괄호 안의 숫자는 국가별 생산량이 연도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7. 3.

○ 인도의 커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인도의 커피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41만 7천 ha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 재배면적은 42만 3천 ha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 인도 커피 생산량은 2011년 이후 3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전년 대비 10.8% 증가하면서 커피 생산량도 전년 대비 12.1%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33만 4천 톤을 기록했다.

〈표 3-25〉 인도의 커피 생산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kg/ha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재배면적	360	376	423	449	417	418	423	1.6	1.1
생산량	302	318	327	312	320	298	334	1.0	12.1
단위면적당 생산량	838	846	773	694	767	713	790	-0.6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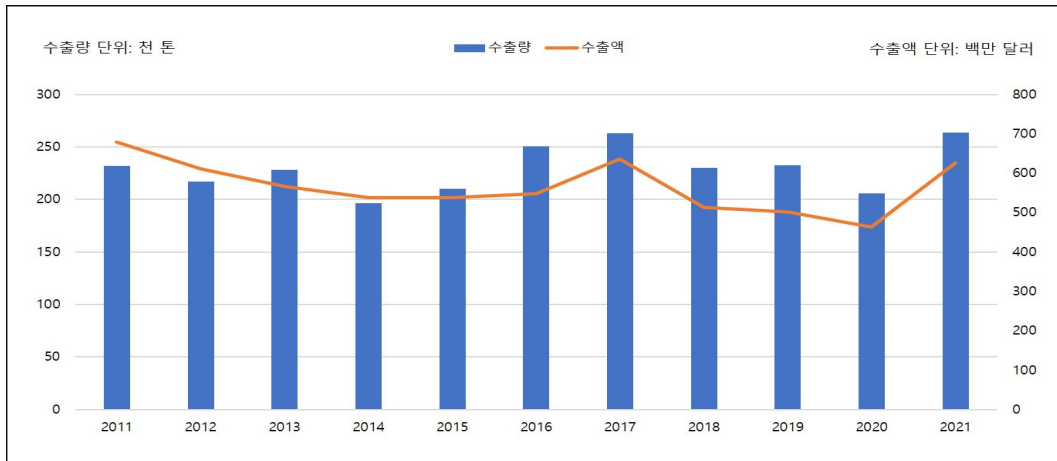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7. 3.

8.2. 수출 동향

○ 인도의 커피 수출량은 2011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0년 이후 다시 반등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2021년 인도의 커피 수출량은 26만 4천 톤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1.3% 증가했으며, 전년보다도 28.1% 증가했다.
- 2021년 인도의 커피 수출액은 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5.3%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림 3-7〉 인도의 커피 수출 동향



주: 커피 수출 실적은 HS 090111, 090112, 090121, 090122를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6. 27.

○ 인도는 커피를 이탈리아,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 국가로 주로 수출하며, 최근 들어 요르단과 리비아 등 중동 국가로의 수출량을 늘리고 있다.

- 인도의 對이탈리아 커피 수출량은 2011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 수출량은 6만 7천 톤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했다. 2021년 인도의 對이탈리아 커피 수출량은 과거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25.5%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 2021년 인도의 對요르단과 對리비아 커피 수출량은 각각 1만 4천 톤과 1만 1천 톤으로 2011년 이후 연평균 각각 6.8%와 17.7%씩 증가했으며, 전년에 비해서도 각각 66.4%와 50.8%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이슬람국가의 금주에 따른 대체 소비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사회활동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⁸⁾
- 인도의 對한국 커피 수출량은 2011년 2,355톤에서 연평균 4.7%씩 증가하여 2021년 3,744톤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對한국 커피 수출량 비중은 평균적으로 2% 이하의 수준에 불과하다.

〈표 3-26〉 인도의 국가별 커피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 달러/kg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이탈리아	물량	64 (27.8)	81 (35.3)	74 (35.1)	77 (29.2)	71 (30.4)	58 (27.9)	67 (25.5)	0.5	17.2
	금액	183	194	177	172	140	113	133	-3.1	17.3
독일	물량	38 (16.3)	30 (13.0)	25 (12.0)	39 (14.9)	36 (15.6)	32 (15.5)	33 (12.5)	-1.3	3.5
	금액	122	75	68	98	81	73	77	-4.5	5.2
벨기에	물량	22 (9.3)	18 (8.0)	15 (7.1)	17 (6.3)	19 (8.1)	22 (10.4)	29 (10.9)	3.0	34.1
	금액	69	51	42	51	45	51	85	2.2	68.3
요르단	물량	7.1 (3.1)	10 (4.3)	8.0 (3.8)	9.0 (3.4)	8.7 (3.7)	8.2 (4.0)	14 (5.2)	6.8	66.4
	금액	22	27	28	25	22	27	44	7.3	63.6

28) 식품음료신문(2021. 11. 25.), “중동 이슬람, 술 대신 무알코올·커피음료에 열광”.

(계속)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리비아	물량	2.2 (1.0)	6.5 (2.9)	7.0 (3.3)	10 (3.7)	7.3 (3.2)	7.5 (3.7)	11 (4.3)	17.7	50.8
	금액	5.3	14	15	22	15	15	21	14.9	44.1
한국	물량	2.4 (1.0)	1.0 (0.4)	4.4 (2.1)	4.2 (1.6)	4.0 (1.7)	4.3 (2.1)	3.7 (1.4)	4.7	-13.5
	금액	13	2.8	11	9.0	8.8	9.1	8.8	-3.7	-2.3
2021년 기준 상위 5개국 합계	물량	133 (57.3)	145 (63.5)	129 (61.4)	151 (57.5)	142 (61.0)	126.7 (61.5)	154 (58.5)	1.5	21.8
	금액	401	361	330	369	303	279	361	-1.0	29.2
전체	물량	232	228	210	263	233	206	264	1.3	28.1
	금액	679	566	539	636	501	463	626	-0.8	35.3
	단가	2.93	2.48	2.57	2.42	2.15	2.25	2.37	-2.1	5.6

주 1) 2021년 수출량 기준 상위 5개 국가와 한국만 제시함.

2) 괄호 안의 숫자는 인도의 국가별 수출량이 연도별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3) 커피 수출 실적은 HS 090111, 090112, 090121, 090122를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6. 27.

9. 참깨

9.1. 생산 동향

○ 전 세계 참깨 생산량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도의 참깨 생산량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 2021년 기준 전 세계 참깨 생산량은 681만 톤으로 연평균 2.5% 증가했으나, 전년보다 6.6% 감소했다.
- 세계에서 참깨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수단으로 그 비중은 세계 전체 생산량의 16.4%를 차지하며, 2021년 생산량은 112만 톤으로 전년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인도의 참깨 생산량은 81만 7천 톤으로 전년 대비 24.3% 증가했으며, 전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수단의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3.0%p 상승한 12.0%를 차지한다.

〈표 3-27〉 국가별 참깨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전체	5,319	6,003	5,969	6,085	7,050	7,293	6,812	2.5	-6.6
수단	-	562 (9.4)	329 (5.5)	781 (12.8)	1,210 (17.2)	1,525 (20.9)	1,119 (16.4)	-	-26.6
인도	810 (15.2)	715 (11.9)	850 (14.2)	747 (12.3)	689 (9.8)	658 (9.0)	817 (12.0)	0.1	24.3
탄자니아	357 (6.7)	420 (7.0)	680 (11.4)	620 (10.2)	680 (9.6)	710 (9.7)	700 (10.3)	7.0	-1.4
미얀마	832 (15.6)	817 (13.6)	828 (13.9)	764 (12.6)	744 (10.6)	658 (9.0)	642 (9.4)	-2.6	-2.5
중국(본토)	605 (11.4)	623 (10.4)	450 (7.5)	367 (6.0)	467 (6.6)	457 (6.3)	455 (6.7)	-2.8	-0.3

주 1) 2021년 생산량 기준 상위 5개 국가만 제시함.

2) 괄호 안의 숫자는 국가별 생산량이 연도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7. 3.

○ 인도의 참깨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체적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1년에는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깨 재배면적은 2011년 190만 2천 ha에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1년 181만 ha로 전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깨 생산량은 2011년 81만 톤에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3% 증가 81만 7천 톤으로 201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다.
- 참깨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11년 ha당 426kg에서 2019년 ha당 485kg까지 증가했다. 참깨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2020년에 ha당 4.1kg까지 감소한 이후 2021년에는 ha당 4.5kg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인도의 참깨 생산 동향

단위: 천 ha, 천 톤, kg/ha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재배면적	1,902	1,678	1,947	1,667	1,420	1,623	1,810	-0.5	11.5
생산량	810	715	850	747	689	658	817	0.1	24.3
단위면적당 생산량	426	426	437	448	485	405	452	0.6	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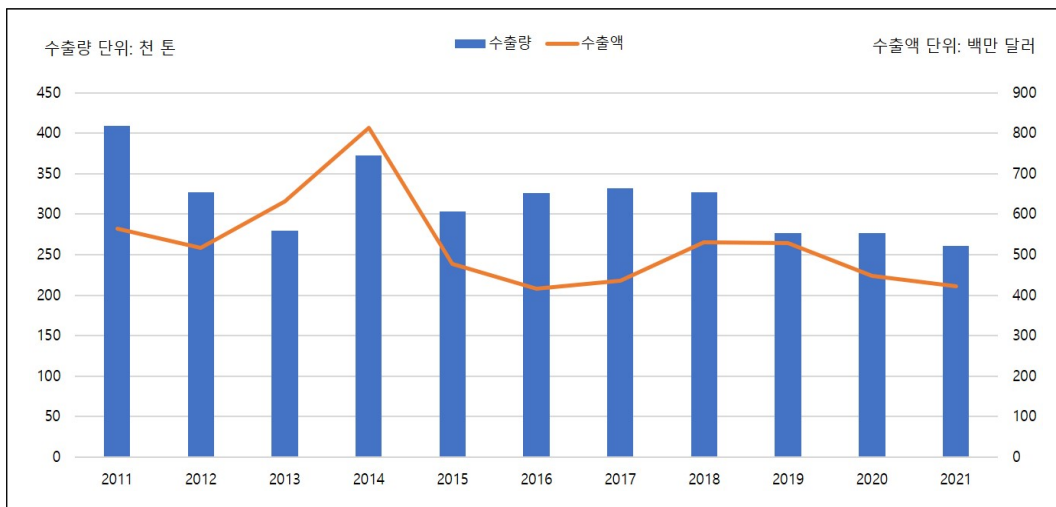
자료: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7. 3.

9.2. 수출 동향

○ 인도의 참깨 수출량은 2011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 2021년 인도의 참깨 수출량은 26만 톤으로 연평균 4.4%, 전년 대비 5.7% 감소했으며, 수출액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2021년에는 전년 대비 5.9% 감소한 4억 달러를 기록했다.

〈그림 3-8〉 인도의 참깨 수출 동향



주: 참깨 수출 실적은 HS 120740을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6. 27.

○ 인도는 참깨를 주로 한국에 수출하며, 나머지 국가로의 수출 비율은 10% 미만 수준이다.

- 인도의 對한국 참깨 수출량은 2013년 이후 매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2021년에는 17.8%의 가장 큰 비율을 기록했다. 2021년 인도의 對한국 참깨 수출량은 4만 6천 톤으로 58.4%의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한국의 참깨 재배 시기에 50여 일 이상 지속된 장마에 따른 병충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TRQ 증량 등을 통해 인도산 참깨 수입을 늘렸기 때문이다.²⁹⁾
- 2011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던 미국과 베트남으로의 참깨 수출량은 2021년에 전년 대비 각각 2.1%와 33.2% 증가한 2만 3천 톤과 1만 4천 톤을 기록했다.
- 인도의 對중국 참깨 수출량은 2019년 1,657톤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0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2021년 對중국 참깨 수출량은 역대 최고치이자 전년 대비 129.8% 증가한 1만 8천 톤을 기록했으며, 이는 중국의 생산량 감소로 수입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29〉 인도의 국가별 참깨 수출 동향

단위: 천 톤, 백만 달러, 달러/kg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한국	물량	34 (8.4)	34 (12.2)	38 (12.5)	31 (9.5)	20 (7.2)	29 (10.6)	46 (17.8)	3.0	58.4
	금액	61	80	54	37	35	40	66	0.9	64.4
미국	물량	35 (8.5)	19 (6.8)	17 (5.7)	20 (6.0)	19 (6.9)	22 (8.1)	23 (8.8)	-4.1	2.1
	금액	40	47	32	29	41	41	41	0.4	1.2
중국	물량	13 (3.1)	3.1 (1.1)	7.1 (2.3)	6.8 (2.1)	1.7 (0.6)	8.0 (2.9)	18 (7.0)	3.8	129.8
	금액	14	4.9	8.0	8.4	2.8	13	34	9.0	164.3
러시아	물량	5.5 (1.3)	8.4 (3.0)	9.4 (3.1)	13 (4.0)	14 (5.0)	13 (4.7)	16 (6.3)	11.6	26.4
	금액	8.7	21	16	25	28	21	27	12.1	26.9

²⁹⁾ 한국농어민신문(2022. 8. 5.), “‘물가관리’ 뒷에 걸린 참깨…산지 생산기반 또 흔들다”.

(계속)

구 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20	2021	변화율(%)	
									'11~'21 연평균	'21/'20
베트남	물량	86 (21.0)	27 (9.6)	39 (12.9)	58 (17.5)	18 (6.4)	10 (3.7)	14 (5.2)	-16.8	33.2
	금액	116	54	55	68	29	14	17	-17.3	19.9
2021년 기준 상위 5개국 합계	물량	173 (42.3)	92 (32.8)	111 (36.6)	129 (39.0)	72 (26.1)	82.9 (30.0)	118 (45.2)	-3.8	41.9
	금액	239	205	165	168	135	130	186	-2.5	43.3
전체	물량	409	280	304	332	276	276	260	-4.4	-5.7
	금액	564	632	478	435	529	448	422	-2.9	-5.9
	단가	1.38	2.26	1.57	1.31	1.91	1.62	1.62	1.6	-0.2

주 1) 2021년 수출량 기준 상위 5개 국가만 제시함.

2) 괄호 안의 숫자는 인도의 국가별 수출량이 연도별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냄.

3) 참깨 수출 실적은 HS 120740을 기준으로 집계함.

자료: UN Comtrade Database(<http://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6. 27.

4

인도 농업 관련 정책 현황³⁰⁾

1. 인도 농업정책 개요

- 인도의 농업은 각 주 정부가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도 중앙정부는 농업 생산 및 생산성 증진을 위한 정책과 국제 통상 정책을 지원한다.
- 중앙정부에서는 MoA&FW가 농업정책 구상과 농업 생산 및 교역 증진을 담당하고 있다. MoA&FW는 생산, 수확 전 농약처리(Pre-harvest), 농촌 환경 개선 관련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식품가공산업부는 부가가치 생산 활동, 수확 후 손실(Post-harvest Losses), 농외소득 활동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한다.
- 2019년에 농업부와 식품가공산업부에서 분리되어 설립된 축산·낙농·수산업부는 축산, 보존, 가축 질병 예방, 수산업에 관련된 정책을 담당한다.

³⁰⁾ WTO의 “Trade Policy Review: India” WT/TPR/S/403/Rev.1, MoA&FW의 “Annual Report 2022-2023”, USDA Foreign Agriculture Service의 인도 관련 보고서 등을 참고함.

〈표 4-1〉 인도의 농업정책 구상 및 실행 기구

명칭	역할
농업농민복지부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armers' Welfare)	농업생산과 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 및 실행
농산물가격위원회 (Commission for Agricultural Costs and Prices: CACP)	정부에 매년 22개 농산물의 최소지원가격제도(Minimum Support Prices) 권고
화학·비료부 비료청 (Department of Fertilizers, Ministry of Chemicals and Fertilizers)	비료 산업 촉진 및 발전 도모, 생산, 수입, 보조금의 배분과 관리 계획 및 감시
소비자·식품·공공유통부 식품·공공유통청 (Department of Food and Public Distribution, 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and Public Distribution)	식용 곡물의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인 조달과 유통을 통해 식량안보 확보, 설탕 관련 정책 구상, 식용 곡물, 설탕, 식용유의 수출입
인도식품공사 (Food Corporation of India: FCI)	농민들에게 효과적인 가격지지 제공, 식용 곡물의 공공 유통 확보, 식량안보 달성을 위한 식용 곡물의 충분한 작전용 및 완충 재고 유지
중앙창고공사 (Central Warehousing Corporation: CWC)	식량 곡물의 재고 유지 등 인도식품공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창고 제공
인도농산물협동유통연맹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Marketing Federation of India Ltd: NAFED)	농산물의 공동판매(cooperative marketing)를 촉진
전자 국가농업마켓 (Electronic National Agriculture Market: ENAM)	농산물시장위원회가 관리하는 농산물도매시장(mandis)을 연결하고 국가적으로 통합된 농산물 시장 조성을 위한 전자 상거래 포털 제공
인도면화공사 (Cotton Corporation of India)	면화 재배자를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 제공
인도황마공사 (Jute Corporation of India)	황마 재배자를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 제공
식물보호 검역 및 저장 담당국 (Directorate of Plant Protection, Quarantine and Storage)	수출입 농식품 검역, 식물 검역
축산·낙농·수산부 (Ministry of Fisheries, Animal Husbandry and Dairying)	축산, 보존, 질병 예방, 수산업에 관련된 정책 구상
식품가공산업부 (Ministry of Food Processing Industries)	투자를 촉진하여 부가가치 상품 개발 지원
농식품 수출개발청 (Agricultural and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APEDA)	원예생산물 수출 촉진
수자원부 (Ministry of Jal Shakti)	관개 사업을 포함한 수자원 사용의 관리
상공부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ies)	국제 무역 정책 구상

주: 정부 부처 및 단체의 한글 명칭은 주뭄바이 대사관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자료를 참고함.
 자료: WTO(2021), "Trade Policy Review: India(WT/TPR/S/403/Rev.1)".

- 인도 정부의 농업 관련 정책은 소비자에게는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인도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수물품법(Essential Commodities Act)’을 근거로 식용유 및 종자와 야생 황마와 같은 특정 상품의 생산, 공급, 유통, 교역 등을 제한한다.
 - 또한, 인도 정부는 내수 시장으로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입·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하며, 보조금과 가격 보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인도의 생산 정책은 내수 시장의 가격 안정과 식량안보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정책으로는 투입재 지원(Input Support), 지지 가격(Support Price), 조달 및 공공 유통(Procurement and Public Distribution)이 있다.
 - 투입재 지원, 지지 가격, 조달 및 공공유통 제도는 농업 생산부문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도 정부의 식량 관련 보조금은 인도 정부 전체 직접 보조금 규모의 절반을 차지한다.
- 인도 정부는 투입재 지원 정책을 통해 농부들에게 종자, 비료, 관개, 전기 등을 제공한다.
 - 비료 산업은 1955년에 제정된 ‘필수물품법’의 비료 통제 명령(Fertilizer Control Order)에 따른 가격 통제를 통해서 보조를 받는데, 최고 소매가격과 생산 가격의 차이만큼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³¹⁾
 - 또한, 정부는 농부들이 인증된 고품질 종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수물품법」에 따라서 가격이 통제되는 종자 산업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농업용 전기도 지방 정부에 따라서 무료 혹은 낮은 요금으로 공급된다.
- 지지 가격(Support Prices) 제도를 통해 정부는 작물 재배 시기에 22종 작물의 최소지원가격(Minimum Support Prices: MSP)을 발표하고, 시장 가격이 최소지원가격보다 낮으면 농부들에게 수매를 제안한다.

³¹⁾ 예산 규모로 보면, 인도 직접 보조금 예산의 25%가 비료 산업에 지급됨.

- 22종 작물은 농산물가격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최소지원가격은 수급, 생산비, 가격 추세, 농산물과 비농산물 간의 교역 조건 등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이 중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생산비는 모든 주의 생산비의 가중 평균으로 결정된다.
- 정부는 최소지원가격제도의 대상 작물을 최소지원가격으로 구매하지만, 시장 가격이 더 높은 경우에 농민들이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 인도의 식량작물은 인도 중앙정부의 조달 및 공공 유통 정책을 통해 공공 유통되거나 지방 정부에 최소지원가격보다 낮은 정부 제시 가격(Central Issue Price)으로 판매된다.

- 인도 정부의 식량 보조 규모는 정부 제시 가격에 공공 조달, 저장, 운송 비용을 합한 가격을 최소지원가격에서 뺀 차액이다. 주 정부는 정부 제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곡물을 유통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차액만큼은 주 정부 보조가 된다.
- 우선 곡물이 각 주에 배분되면 주 정부가 곡물을 저장시설에서부터 ‘공정 가격 점포 (Fair Price Shops)’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운송을 담당한다.

○ 인도 정부의 농업 통상 정책으로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수입 관련 조치와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하는 조치가 있다.

- 인도 농식품 수출 정책의 주목적은 인도의 농식품 수출액 1천억 달러 달성, 수출 품목과 수출 대상국의 다양화,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촉진, 유기농 및 전통 상품 수출 촉진, 시장접근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무역 장벽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대응, 글로벌 가치 사슬 편입을 통한 인도의 수출 점유율 두 배 달성 등이다.
-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을 위해서 인도 정부는 기반시설 정비, 농업뿐만 아니라 연구, 공공 유통, 운송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와 주 정부의 개입을 권고한다. 또한, 주요 농산물의 국내 공급을 규제하기 위해서 수출세, 수출 제한 및 금지, 최저수출가격, 국영 무역 정책이 적용된다.
- 인도의 수입 규제 조치로는 관세, 관세율할당(Tariff Rate Quotas), 최저수입가격, 수입 허가서와 수입 금지, 국영 무역 등이 있다.

2. 인도 농업 생산 정책³²⁾

2.1. 농업인 소득지지 정책

2.1.1. 농민 소득 2배 증가 정책

○ 인도 정부는 ‘농민 소득 2배 증가(Doubling Farmers’ Income: DFI)’ 정책과 관련된 현안을 다루고 달성 전략을 추천하기 위해서 부처 간 위원회를 구성했다.

- 부처 간 위원회는 2016년 4월에 구성되었고, 2018년에 7가지 포괄적 전략을 다룬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 부처 간 위원회는 작물 생산성 증가, 축산 생산성 증가, 자원 이용 효율화, 작부 밀도 증가, 고(高)가치 농업의 다양화, 농업 생산물의 가격 증진, 잉여 노동력의 농업으로 부터 타 산업으로의 재배치 등 7가지 소득 증대 방안을 제시했다.

○ 인도 정부는 농민 소득 2배 증가 위원회(The Committee on Doubling Farmers’ Income)의 전략과 더불어 고소득 창출에 초점을 둔 정책과 개혁을 추진했다.

- 인도 정부는 투입재 사용 합리화를 통한 비용 절감, 생산 증가, 소득 지원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 인도 정부의 접근 방식은 부처 간 위원회가 제시한 소득 증대 방안의 방향과 일치하며, 세부 계획은 새로운 정책 및 기존 정책의 개정으로 구성된다<표 4-2>.

〈표 4-2〉 인도 정부의 농민 소득 2배 증가를 위한 계획

구분	내용
최소지원가격제도(MSPs) 개정	생산비 대비 최소 50%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작물의 최소지원가격 인상
농민임금지원제도(PM-KISAN)	농민임금지원제도를 통한 보충적인 소득 이전
인도 농작물 보험(PMFBY)	농작물 보험 제도

³²⁾ 본 절에서는 농업정책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면서 인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 농업인 소득지지 정책과 전자정부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봄.

(계속)

구분	내용
식품가공산업진흥정책(PMKSY)	관개시설의 접근성 개선
농업 기반시설 펀드 (Agriculture Infrastructure Fund)	1조 루피 규모의 농업 기반시설 펀드를 통한 사회 기반시설 창출에 대한 집중
PM-AASHA	인도식품공사 운영에 더해 PM-AASHA를 통한 새로운 공공조달 정책
소농 신용 카드 제도 (Kisan Credit Card)	농작물뿐만 아니라 유제품 및 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대상의 생산물 담보 대출
농업 분야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 계획 (National Miss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서 더욱 회복력 있는 인도 농업을 만들기 위한 전략 실행
-	농업생산자단체(Farmer Producer Organizations: FPO) 1만 개 설립 및 홍보
-	인도 농업 개혁의 잠재력을 가진 드론 기술 채택
-	양봉, 푸른 혁명(blue revolution, 수산업 생산량 증가), 이자 보조 계획, 혼농임업, 개정된 대나무 계획(bamboo mission, 산업의 원자재로 이용되는 대나무 재배 활성화), 차세대 분수령 지침 실행 등으로 누적된 이득
-	농업 가치 사슬의 전 단계에서 전자 기술 적용에 중점
-	농민의 생산비가 감소하도록 보조받은 가격으로 비료 제공

자료: MoA&FW(2023), "Annual Report 2022-2023".

○ 인도 정부의 농민 소득 2배 증가를 위한 모든 정책과 계획은 예산 증액 및 기부금 펀드와 같은 재정 자원을 통해서 지원된다.

- 농민 소득 2배 증가 예산은 2013년 2,193억 3천만 루피에서 2022년 1조 2,400억 루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소관개 펀드(Micro Irrigation Fund)나 농업 기반시설 펀드(Agriculture Infrastructure Fund) 등의 기부금 펀드와 같은 비예산성 재정 자원이 활용된다.

○ 농업 기반시설 펀드는 수확 후(Post-harvest) 관리 기반시설 설치와 공동 농업 자산 설치를 위한 계획에 이자 보조와 신용 보증 지원을 통해 중장기 채권 금융을 제공한다.

- 농업 기반시설 펀드는 2020년부터 2032년까지 운영될 계획이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조 루피 규모의 대출이 은행과 기관을 통해서 실행될 예정이다. 이자 보조는 7년 동안 연간 2천만 루피 한도에서 원금의 3%를 보조한다.
- 수확 후 관리 기반시설은 건조냉장 기반시설, 숙성 시설, 창고, 1차 처리 센터, 분석시

협 기구, 저온 유통 체계, 물류 시설 및 전자 상거래 플랫폼 등의 공급망 기반시설이 포함된다.

- 또한, 인도 정부는 공동 농업 자산인 작물성장촉진제 생산, 경작/수확 자동화, 스마트 농업을 위한 기반시설, 원격제어 및 사물인터넷 기반 농업 기반시설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 2023년 1월 기준으로 1,528억 7천만 루피의 펀드가 2만 710개의 농업 기반시설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추후 3,110억 2천만 루피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 본 절에서는 농민 소득 2배 증가를 위한 계획 중 MoA&FW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농민임금지원제도(Pradhan Mantri Kisan Samman Nidhi: PM-KISAN)와 최소지원가격제도(Minimum Support Price: MSP)를 소개하고자 한다.

- 농민임금지원제도는 농민 소득 2배 증가를 위한 계획을 통해 새로 시행된 정책이다.
- 최소지원가격제도(1960년대 중반 도입)는 농민 소득 2배 증가를 위한 계획을 통해 최소지원가격제도 대상 작물의 수익이 인도 전역의 농업 생산비의 가중 평균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2018년에 개정되었다.

2.1.2. 농민임금지원제도

○ 농민임금지원제도(Pradhan Mantri Kisan Samman Nidhi: PM-KISAN)는 인도 정부가 농가 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2월부터 영세 소농(토지 2ha 이하 소유자)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책이며, 2019년 4월부터는 토지 소유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 농민임금지원제도(PM-KISAN)는 농민이 농업 및 관련 활동에 연관된 비용을 관리하도록 하여 고금리 사채 사용을 예방하고 농업을 지속할 수 있게 재정적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동 제도의 지원금 지급방식은 1인당 연간 6,000루피를 4개월마다 2,000루피씩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 토지를 소유한 모든 농가의 구성원이 농민임금지원제도(PM-KISAN)의 적용 대상이지만, 고소득 농민의 경우 농민임금지원제도(PM-KISAN)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 기관이 토지를 소유한 경우, 농가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전·현직 장관 혹은 공무원 등인 경우, 1961년 소득세법에 따라 인도에 거주하지 않는 토지 소유자인 경우 등은 농민임금지원제도(PM-KISAN)의 지원에서 배제된다.

〈표 4-3〉 농민임금지원제도(PM-KISAN)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구분	내용
기관	기관에서 토지를 소유한 모든 경우
농가 구성원 지위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전·현직 헌법기관의 직책 보유자
	전·현직 장관/주 정부 장관, 현직 하원 및 상원 의원, 현직 입법부/입법 심의회 구성원, 전·현직 지방자치단체 장, 전·현직 지방 공공기관 장
	중앙 부처/주 정부 부처/부속기관/정부 산하의 독립 기관 등의 전·현직 직원
	연금 수령액이 월 10,000루피 이상인 은퇴한 연금 수령자
	지난 평가 대상 연도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거주 지역	의사, 기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와 같은 전문직
	토지를 소유한 농가 구성원 모두가 1961년 소득세법에 따라 인도에 거주하지 않는 자인 경우

자료: MoA&FW(2023), "Annual Report 2022-2023".

○ 인도의 농민임금지원제도(PM-KISAN)에 의한 지원은 2018년 12월부터 2022년 11월 까지 총 12차례 이루어졌으며, 지원 현황은 증가 추세를 보이다 제12차에 감소했다.

- 제2차 지원 금액은 지원 대상의 확대로 인해 제1차 지원보다 약 2배로 증가했다.
-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차수는 제11차로 전체 수혜자 수는 1억 456만 명이고, 지원 금액은 2,255억 2천만 루피이다.

〈표 4-4〉 인도의 농민임금지원제도(PM-KISAN) 지원 현황

단위: 천 명, 백만 루피

차수	기간	수혜자 수	지원 금액
1	2018년 12월~2019년 3월	31,614	63,229
2	2019년 4월~7월	60,033	132,716
3	2019년 8월~11월	76,596	175,260
4	2019년 12월~2020년 3월	82,005	179,256
5	2020년 4월~7월	92,681	209,867
6	2020년 8월~11월	97,193	204,692
7	2020년 12월~2021년 3월	98,459	204,715
8	2021년 4월~7월	99,782	223,280
9	2021년 8월~11월	103,408	223,854
10	2021년 12월~2022년 3월	104,125	223,186
11	2022년 4월~7월	104,560	225,520
12	2022년 8월~11월	84,214	174,435

자료: MoA&FW(2023), "Annual Report 2022-2023".

2.1.3. 최소지원가격제도

○ 최소지원가격제도(Minimum Support Price: MSP)의 목적은 주요 농작물을 대상으로 농업인들에게 이윤이 남는 가격을 보장하여 투자와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농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³³⁾

- 최소지원가격제도 지원 대상 22종 작물의 MSP는 농산물가격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22종 작물은 카리프(Kharif) 작물 14종, 라비(Rabi) 작물 6종, 황마와 말린 코코넛 과육(Copra)으로 구성된다.³⁴⁾
- 농산물가격위원회가 MSP를 권고할 때 생산비, 내수 및 세계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 국내 및 국제 가격, 곡물 간 가격 평형, 농업 분야와 비농업 분야의 교역 조건, 가격 정책이 경제에 미칠 잠재 영향, 생산비 대비 최소 50%의 수익률 $[(MSP-생산비)/생산비 \times 100]$ 을 고려한다.

33) MSP는 정부가 공공 조달을 시행하는 지역과 품목에 대해서만 최소지원가격이 적용되는 한계가 존재함(NITI Aayog, 2015).

34) 인도의 농작물 재배 시기는 주로 쌀을 재배하는 4월부터 9월까지의 카리프(Kharif) 시즌과 주로 밀이나 콩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10월부터 3월까지의 라비(Rabi) 시즌으로 구분됨(원지은, 2019).

○ 인도 정부는 2018년에 MSP의 적용을 받는 작물의 수익이 인도 전역의 농업 생산비의 가중 평균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MSP를 인상했다. 이와 같은 가격지지 정책의 차원에서 인도 정부는 2022년에 모든 카리프(Kharif) 작물과 라비(Rabi) 작물의 MSP 인상을 발표했다.

- 라비(Rabi) 작물 중 2022년 MSP 상승 폭이 가장 큰 작물은 렌틸콩(500루피/100kg)이며, 다음으로 유채/겨자, 잇꽃³⁵⁾, 밀, 보리, 병아리콩 순이다. 수익률은 유채/겨자(104%)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밀, 렌틸콩, 병아리콩, 보리, 잇꽃 순이다.
- 카리프(Kharif) 작물 중 2022년 MSP 증가폭이 가장 큰 작물은 참깨(523루피/100kg)이며, 다음으로 녹두(480루피/100kg)와 해바라기씨(385루피/100kg)가 높은 상승 폭을 보인다. 수익률은 진주조³⁶⁾가 85.3%로 가장 높고, 나머지 작물들도 모두 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한다.

〈표 4-5〉 최소지원가격제도 대상 농작물의 생산비, MSP 및 수익률

단위: 루피/100kg

구분		2021년(A)			2022년(B)			증감(B-A)		
		생산비	MSP	수익률 (%)	생산비	MSP	수익률 (%)	생산비	MSP	수익률 (%p)
카 리 프 작 물	벼(paddy)	1,293	1,940	50.0	1,360	2,040	50.0	67	100	0
	팔수수(jowar)	1,825	2,738	50.0	1,977	2,970	50.2	152	232	0.2
	진주조(bajra)	1,213	2,250	85.5	1,268	2,350	85.3	55	100	-0.2
	손가락조(ragi)	2,251	3,377	50.0	2,385	3,578	50.0	134	201	0
	옥수수(maize)	1,246	1,870	62.1	1,308	1,962	50.0	62	92	-12.1
	비둘기콩(arhar)	3,886	6,300	50.0	4,131	6,600	59.8	245	300	9.8
	녹두(moong)	4,850	7,275	65.1	5,167	7,755	50.1	317	480	-15
	우라드콩(urad)	3,816	6,300	50.0	4,155	6,600	58.8	339	300	8.8
	면화(cotton)	3,817	5,726	50.0	4,053	6,080	50.0	236	354	0

35) 잇꽃은 엉거시과에 속하는 일년초로 7~8월에 홍황색의 꽃이 줄기 끝과 가지 끝에 핏. 종자는 채유용, 꽃은 꽃물을 짜서 홍색 물감(식품, 화장품 등의 천연 착색료)으로 쓰임(농촌진흥청 농사로(<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q/psqb/farmTermSimpleDicLst.ps?menuId=PS00064&searchTagWord=%EC%9E%87%EA%BD%83&sWordNm=%EC%9E%87%EA%BD%83>), 검색일: 2023. 10. 18.).

36) 진주조(pearl millet)은 벼과(科) 수크령속(屬)의 키가 큰 초본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미국 남부에서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재배됨(네이버 사전(<https://en.dict.naver.com/#/entry/enko/8ebc2af518034cb2b9ecf3e11d49abde>), 검색일: 2023. 10. 18.).

(계속)

구분		2021년(A)			2022년(B)			증감(B-A)		
		생산비	MSP	수익률 (%)	생산비	MSP	수익률 (%)	생산비	MSP	수익률 (%p)
	미탈각 땅콩 (groundnut in shell)	3,669	5,550	50.0	3,873	5,850	51.0	204	300	1
	해바라기씨 (sunflower seed)	4,010	6,015	50.0	4,113	6,400	55.6	103	385	5.6
	대두(soyabean)	2,633	3,950	50.0	2,805	4,300	53.3	172	350	3.3
	참깨(sesamum)	4,871	7,307	50.0	5,220	7,830	50.0	349	523	0
	니제르시드 (nigerseed)	4,620	6,930	50.0	4,858	7,287	50.0	238	357	0
라 비 작 물	밀(wheat)	1,008	2,015	99.9	1,065	2,125	99.5	57	110	-0.4
	보리(barley)	1,019	1,635	60.5	1,082	1,735	60.4	63	100	-0.1
	병아리콩(gram)	3,004	5,230	74.1	3,206	5,335	66.4	202	105	-7.7
	렌틸콩(masur)	3,079	5,500	78.6	3,239	6,000	85.2	160	500	6.6
	유채/겨자 (rapeseed/mustard)	2,523	5,050	100.2	2,670	5,450	104.1	147	400	3.9
	잇꽃(safflower)	3,627	5,441	50.0	3,765	5,650	50.0	138	209	0

주: 생산비는 인건비, 소 및 기계 노동비, 지대, 종자 및 비료 등 모든 재료 투입비, 감가상각비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함.

자료: MoA&FW(2023), "Annual Report 2022-2023".

2.2. 인도의 농업 분야 전자정부 정책

○ 인도의 농업 분야 전자정부(National e-Governance Plan in Agriculture: NeGP-A) 정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농민들이 적기에 농업 관련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인도 농업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농업인이 적시에 농업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면 손실 발생의 위험이 있기에, 인도의 농업 분야에서는 실시간 정보의 적시 이용가능성이 지속적인 과제이다.
- 이에 따라 인도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보가 필요한 시점과 실제로 농민들이 정보를 접하는 시점의 차이를 전자정부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인도의 농업 분야 전자정부는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농민 소득 2배 증가를 위한 부처 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원계획을 확대했다.³⁷⁾

- 농업 분야 전자정부 정책은 7개 주에 전자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 전자정부 정책의 기금은 주 정부에 의해 이미 개발된 웹 및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인공지능, 머신 러닝,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플랫폼으로 개별화 및 이전시키는 프로젝트에 배정되었다.
- 2021년 인도 정부가 농업 분야 전자정부를 위해 승인한 실험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4-6〉 2022년 인도의 전자정부 실행 실험(pilot) 계획

지역	계획명
시킴(Sikkim)	시킴(Sikkim) 농업 자원 및 관리 체계
우카라칸드(Uttarakhand)	농업 통계, 농지 이용 통계, 마을부터 주 단위의 작물 재배 현황의 전산화된 보고 지리정보시스템(GIS), 원격 탐사,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플랫폼의 설계, 개발, 설치 및 위탁
나갈랜드(Nagaland)	토양 및 수자원 관리, 원격 탐사, 지리정보시스템 매핑(mapping), 드론과 인도 정부의 전자정부 실행 계획(NeGPA) 하의 신기술을 활용한 기상 분석 및 예측 체계
메갈라야(Meghalaya)	농업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타밀 나두(Tamil Nadu)	통합된 농업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루나찰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적응력이 높은 농업/아루나찰프라데시의 전자화를 활용한 농업 생산 공급망 구축 스마트 해충 방제 체계 겸 지리 정보적 농업 정보 시스템 개발
미조람(Mizoram)	농업 발전을 위한 공간정보 분석 및 결정 지원 체계 구축
하리아나(Haryana)	농업 분야에서 급부상하는 신기술 시행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User Datagram Protocol을 이용한 응용체계 시행
편자브(Punjab)	사물인터넷과 위성 원격 탐사를 이용하여 상이한 농업기후 지역의 지하수 단위 건인력 측정 수자원 예산 배정
오디샤(disha)	오디샤 지역 농업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 MoA&FW(2023), "Annual Report 2022-2023".

37) 인도의 농업 분야 전자정부 지침은 농민 소득 2배 증가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2020년에 개정된 바 있음.

3. 인도 농업 통상 정책

3.1. 인도의 농식품 수출 관련 정책

3.1.1. 인도의 농업 수출 정책³⁸⁾ 개요

○ 인도 정부는 2018년 12월 승인된 인도 상공부(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MoCI)의 농업 수출 정책(Agriculture Export Policy)을 통해 수출 정책의 목표와 주요 전략을 수립했다.

- 인도의 농업 수출 정책은 인도의 농업 수출 잠재력을 활용해 인도를 글로벌 농업 강국으로 만들고 농민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비전하에 농업 수출액 증가 등 여섯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표 4-7〉 인도 농업 수출 정책 목표

구분	내용
1	안정적 수출 정책을 통해 농업 수출은 2018년 300억 달러에서 2022년까지 600억 달러로 두 배 증가, 향후 몇 년 내에 1,000억 달러 달성
2	수출 상품 및 목적지를 다각화하고 고가치 및 고부가가치 농식품 수출 촉진
3	신(新)식품, 토착식품, 유기농식품, 민족식품, 전통 및 비전통 농식품 수출 촉진
4	시장 접근 촉진과 무역 장벽 해소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제공
5	글로벌 가치 사슬과 신속하게 통합하여 인도의 세계 농식품 수출 점유율 두 배 증가 달성
6	인도 농민들에게 해외시장 수출 기회를 통한 수혜 제공

자료: MoCI(2018), “Agriculture Export Policy”.

○ 인도 정부는 농업 분야에 집중한 수출 정책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사항을 전략적 정책과 운영적 정책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 전략적 정책은 정책적 조치, 기반시설 및 물류 지원, 수출 촉진을 위한 총체적 접근 방식, 농산물 수출에 대한 주 정부의 참여 확대의 4가지 정책이 있다.

³⁸⁾ MoCI(2018)의 “농업 수출 정책(Agriculture Export Policy)”의 내용을 번역 및 정리하여 작성함.

- 운영적 정책은 클러스터 집중, 부가가치 수출 촉진, 'Brand India' 마케팅 및 홍보, 생산 및 가공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강력한 품질 규제 확립, 연구 및 개발, 기타의 7가지 정책으로 구성된다.

〈표 4-8〉 인도 농업 수출 정책 체계

구분	내용
전략	정책적 조치
	기반시설 및 물류 지원
	수출 촉진을 위한 총체적 접근 방식
	농산물 수출에 대한 주 정부의 참여 확대
운영	클러스터 집중
	부가가치 수출 촉진
	'Brand India' 마케팅 및 홍보
	생산 및 가공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
	강력한 품질 규제 확립
	연구 및 개발
	기타

자료: MoCI(2018), "Agriculture Export Policy".

○ 인도 농업 수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정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정책적 조치는 1) 국가의 간섭을 제한하고, 예측할 수 있고 안정적인 무역 정책 마련, 2) 농산물시장위원회(Agricultural Produce Market Committee)의 독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시장 수수료 간소화 및 표준화가 있다.
- 기반시설 및 물류 지원은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동량 파악, 기반시설 및 현대화 계획이 필요한 항구 식별, 농업용 부두 개발, 농산물 및 냉동 유통 설비를 갖춘 철도 개발 등을 지원한다.
- 수출 촉진을 위한 총체적 접근 방식은 인도 정부의 관련 부처가 협동하여 1) 품종 개량, 부가가치, 포장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우수 표준 체제 확립, 3) 인도산 상품에 적용되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및 무역기술장벽 조치에 대한 정부의 통합된 대응 적용, 4) 중점 수출 분야 식별 및 지원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농산물 수출에 대한 주 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1) 농산물 수출 촉진 담당 주 정부 부처 및 기관 파악, 2) 주 정부의 수출 계획에 농산물 수출 분야 포함, 3) 농업 수출 촉진을 위한 주 정부 인프라 및 물류 지원, 4) 주 정부, 클러스터, 농민 협동 조합 단위의 제도적 수출 지원 체계 구축이 있다.

3.1.2 인도의 농식품 수출 촉진 정책³⁹⁾

○ 인도 농식품 수출개발청(Agricultural and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APEDA)이 주도하는 수출 촉진 계획은 농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출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인도 농식품 수출개발청(APEDA)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개발청법(Agricultural and Processed Food Products Export Development Authority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 인도 농식품 수출개발청(APEDA)은 수출 촉진 이외에도 수출 예정 제품 관련 산업 개발, 수출자 등록, 제품 표준 및 사양 개정, 축산물 검사, 제품 포장 개선, 제품 홍보 등을 담당한다.

○ 농식품 수출개발청(APEDA)의 수출 촉진 계획은 수출인프라 구축, 품질 개선, 시장 개척 세 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 수출인프라 구축 분야 사업의 경우 2천만 루피 한도로 비용의 40%까지 지원한다.
- 품질 개선 분야 사업은 비용의 50%까지 지원하며, 품질 관리 시스템 설치 및 인증은 50만 루피, 실험실 테스트 장비는 1천만 루피(공장 내 실험실은 5백만 루피), 농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을 위한 휴대용 장치 등은 2백만 루피, 잔류농약 등의 테스트는 5년간 2백만 루피 한도로 지원된다.

³⁹⁾ 인도 농식품 수출개발청(APEDA)의 “2021~2025년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촉진 계획(Agriculture and Processed Foods Export Promotion Scheme of APEDA for the 15th Finance Commission Cycle)”을 번역 및 정리함.

- 시장 개척 분야의 박람회 운영 및 회의 주선과 표준 개발은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 개발청이 직접 수행한다.

〈표 4-9〉 인도 농식품 수출개발청(APEDA)의 수출 촉진 계획

분야	지원 내용	지원 방식
수출 인프라 구축	- 포장·등급 지정 라인을 갖춘 창고시설과 같은 기반시설 - 냉장 보관 및 냉동 운송 기능을 갖춘 사전 냉각 장치 - 바나나와 같은 작물을 처리하기 위한 케이블 시스템 - 수입국의 식물위생 요건 준수를 위한 증열처리, 온탕침법과 같은 선적전(pre-shipment) 처리 시설 - X-ray, 영상 검사, 오물/금속 탐지기와 같은 식품 가공 시설에서의 식품 안전과 품질 요구 수준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	- 비용의 40%까지 지원(2천만 루피 한도)
품질 개선	- 품질 관리 시스템 설치 및 인증	- 비용의 50%까지 지원(개별 인증당 50만 루피 한도)
	- 실험실 테스트 장비	- 개보수: 비용의 50%까지 지원(1천만 루피 한도) - 수출자 공장 내 실험실 테스트 장비: 비용의 50%까지 지원(5백만 루피 한도)
	- 농산물 이력추적 시스템을 위해 농장 단위의 좌표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장치와 표본 테스트 등	- 비용의 50%까지 지원(2백만 루피 한도)
	- 물, 토양, 잔류농약 및 살충제, 수의학 약물, 호르몬, 독소, 중금속, 오염물질 등의 테스트	- 비용의 50%까지 지원(표본당 5,000루피 한도, 5년간 2백만 루피 한도)
시장 개척	- 국제 무역 박람회 참가 - 무역 대표단 교환 - 구매자·판매자 회의 주선 - 신제품 포장 표준 개발 및 기준 표준 업그레이드	- 인도 농산물·가공식품 수출개발청 자체 수행

자료: APEDA(2021), "Agriculture and Processed Foods Export Promotion Scheme of APEDA for the 15th Finance Commission Cycle".

3.2. 인도의 농식품 수입 관련 정책

3.2.1. 인도의 조세 제도⁴⁰⁾

○ 인도는 개방적인 무역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여전히 관세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인도의 평균 실행관세율(Most Favored Nation rate)은 2020년 기준 14.6%이다. 이는 2019년 15.5% 대비 0.9%p 인하되었지만, 2017년 세계 전체의 평균 실행관세율 8.9%에 비하면 인도의 2017년 평균 실행관세율은 13.8%로 높은 편에 속한다.⁴¹⁾

○ 다만, 인도는 평균 실행관세율(MFN rate)의 예외로 적용되는 특혜세율(Preferential rate)을 적용하고 있어 협정을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특혜세율은 FTA 체결국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WTO 양허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다른 관세율보다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이다.
- 인도와 한국은 2010년 한·인도 CEPA를 체결한 후 인도가 한국에 적용하는 평균 실행관세율이 2009년 9.9%에서 2016년 3.3%까지 인하되었다. 2021년 기준 한·인도 CEPA 양허품목(전체 품목의 85%) 중 약 71.5%에 0%의 수입 관세율이 적용된다.

○ 인도는 수입품에 기본관세 외에 통합상품서비스세(Goods and Service Tax)를 적용하는데,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통합상품서비스세는 상품 제조, 판매 및 소비, 서비스에 부과되는 포괄적인 간접세로 중앙정부와 주 정부가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하는 모든 간접세를 통합한 세금이다.

40) 관세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20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아시아·대양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간접세 부분은 인도 정부의 투자진흥원 홈페이지 Invest India(<https://www.investindia.gov.in/ko-kr/taxation>)와 인도 Goods and Services Tax Council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41) The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TM.TAX.MRCH.SM.FN.ZS>), 검색일: 2023. 9. 11. 자료로 조회한 관세율이며, 세계 전체의 평균 실행관세율은 2017년 자료가 최신자료이므로 2017년을 기준으로 비교함.

〈표 4-10〉 통합상품서비스세(GST)로 통합된 인도의 간접세 체계

중앙정부 세금(Central Taxes)	주 정부 세금(State Taxes)
- 중앙정부 소비세 - 부가 소비세 - 상계관세(CVD) 및 특별상계관세(SAD) - 서비스세 - 부담금(surcharge) 및 세금(cess)	- 주정부 부가가치세/판매세 - 중앙정부 판매세 - 구매세 - 오락세 - 사치세 - 상품이동세 - 복권세 및 도박세 - 부담금 및 세금
↓	↓
통합상품서비스세(GST)	
CGST(Central GST), IGST(Integrated GST)	SGST(State GST)

자료: National Investment Promotion&Facilitation Agency(2019), "Taxation Toolkit".

○ 한국의 농식품 수출업체는 통합상품서비스세를 직접 납부할 필요는 없으나, 인도의 수입업체와 계약 시 관세지급 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 Shipping: DDP)⁴²⁾을 삽입한 경우 계약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8).

- 통합상품서비스세와 관련해 추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등록번호를 GSP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환급은 인도 수입업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한국 수출업체의 기업 등록은 필요하지 않다.
- 다만, 인도 수입업체와 계약 시 관세지급 인도조건을 요구한다면, 한국 수출기업은 인도의 세금을 납부하고도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계약 시 관세 및 세무 전문가 자문을 얻어 계약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 통합상품서비스세의 표준 세율은 12% 및 18%의 세율로, 필수 식품인 농축산물류는 과세가 면제되고 대량 소비 상품에는 5% 세율이 적용된다.

- 인도 정부는 고과당 식품과 탄산음료 등의 소비 억제를 위해 당분과 지방 함량이 높은

⁴²⁾ 관세지급 인도조건이란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무역 거래 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인 Incoterms(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중 하나로 해당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수입통관(수입 관세 및 기타 세금 등의 지급)을 완료한 물품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배에서 짐을 내릴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함(포워더케이알(<https://www.forwarder.kr/incoterms/ddp>), 검색일: 2023. 9. 11.).

식품의 경우 신선식품 대비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⁴³⁾

- 따라서, 한국의 농식품 수출기업은 상품 제조 및 수출 시 가공 정도 및 제품에 포함되는 원료가 어느 단계의 세율을 적용받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4-11〉 통합상품서비스세(GST) 세율 구조

세율(Slab)(%)	품목 종류
0	농축산물(신선육, 닭, 우유, 꿀, 생과일, 채소 등) 및 수산물 등
5	향신료, 식용유, 인슐린, 커피, 차, 진공포장 식품(1,000루피 이하) 등
12	버터 및 기타 지방류, 당뇨환자용 조제식품, 냉동육 식품, 소시지, 건과일, 과일주스 등
18	비스킷, 설탕, 소스, 향 첨가 시럽, 아이스크림 등
28	초콜릿, 껌, 탄산음료, 담배 등

자료: Goods and Services Tax Council(<https://gstcouncil.gov.in/overview-gst-english>), 검색일: 2023. 9. 7.

3.2.2. 인도의 농식품 수입 규제

○ 특정 국가의 수입 관련 비관세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현황은 WTO 회원국들이 자국의 무역을 저해하거나 요건이 불명확한 비관세장벽 조치에 대해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 회원국들은 WTO 산하의 시장접근 위원회(the Committee on Market Access), 수입허가절차 위원회(the Committee on Import Licensing),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the Committee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무역 기술장벽조치 위원회(the Committee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Measures)에 통보된 타 회원국의 조치가 자국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경우 공식적인 이의 제기인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할 수 있다.

○ 인도에 특정무역현안이 제기된 경우는 106건이며, 한국이 인도에 제기한 특정무역현안은 20건이다.⁴⁴⁾

⁴³⁾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board/globalVillageReportView.do?board_seq=87564&menu_dept2=35&menu_dept3=56, 검색일: 2023. 9. 11.)를 참고함.

⁴⁴⁾ SPS 및 TBT 기준으로 한정해 보면, 인도에 제기된 특정무역현안은 89건이며, 한국이 인도에 제기한 특정무역현

- 인도표준국(BIS)은 산업 분야의 표준을 정하는 기관으로 2023년 4월 기준 의무인증 대상 품목 395개(식품 포함)와 강제 등록 품목 80개를 관리한다.
-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식품 안전을 위해 식품의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을 담당한다.

○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2022년에 포장 전면 식품표시 제도(Front-of-pack nutritional labeling) 및 식품표시 제도 불합치 요건을 포함하여 식품표시제도 주요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

-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의 포장 및 식품표시는 ‘식품 안전 및 표준 규정(Food Safety and Standard Regulations) 2020’의 적용을 받는다. 인도로 수출할 제품의 식품 표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해당 법에 따라 알레르기 유발 물질, 열량 정보 등을 표시하고 식품 제조, 가공, 저장 장소의 조건을 표시해야 한다.
- 인도 ‘식품 안전 및 표준 규정 2020’의 개정 사항으로 ‘비소매용 용기(Non-retail Container)’와 ‘인도 영양 등급(Indian Nutrition Rating: INR)’이 있다.

○ ‘비소매용 용기’ 요건은 비소매용 식품 용기의 라벨에 표시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와 비소매 용도임을 나타내는 표시 방법 규정이다.

- 비소매용 용기란 식품 운송에 사용되는 용기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정의에 따르면 ‘식품 운송 단위’를 의미한다. 비소매 용기의 예시로는 식품 운송 차량 또는 용기, 통, 벌크(Bulk) 탱크, 트레일러 등이 있다.
- 인도로 수출되는 비소매용 제품에는 용기 또는 라벨에 식품의 이름, FSSAI 로고와 수입 라이선스 번호, 품질유지기한 및 보관 지침, 로트 번호(Lot No.)/배치 번호(Batch No.)/코드 번호(Code No.), 제조 회사 명칭과 주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식품이 비소매용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용기에 포장된 식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용도가 아님을 나타내는 “NON-RETAIL CONTAINER(비소매용 용기)” 또는 “NON-RETAILCONTAINER-NOT FOR DIRECT SALE TO CONSUMER(비소매용 용기-소비자 직접 판매용 아님)”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이 2022년 주요 개정 사항으로 발표한 인도 영양 등급(INR)은 별점으로 건강 등급(Health star rating)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 건강 등급은 기본 점수를 구성하는 4가지 건강 위험 요소(제품 100g당 또는 100ml당 열량, 설탕, 포화지방, 나트륨), 과일과 채소(Fruit and Vegetable: FV)와 같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소 최소 비율의 점수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 기본 점수 및 과일과 채소 점수에 더하여 고형 식품의 경우는 견과류·콩류·기장(Nuts, Legumes, and Millets: NLM) 점수, 식이섬유(Dietary Fiber: F) 점수, 단백질(Protein: P) 점수가 고려되며, 유동 식품의 경우는 식이섬유 점수가 고려된다.
- 식품에 각 구성 요소의 함량이 높을수록 영양 등급 점수는 높게 산출되며, 별(등급)은 점수가 높을수록 역으로 낮게 산출되는 방식이다.

〈표 4-12〉 인도 영양 등급 점수 및 별 산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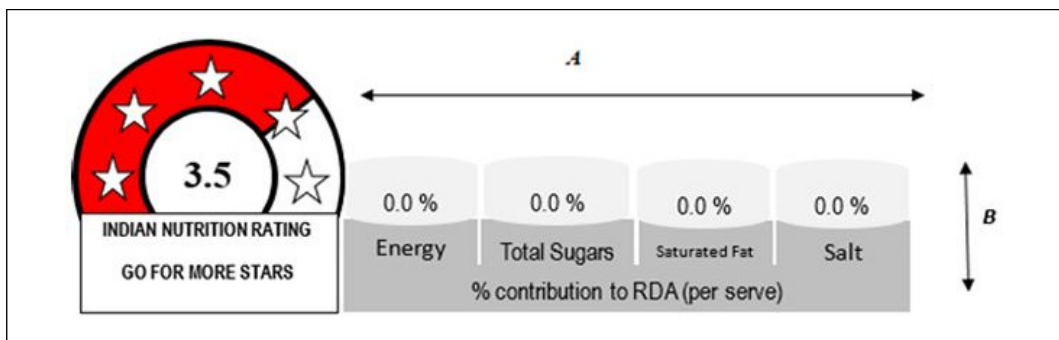
인도 영양 등급(INR) 점수 산출		
기본 점수 - [(과일과 채소(FV) 점수) + (견과류·콩류·기장(NLM) 점수) + (단백질(P) 점수) + (식이섬유(F) 점수)] * 100g 또는 100ml당 해당 항목의 함량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음		
인도 영양 등급(INR) 별(등급) 산출		
별(등급)	고형 식품 INR 점수	유동 식품 INR 점수
5(가장 건강에 좋음)	-11점 이하	0점 이하
4.5	-10~-7점	1~2점
4	-6~-2점	3~4점
3.5	-1~2점	5~6점
3	3~6점	7~9점
2.5	7~11점	10~12점
2	12~15점	13~15점
1.5	16~20점	16~18점
1	21~24점	18~20점
0.5(가장 건강에 좋지 않음)	25점 이상	20점 이상

자료: FSSAI(2022), 44272/2022/REGULATION-FSSAI.

○ 인도 영양 등급(INR)은 <그림 4-2>와 같은 모양으로 제품 포장 전면에 표시되는데, 별 등급과 4가지 건강 위험 요소의 함량을 포함한다.

- 인도 영양 등급은 식품 포장 전면에 별 1/2개(가장 건강에 좋지 않음)부터 별 5개(가장 건강에 좋음) 등급을 통해 식품의 전반적인 영양 상태를 소비자에 전달한다.
- 해당 로고는 포장 전면의 제품명 또는 브랜드명 가까이에 표시되어야 하며, 식품 제조사는 4가지 건강 위험 요소의 1일 권장량당 비율을 선택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림 4-2> 인도 영양 등급 식품표시의 예시



자료: FSSAI(2022), 44272/2022/REGULATION-FSSAI.

○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식품표시제도 외에도 외국 식품 제조 시설의 등록 의무와 우유 및 유제품과 돼지고기 및 가공제품의 검역증명서 제출 규정을 공표했다.

- 2022년 10월 발표된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 명령에 따르면 우유 및 유제품, 육류 및 육류 제품, 계란 분말, 유아용 식품 및 기능 식품을 인도로 수출하려는 모든 외국 식품 제조 시설은 자국의 관할 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각 국가의 관할 당국은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에 기존 식품 제조 업체 목록과 앞서 언급된 제품을 수출하려는 제조 업체 목록을 이메일로 전달해야 한다.
- 또한,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2023년 1월 1일부터 우유 및 유제품과 돼지고기 및 가공제품의 경우 수출업체의 자국 관할 당국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검역증명서에는 수입 통관에 필요한 모든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의 식품안전 관련 요구사항과 증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또한,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엄격한 채식주의(Vegan) 표시제도를 개정하여, 엄격한 채식주의 제품 수출기업의 자국 관할 당국이 발행한 인증서를 수입 필수 사항으로 규정했다.

-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의 ‘식품 안전 및 표준(엄격한 채식주의 식품) 규정 2021(Food Safety and Standard (Vegan Food) Regulations 2021)’은 엄격한 채식주의 식품을 동물성 원료,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으로 정의한다.
- 우유 및 유제품, 생선, 가금류 및 육류, 계란 및 가공품, 꿀 또는 꿀벌 제품, 곤충 유래 물질(실크, 염료 등),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여 정화된 성분(설탕 표백에 사용되는 뼈 숯 등)이 동물성 원료, 첨가물 및 가공 보조제에 해당한다.
- 인도의 엄격한 채식주의 식품표시는 녹색의 V 모양으로 제품의 성분이 식물 유래임을 표시하고 문자 V는 Vegan을 의미하며, 엄격한 채식주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표시된다.

○ 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AI)의 규제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고 새로운 규제 도입 및 개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USDA, 2022) 인도로의 식품 수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

- 한국산 식품이 식품표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통관 거부된 사례가 있으므로, 한국의 식품 수출기업은 인도의 식품 규정 개정 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인도 정부는 식품 인증제도 외에도 값싼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 생산자의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일부 항목에 대하여 수입 제한조치인 수입 금지 및 최저수입 가격(Minimum Import Price: MIP)을 적용한다.

- 인도 정부는 후추, 캐슈 커널, 완두콩, 코코넛의 값싼 수입을 막기 위해 kg당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 녹두는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며, 비둘기콩과 우라드콩⁴⁷⁾의 수입은 2024년 3월 31일 까지 허용된다.

47) 우라드콩은 남아시아를 원산지로서 하는 일년생 초본 콩과의 검은콩으로 인도 요리인 우르드 달, 메두바다, 이들리 등에 쓰임(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56049&cid=40942&categoryId=40028>), 검색일: 2023. 10. 18.).

〈표 4-13〉 인도의 최저수입가격 적용 현황

품목	적용 현황
후추(pepper)	500루피/kg(2017년 12월 6일부터 적용)
캐슈 커널 분태(cashew kernel, broken)	680루피/kg(2019년 6월 12일부터 적용)
통 캐슈 커널(cashew kernel, whole)	720루피/kg(2019년 6월 12일부터 적용)
완두콩(peas)	200루피/kg(2019년 12월 18일부터 적용)
말린 코코넛(desiccated coconut)	150루피/kg(2020년 1월 8일부터 적용)

자료: MoA&FW(2023), “Annual Report 2022-2023”.

3.3. 인도의 농식품 통상 관련 이슈⁴⁸⁾

○ 인도는 내수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농식품 공급과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서 쌀, 밀(밀가루), 설탕 등 필수 물품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부과한다.

- 인도 정부는 국제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2022년 5월 13일에 밀 수출을 금지했고, 이어 2022년 6월 1일에는 설탕 수출을 금지했다.
- 2022년 8월에는 밀가루의 수출을 금지했고, 2022년 9월에는 사료용 쌀 확보 및 곡물 기반의 에탄올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파쇄미 수출을 금지했다.
- 2023년 7월 20일에는 몬순 폭우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비(非)바스마티 백미 (Non-basmati white rice)의 수출을 금지했다.
- 수출 금지 외에도 인도 정부는 2022년 9월부터 쌀과 현미에 수출 관세 20%를 부과하고 있다. 2023년 8월부터는 양파와 찐쌀에 수출 관세 40%를 부과하고, 바스마티 쌀 수출 시 톤당 1,200달러의 최저수출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⁴⁸⁾ USDA(2023)의 India: India Bans the Export of Non-Basmati White Rice와 김도연·이효진(2023)의 “인도 농산물 수출 제한 배경 및 영향”을 참고하여 작성함.

〈표 4-14〉 인도의 농산물 수출 제한 현황

품목	제한 내용	적용 기간
밀(wheat)	수출 금지	2022. 5. 13.~2023. 12. 31.
설탕(sugar)		2022. 6. 1.~2023. 10. 31.
밀가루, 세몰리나, 마이다 밀가루 (wheat flour, semolina, maida)		2022. 8. 25.~2023. 12. 31.
파쇄미(broken rice)		2022. 9. 8.~2023. 12. 31.
비(非)바스마티 백미 (non-basmati white rice)	수출 금지 (2023. 9. 25. 아랍에미리트연합으로 7만 5,000톤 수출은 제한적으로 허용)	2023. 7. 20.~12. 31.
양파(onions)	수출 관세 40% 부과	2023. 8. 19.~12. 31.
찐쌀(parboiled rice)	수출 관세 20% 부과	2023. 8. 25.~12. 31.
바스마티 쌀(basmati rice)	최저수출가격 1,200달러/톤 부과	2023. 8. 27.~12. 31.
쌀, 현미(unmilled rice, semi-milled rice, wholly milled rice, husked brown rice)	수출 관세 20% 부과	2022. 9. 9.~2023. 12. 31.

자료: Food Security Portal(<https://www.foodsecurityportal.org/tools/COVID-19-food-trade-policy-tracker>),
검색일: 2023. 10. 18.; APEDA(https://apeda.gov.in/apedawebsite/Latest_Notification/Notification.html),
검색일: 2023. 10. 19.

○ 인도의 수출 제한 조치의 주요 배경으로는 폭우·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 감소 등 공급 불안정성 증가가 있다.

- 쌀과 밀의 주산지인 인도 북서부에서는 2023년 몬순 우기에 이상고온 현상과 폭우가 발생하여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이에 인도 국내 곡물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
- 반면, 양파와 사탕수수 주산지인 마하라슈트라주 등 인도 남·서부 지역의 2023년 강우량은 전년의 절반 수준으로 양파와 사탕수수 생산에 차질을 주어 국내 수급이 불안정해졌다.

○ 인도 식료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모디 정부의 정치적 부담 증가도 농산물 수출 제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인도의 소비자물가 바스켓에서 식료품 중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큰 쌀과 밀의 2023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3%와 11.9% 상승했다. 이외에도 양파의 소비자물가지수도 11.2%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인도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⁴⁹⁾

○ 인도의 농산물 수출 제한으로 인해 국제 쌀 가격 상승과 인도산 쌀 주요 수입국의 식량 안보 위험 증가가 전망된다.

- 인도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기 때문에 인도의 비(非)바스마티 백미 수출 금지 조치는 국제 쌀 공급에 대한 불안을 확대해 국제 쌀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은 쌀 수입에서 인도산 비율이 높는데, 인도의 비(非)바스마티 백미 수출 제한 조치는 해당 국가들의 식량안보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인도 정부는 2024년 인도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쌀 조달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선 이후 증가한 곡물 재고를 내수 시장에 공급하여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2024년 총선을 준비하는 인도 정부의 목표는 유권자들에게 보조금을 통한 낮은 가격으로 충분하게 배분할 수 있는 정부 보유 쌀 재고를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최소지원가격제도를 통해 최소지원가격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추가적인 쌀 조달 거점을 건립하여 적극적으로 쌀 조달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4년 총선 이후 차기 정부는 적극적인 쌀 조달로 인하여 증가한 재고를 관리하기 위하여 내수 시장에 쌀을 공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내수 시장에 쌀 공급을 증가시키면 세계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49) 인도 식료품 인플레이션과 국가 안보가 2014년과 2019년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속한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이 선거에 승리한 배경이 된 바 있음. 따라서, 모디 정부는 2023년 말 주(州) 선거와 2024년 4~5월의 인도 총선을 앞두고 국내 주요 식품의 수급을 안정화하고 가격을 낮추는 등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있음.

5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최근 세계 시장에서 인도의 인구·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추진될 신 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의 국가 및 농업 개황, 인도의 주요 품목별 생산 및 교역 동향, 인도의 농업 및 농업통상 관련 정책 및 이슈 등을 조사하였다.

- 인도의 최근 10년(2012~2022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64%로 같은 기간 세계 평균(2.69%)보다 2배 이상으로 높다.
- 인도는 2023년 7월 현재 31개국과 19건의 지역무역협정을 발효했으며, 20건의 새로운 FTA 체결 협상도 추진하고 있다. 그중에 우리나라와는 CEPA를 2010년에 발효했으며, 최근에는 제9차 개선 협상이 추진되었다.
-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세계 시장에서 인도의 중요성이 높아지는데, 인도 자체적으로도 제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으로의 편입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 향후, 한국·인도 CEPA 개선협상 타결과 IPEF 체결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

의 국내 농업 부문 대응 방향 마련, 한국과 인도 간 수출입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농업인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등을 위해 인도의 농업 관련 동향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 조사한 주요 품목은 인도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쌀, 밀, 감자, 옥수수, 인도의 對세계 수출액 비중이 높은 후추, 땅콩, 커피, 인도의 對한국 수출액 비율이 높은 참깨의 총 8개 품목이다.

○ 인도 재배업은 주로 식량작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량작물과 채소류 재배면적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 대부분의 식량작물 재배면적이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기장과 수수 재배면적의 연평균 변화율은 각각 -0.9%와 -5.4%로 감소추세를 보인다.
- 채소(기타)의 재배면적은 연평균 3.2% 증가했으며, 아니스와 팔각 등의 재배면적은 인도 정부의 계획으로 인하여 연평균 10.2%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인도의 기타 주요 농산물인 면씨, 유채씨, 땅콩, 참깨의 재배면적은 연평균 1% 내외의 변화율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땅콩 재배면적이 주요 농산물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 인도의 농식품 수출액과 수입액은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농식품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커서 2011년 이후 매년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 인도의 농식품 수출액은 최근 증가세를 보여 2021년에 전년 대비 26.3%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치인 393억 달러를 기록했다.
- 인도의 농식품 수입액도 2021년에 역대 최대치이자 전년 대비 40.8% 증가한 288억 달러를 기록했다.

○ 2021/22년 인도의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쌀 수출량은 수출대상국의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많이 증가했다.

- 2021/22년 인도의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억 3천만 톤이고, 서벵골

주, 우타르프라데시주, 편자브주, 텔랑가나주 등 상위 5개 주의 쌀 생산량이 인도 전체 생산량의 50.9%를 차지하고 있다.

- 2021년 인도의 쌀 수출량은 2,128만 톤으로 전년 대비 45.6%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96억 달러로 전년 대비 20.6% 증가했다. 인도는 쌀을 방글라데시, 네팔, 베냉, 중국, 세네갈 등으로 많이 수출하는데, 방글라데시의 수급 불안정(가뭄, 홍수 등)에 대비한 인도산 쌀 수입 확대 영향으로 인도의 對방글라데시 쌀 수출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 2021/22년 인도의 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으나, 수출량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22년 인도의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1억 1천만 톤이며, 우타르프라데시주, 마디야프라데시주, 편자브주, 하리아나주 등 상위 5개 주의 밀 생산량은 인도 전체 생산량의 85.3%를 차지한다.
- 2021년 인도의 밀 수출량은 6백만 톤으로 전년 대비 555.8% 증가했다. 이는 기상 이변에 따른 세계 밀 주산지(호주, 프랑스, 우크라이나)의 생산량 감소와 일부 국가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도산 밀의 대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2021/22년 인도의 옥수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으며, 수출량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22년 인도의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3,362만 톤이며, 카르나타카주, 마디야프라데시주, 마하라슈트라주 등 상위 5개 주의 옥수수 생산량은 인도 전체 생산량의 55.8%를 차지한다.
- 2021년 인도의 옥수수 수출량은 362만 톤으로 전년 대비 104.6% 증가했으며, 주로 방글라데시, 베트남, 네팔, 말레이시아, 부탄 등으로 많이 수출한다.

○ 2021/22년 인도의 감자 생산량은 재배면적은 유지되는 가운데 단위면적당 생산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수출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22년 인도의 감자 생산량은 전년 대비 4.9% 감소한 5,339톤이며, 우타르프라

데시주, 서벵골주, 비하르주 등 상위 5개 주의 감자 생산량은 인도 전체 생산량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 2021년 감자 수출량은 48만 톤으로 전년 대비 22.1% 증가했으며, 주로 네팔, 오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많이 수출한다.

○ 인도의 후추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더불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정체하면서 감소하지만, 수출량은 전년 대비 2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22년 인도의 후추 생산량은 단위면적당 생산량 정체로 전년 대비 1.8% 감소한 6만 5천 톤을 기록했다.
- 인도는 후추를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2021년 인도의 對미국 후추 수출량은 전년 대비 64.7% 증가한 9,054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41.2%를 차지한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연합으로의 후추 수출량은 코로나19 이후 조리 편의성과 다양한 맛을 보려는 욕구 등으로 전년 대비 167.1%의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인도의 땅콩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수출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22년 인도의 땅콩 생산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1,024만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 2021년 인도의 땅콩 수출량은 56만 4천 톤으로 전년 대비 17.1% 감소했으며, 수출액은 7억 달러로 전년 대비 8.3% 감소했다. 인도는 땅콩을 대부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 수출하며, 2021년 對인도네시아 수출량은 전년보다 8.7% 증가한 25만 4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45.1%를 차지한다.

○ 인도의 커피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며, 커피 수출량은 전년 대비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22년 인도의 커피 생산량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2.1%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33만 4천 톤을 기록했다.

- 인도는 커피를 유럽 국가로 주로 수출하지만, 최근 들어 요르단과 리비아 등 중동 국가로의 수출량이 늘고 있다. 2021년 인도의 對요르단과 對리비아 커피 수출량은 이슬람국가의 금주에 따른 대체 소비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각각 66.4%와 50.8%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 인도의 참깨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으나, 수출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22년 인도의 참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3% 증가 81만 7천 톤으로 2011/1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했다.
- 2021년 인도의 참깨 수출량은 26만 톤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했으며, 수출액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2021년에는 전년 대비 5.9% 감소한 4억 달러를 기록했다.
- 인도는 참깨를 주로 한국에 수출하며, 2021년 인도의 對한국 참깨 수출량은 전년 대비 58.4%의 큰 폭으로 증가한 4만 6천 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17.8%를 차지한다. 한국으로의 수출량이 늘어난 이유는 전년도에 한국의 참깨 재배 시기에 50여 일 이상 지속된 장마에 따른 병충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TRQ 증량 등을 통해 인도산 참깨 수입을 늘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인도의 생산 정책은 내수 시장의 가격 안정과 식량안보 달성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정책으로는 투입재 지원(input support), 지지 가격(support price), 조달 및 공공 유통(procurement and public distribution)이 있다.

- 인도 정부는 투입재 지원(input support) 정책을 통해 농부들에게 종자, 비료, 관개, 전기 등을 제공한다. 특히, 비료의 경우 비료 통제 명령(Fertilizer Control Order)에 따라 최고 소매가격과 생산 가격의 차이만큼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
- 인도 정부는 농산물가격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22종 작물의 최소지원가격을 발표하고, 시장 가격이 최소지원가격보다 낮으면 농부들에게 수매를 제안한다. 최소지원가격은 수급, 생산비, 가격 추세, 농산물과 비농산물 간의 교역 조건 등을 바탕으로 결정된다.

- 인도의 식량작물은 인도 중앙정부의 조달 및 공공 유통 정책을 통해 공공 유통되거나 지방 정부에 최소지원가격보다 낮은 정부 제시 가격으로 판매된다.

○ 인도 정부의 농업 통상 정책으로는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수입 관련 조치와 농식품의 수출을 촉진하는 조치가 있다.

- 인도 농식품 수출 정책의 주목적은 인도의 농식품 수출액 1천억 달러 달성, 수출 품목과 수출 대상국의 다양화, 고부가가치 품목의 수출 촉진, 유기농 및 전통 상품 수출 촉진, 시장접근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무역 장벽 및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대응, 글로벌 가치 사슬 편입을 통한 인도의 수출 점유율 두 배 달성 등이다.
- 인도 정부는 기반시설 정비, 농업뿐만 아니라 연구, 공공 유통, 운송을 담당하는 중앙 부처와 주 정부의 개입을 권고한다. 또한, 주요 농산물의 국내 공급을 규제하기 위해서 수출세, 수출 제한 및 금지, 최저수출가격, 국영 무역 정책이 적용된다.
- 인도의 수입 규제 조치로는 관세, 관세율할당, 최저수입가격, 수입 허가서와 수입 금지, 국영 무역 등을 통한 수입이 있다.

2. 시사점

○ 인도는 인구와 산업별 GDP 등에 있어서 농업 분야의 중요성이 매우 높고, 대외 무역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FTA도 활발히 체결하고 있어서 국제 시장에서의 중요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2010년에 인도와 체결한 CEPA에 관한 개선 협상과 IPEF 협상을 통해 국제 공급망 불안뿐만 아니라 국내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한국과 인도 간 CEPA 개선 협상은 2022년 11월에 제9차 협상이 개최된 이후 후속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IPEF는 2023년 5월에 공급망 협정(Pillar 2)이 타결되었고, 지난 7월에는 제4차 공식협상이 개최되었다.

○ 인도의 주요 농업정책은 우리나라의 주요 농업정책과 맞닿아 있는 면이 많아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한국에서는 최근 농가소득 안전망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가격손실 보상제도(Price Loss Coverage: PLC)와 같은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의 최소지원가격제도는 미국의 가격손실보상제도와 유사하지만, 해당 품목의 생산비, 내수 및 세계 시장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 국내외 가격, 농업과 비농업 분야의 교역 조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차이점도 있다. 따라서, 인도의 최소지원가격제도에 따른 성과 또는 장기적인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농민임금지원제도는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농민수당과 유사한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개인당 보조금 지급 규모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의 정책이라는 점은 한계로 보인다.

○ 인도의 수출 촉진 정책은 우리나라의 수출 정책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출 제한 정책이나 식품 표시 제도 등 수입 규제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식품 표시 제도는 인도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고, 개별 국가와 개별 품목별 식품 표시 의무사항들을 개별 수출기업이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나 공공기관 차원에서 수출대상국별 식품 표시 제도와 변경 사항 등을 지속해서 관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그뿐만 아니라 인도 국내 여건 및 국제 공급망 이슈에 따라 수시로 시행되는 인도산 농축산물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김도연·이효진(2023), “인도 농산물 수출 제한 배경 및 영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 포커스》 제 34호.
산업통상자원부(2022), 《2022 외국의 통상환경-아시아·대양주》: 379-380.
원지은(2019), “인도의 농업·농정 현황 및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 제222호: 73-9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18), 《2018 농식품 해외시장 맞춤형조사(품목: 과일주스 음료, 국가: 인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2021), 《2021 농식품 수출국가정보(인도)》.
한국은행(2020),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

APEDA(2021), “Agriculture and Processed Foods Export Promotion Scheme of APEDA for the 15th Finance Commission Cycle”.
FSSAI(2022), 44272/2022/REGULATION-FSSAI.
Kumara Charyulu D, Bantilan Cynthia, Rajalaxmi A, Reddy BVS, Borikar ST, Kumar A Ashok & Singh NP and Shyam D Moses(2014),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Sorghum Improved Cultivars In India: Impact on Growth and Stability in Yield”, International Crops Research Institute for the Semi-Arid Tropics.
MoA&FW(2023), “Agricultural Statistics At a Glance 2022”.
MoA&FW(2023), “Annual Report 2022-2023”.
MoCI(2018), “Agriculture Export Policy”.
National Investment Promotion&Facilitation Agency(2019), “Taxation Toolkit”.
NITI Aayog(2015), “Ra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Making Farming Remunerative for Farmers”.
USDA(2021), “Oilseeds and Products Update: India”.
USDA(2022), “India’s FSSAI Publishes Draft Notification on Front-of-Pack Labeling for Packaged Food Products High in Fat and Sugar and Salt”.
USDA(2023), “India: India Bans the Export of Non-Basmati White Rice”.
WTO(2021), “Trade Policy Review: India” WT/TPR/S/403/Rev.1.

〈참고 인터넷 사이트〉

경향신문(<https://m.khan.co.kr/world/asia-australia/article/201406022133451#c2b>), 검색일: 2023. 7. 28.
네이버 사전(<https://en.dict.naver.com/#/entry/enko/8ebc2af518034cb2b9ecf3e11d49abde>), 검색일: 2023. 10. 18.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96255&cid=60262&categoryId=60262>), 검색일: 2023. 10. 18.

농촌진흥청 농사로(<https://www.nongsaro.go.kr/portal/portalMain.ps?menuId=PS00001>),
 검색일: 2023. 9. 21.

농촌진흥청 농사로(<https://www.nongsaro.go.kr/portal/ps/psq/psqb/farmTermSimpleDicLst.ps?menuId=PS00064&searchTagWord=%EC%9E%87%EA%BD%83&sWordNm=%EC%9E%87%EA%BD%83>), 검색일: 2023. 10. 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338243&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2&search_region=&search_area=¤tPage=5&pageCnt=10), 검색일: 2023. 10. 18.

미국 중앙정보국(<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india/>), 검색일: 2023. 6. 21.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https://www.emerics.org/446/newsBriefDetail.es?brdctsNo=313607&mid=a10100000000&systemcode=02>), 검색일: 2023. 7. 14.

외교부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https://overseas.mofa.go.kr/in-ko/index.do>), 검색일: 2023. 6. 21.

인도 언론정보국(<https://pib.gov.in/PressReleaseIframePage.aspx?PRID=1912572>), 검색일: 2023. 7. 5.

인도 통계정책실행부(<https://www.mospi.gov.in/>), 검색일: 2023. 6. 23.

포워드더케이알(<https://www.forwarder.kr/incoterms/ddp>), 검색일: 2023. 9. 11.

한국 통계청(<http://kosis.kr>), 검색일: 2023. 6.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식품수출정보(https://www.kati.net/board/globalVillageReportView.do?board_seq=87564&menu_dept2=35&menu_dept3=56), 검색일: 2023. 9. 11.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67065>), 검색일: 2023. 9. 12.

APEDA(https://apeda.gov.in/apedawebsite/Latest_Notification/Notification.html),
 검색일: 2023. 10. 19.

FAOSTAT(<https://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3. 6. 21., 2023. 6. 26., 2023. 7. 3.,
 2023. 7. 14., 2023. 8. 28., 2023. 10. 23.

Food Security Portal(<https://www.foodsecurityportal.org/tools/COVID-19-food-trade-policy-tracker>), 검색일: 2023. 10. 18.

Goods and Services Tax Council(<https://gstcouncil.gov.in/overview-gst-english>), 검색일: 2023. 9. 7.

KOTRA(<https://dream.kotra.or.kr/kotranews/index.do>), 검색일: 2023. 7. 4.

MoA&FW(<https://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713247>), 검색일: 2023. 7. 26.

MoCI(<https://commerce.gov.in/international-trade/trade-agreements/>), 검색일: 2023. 7. 4.

The World Bank(<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TM.TAX.MRCH.SM.FN.ZS>), 검색일: 2023. 9. 11.

UN Comtrade Database(<https://comtrade.un.org/data>), 검색일: 2023. 6. 27., 2023. 7. 14.
World Bank Databank(<https://databank.worldbank.org/>), 검색일: 2023. 10. 18.
WTO Regional Trade Agreements Database(<http://rtais.wto.org/UI/PublicMaintainRTAHome.aspx>). 검색일: 2023. 7. 4.
WTO(https://www.wto.org/english/thewto_e/countries_e/india_e.htm), 검색일: 2023. 9. 11.

〈보도자료〉

식품음료신문(2021. 11. 25.), “중동 이슬람, 술 대신 무알코올·커피음료에 열광”.
한국농어민신문(2022. 8. 5.), “‘물가관리’ 탓에 걸린 참깨…산지 생산기반 또 흔들다”.

Maritime Gateway(2021. 7. 29.). “Rice Exports To Bangladesh On The Rise”.
REUTERS(2021. 2. 4.), “India lines up deepwater port for rice, exports to surge amid global shortage”.
CNBC(2020. 12. 17.), “Explained: Why is China importing rice from India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The Economic Times(2022. 7. 16.), “India’s spice exports need to grow at 19.5% to meet \$10 billion target by FY27”.

KREI

인도 농업과 주요

농업정책 동향

www.krei.re.kr



9 791161 496412
ISBN 979-11-6149-641-2



(PDF)

비매품/무료
955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el. 1833-5500

Fax. 061) 820-2211